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Raising Values of Public-Building

서수정 Seo, Soo Jung
조준배 Cho, Jun Bae
임현성 Lim, Hyun Sung

(a u r 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

itute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Raising Values of Public-Building

지은이: 서수정, 조준배, 임현성

펴낸이: 온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08년 9월 16일, 발행: 2008년 3월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05-9

발간물 번호: AURI-기본-2007-6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Raising Values of Public-Building

(a u r i

연구진

연구책임	서수정 • 연구위원
연구진	조준배 • 부연구위원
	임현성 • 연구원
조사원	신예경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진경 • 연세대학교 석사졸업
	장경철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추성세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심의위원	조명래 • 단국대학교 교수
	강인호 • 한남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제1장 서론

20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건축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공공부문(public sector)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핵심요소로서 그 역할에 대한 재조명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은 다수 시민을 위한 생활지원의 기반이며, 커뮤니티 측면의 서비스 기능을 담보하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¹⁾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관료화, 획일화, 개별화의 경향을 띠고 있어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며, 시설별로 건설·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체 도시공간 차원에서 문화적 연계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스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공공건축의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에 국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여전히 관주도의 관료적 행태를 보임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 공공건축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이나 개별건축가의 노력으로 지방 소도시의 도시이미지를 혁신한 무주 공공건축 조성사례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외 우수선

1)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연 6.3조원(200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연구,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p.3

례와 달리, 행정가나 건축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이 주민생활과 밀착된 공간환경으로서 그 가치를 복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재조명

건축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은 공동의 노력으로 1)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구축하며,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과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르면 공공이 소유하고 공민적 삶의 그릇이 되고 있는 공공건축 또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도시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건축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커뮤니티 생활의 발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건축이 책임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역할²⁾을 의미한다. 또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공

2) (사)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p.6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기반 시설로서, 그리고 지역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의 문화시설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이다. 이는 공공건축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그룹을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로 결집시킴과 동시에 모든 계층들의 다양한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활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정의이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생활문화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지역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공공건축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공공건축이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정의를 토대로 공공건축의 역할을 정립하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적 생활을 지원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공동체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의의 무형·유형의 자산으로서 단순한 기능성과 경제성을 넘어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 공공건축의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조성현황과 여건분석을 위해 공공건축이 조성되는 과정과 관련법체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건축 행정운영시스템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실

태를 파악하기 위해 5개 지자체(영주, 제천, 금산, 거창, 울산 중구)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분포현황, 물리적 시설현황,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성과정과 지자체 조성현황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화된 공급체계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건축은 예산지원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가 공공건축 조성을 결정함으로써 시설과정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처의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건설과정에서 건축허가 대신 협의로 행정절차를 대신하는 건축법 특례조항만을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시설을 공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건축 기획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전국마다 획일화된 형태의 문예회관, 체육시설, 공연장이 들어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공공건축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건설 후 운영관리를 고려한 시설계획을 하지 못하고 기능적인 측면만을 고려함에 따라 창조적인 공간계획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런던의 페컴도서관(Peckham Library, London),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the Guggenheim Museum, Bilbao) 등은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과 창조적인 공간계획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공공건축물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은 단순한 공간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기능적 시설공급의 한계를 보임에 따라 다양하고 순회체험을 요구하는 시민의 삶과 점차 괴리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기능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특유의 칸막이식 행정체제로 인한 공공건축의 중복성과 획일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서관, 보건소, 문예회관 등 시설별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기획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시설 간 기능중복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관료적 행태로 인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공간디자인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격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현상공모, 턴키설계, PQ방식 등의 공개공모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철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 건축물의 외형적 디자인 측면만 강조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관리, 건축물의 기본성능 확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및 신에너지 사용 등 기술력이 바탕이 된 실험적인 건축물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과 감사에 대비한 경직된 행정체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진건축가 발굴이 공공건축에서부터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기 예산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과정에서 건축면적이나 시설들이 새롭게 계획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건설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공공건축에 대한 문제는 공공건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입안자, 행정가, 건축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역량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며, 프로그램과 설계, 유지관리, 운영을 연계하는 기획력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행정가의 역량부족을 채워 줄 수 있는 전문가 활용 시스템이 부족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공공건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활용 주체이자 최종 사용자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은 공공건축 운영관리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의지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제4장 국내외 공공건축 조성사례

국내 공공건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참조적 선례에 대해 공공건축 통합화사례, 공공건축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사례, 기능쇠퇴 건축물 및 유휴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각 사례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을 조성하게 된 배경, 추진조직 및 조성과정, 공간계획상 특성,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공공건축 사례대상 및 시사점

첫째, 공공건축을 통한 가치향상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지역재생 전략과 공공건축 건설전략을 도시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황파악을 토대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이 기획되고 있다.

둘째, 공공건축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기획에서 운영·관리까지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건축으로 지역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은 개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사례대상 중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이나 런던 페컴도서관,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MOCA 등은 도시개발전략과 공공건축사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의 재원확보와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제3섹터와 같은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공공건축 조성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공이 주체가 되는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지속성이 담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특히, 순환보직체계의 행정조직은 담당자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본래 사업취지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각 사례에서는 공공건축정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커미셔너, 코디네이터, 프로듀서 등 다양한 직능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전문가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건축가 선정방식,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여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공공건축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선순환구조의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건축의 성공은 우수한 디자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지속적 관리,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우수한 사례는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디자인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에서 설계, 운영, 사용까지 일관된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선순환구조에 의한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기구인 CABE 에서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과 포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의 성과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마모토의 경우, KAP 사무국을 구성하여 KAP 참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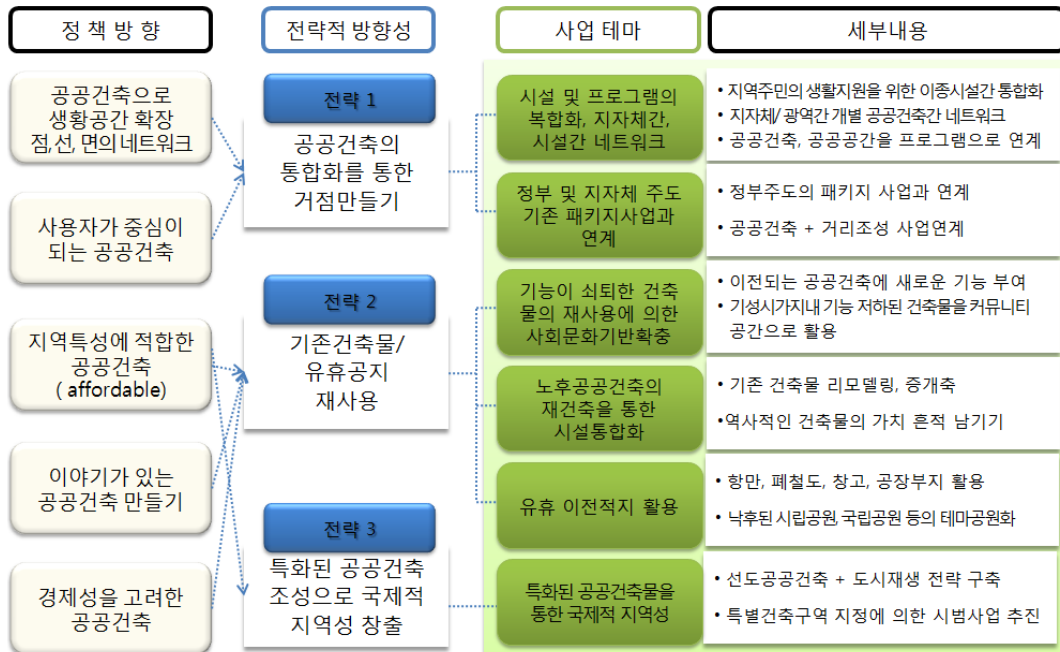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행정건축가의 역할에 의한 지속적 관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사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단과 이를 담당하는 행정가의 의지, 민간전문가의 헌신적인 참여가 삼위일체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산 다락원의 경우 국내의 칸막이식 행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이끌어냈으며,³⁾ 무주의 사례는 군수와 건축가 1인이 지역주민을 위해 창조적인 건축행위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는 공공건축 중심의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식있는 행정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금산다락원 담당자는 국내의 관료적인 행정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면 제2, 제3의 다락원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강조함. 금산다락원 당시 행정 총괄 담당자, 2007.11.13 면담 결과

제5장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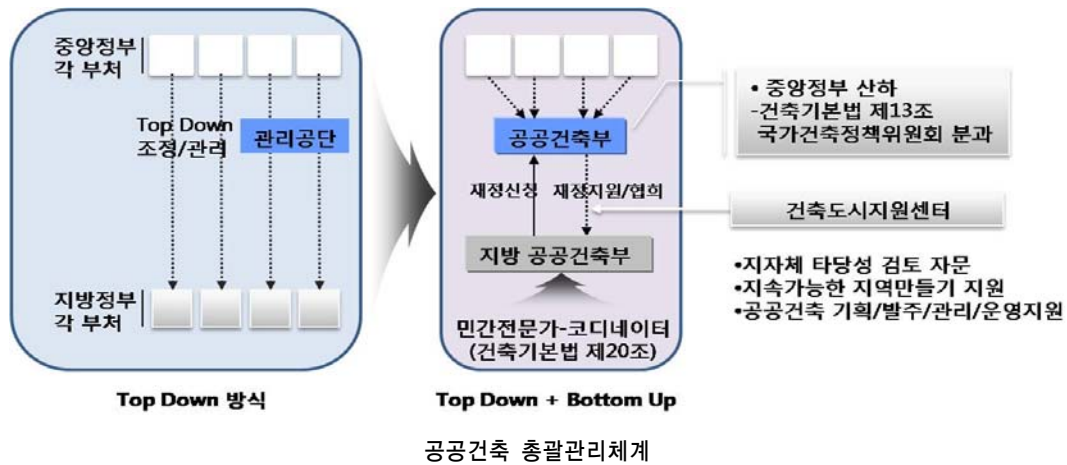
공공건축의 목적은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에서 유형·무형의 자산으로 공공건축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재화로서 공공건축의 가치를 재정립시키는 것이다.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장소를 창출함으로써 생활서비스의 중심이자 교육 및 문화의 집적장소로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것이며, 유형의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은 수준 높은 디자인을 통해 공공건축 자체가 지역의 명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주변의 공공공간과 건축물과의 연계를 통해 좋은 장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의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은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조성과 유형의 자산으로 공공건축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설계과정에 지역주민과 다수 이해관계자(사용자로서의 공무원, 공급자로서 중앙 및 지자체 행정가, 건축가 등)가 관여함으로써 공공건축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공공건축 정책방향 및 세부 실천전략

이러한 공공건축의 실천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에 의한 점진적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선순환구조에 의한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참여의 공공건축 조성시스템 도입과 신기술 도입 및 신진건축가 발굴을 위한 다양한 발주방식 시범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바람직한 공공건축이란 생산주체와 사용주체 모두가 공공성을 창출한다는 목표의식에 대한 합의 형성을 전제로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사람, 시스템,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 또한, 연구추진과정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DB구축의 부재, 관련 행정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료습득의 한계,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과 지침들의 혼재 등으로 공공건축의 실태 파악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문제와 일반해로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마다 공공건축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실천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참여, 행정지원 등 다양한 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각 정책은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정책대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연구수행 및 사회각계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를 위한 성과지표개발 연구와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건축 품질과 품격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건축도시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디자인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계방식 개발과 이를 위한 시범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제어: 공공건축, 발주 프로세스, 디자인 전략

차례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목적	4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6
1) 기존 연구성과	6
2) 연구범위	8
3.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2) 연구방법	11
3) 연구진행과정	12
II.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재조명	14
1.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개념	14
1) 공공성의 개념 및 범주	14
2) 공공건축의 개념	21
3)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 및 역할	25
2. 공공건축의 분류	27
1) 분류기준	27

2) 정부건축과 공용건축의 분류	29
3. 공공건축의 분류에 따른 대상	30

Ⅲ.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 32

1. 공공건축 관련법규 및 시설설치기준	32
1) 공공건축 관련법규	32
2) 공공건축물의 결정 및 시설설치기준	34
2. 공공건축 조성과정	39
1) 중앙정부 주도형	40
2) 지자체 주도형	43
3. 공공건축 담당조직 및 운영체계	45
4.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47
1) 공공건축 정책현황	47
2)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특성	53
5.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현황	55
1) 대상선정	55
2) 조사지역현황	56
3) 실태현황	56
4) 실태결과 종합	79

6. 공공건축 조성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80
1) 공공건축의 문제점	80
2) 공공건축 문제에 대한 원인	87

IV. 국내외 공공건축 조성사례 92

1. 공공건축 통합화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기여 사례	92
1) 금산 다락원	92
2) 런던 페컴도서관(Peckham Library)	96
3)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	102
2. 공공건축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사례	105
1)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 MOCA(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A)	105
2)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the Guggenheim Museum Bilbao)	109
3) 나가사키 Urban Renaissance	112
3. 기능쇠퇴 건축물 및 유허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116
1)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116
2) 발틱 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116
4.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전략 사례	118
1)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118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KAP, Kumamoto Artpolis Project)	120

3) 오카야마 CTO(Creative Town Okayama)	127
5. 시사점	131
1) 기획력을 중시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	131
2) 공공건축 전담기구 운영으로 기획에서 운영·관리의 일관성 확보	131
3) 민간전문가 활용에 의한 디자인 수준 향상	132
4) 성과관리체계에 의한 공공건축의 공공성 유지	133
5) 행정건축가의 역할에 의한 지속적 관리	133

V.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136

1. 정책기본방향	136
1) 공공건축의 핵심과제	136
2) 기본구상 및 정책목표	141
3) 정책방향	142
4) 추진전략	146
2. 세부 추진전략	148
1)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거점만들기	148
2) 기존 건축물 및 유휴공지의 재사용에 의한 공공건축 가치증진	155
3) 특화된 공공건축을 통한 국제적인 지역성 창출	160
3. 공공건축 정책실현을 위한 운영전략	163
1)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에 의한 점진적 확산 도모	163

2)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164
3)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166
4) 사용자 참여의 공공건축 조성 체계 도입	167
5)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신진건축가 발굴	167
VI. 결 론	170
1. 연구 성과 및 한계	170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171
• 참고문헌	174
• Summary	179
• 부록 1 공공건축 전문가 면담	182
• 부록 2 공공건축 관련 일본 공무원 면담	192
• 부록 3 지자체 실태 조사	207

표 차례

〈표 1〉 기존 연구성과 분석	7
〈표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건축의 정의	22
〈표 3〉 법적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분류	27
〈표 4〉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의 분류	28
〈표 5〉 공공건축 분류에 따른 대상시설	30
〈표 6〉 공공건축의 시설별 관리주체 및 근거법령	33
〈표 7〉 공공건축의 시설별 설치기준 및 근거법령	35
〈표 8〉 세부 설치 및 설계기준 설정 방법에 따른 유형 분류	36
〈표 9〉 시설별 설계지침 운영 예시	36
〈표 10〉 공공청사 계획관련 규정 일람 예	37
〈표 11〉 특별법 운영에 의한 특례규정	42
〈표 12〉 정부 부처별 공공사업 수행조직 현황	45
〈표 13〉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건축의 연계	48
〈표 14〉 시설물 예산규모 현황 중 복합적 지원의 규모	49
〈표 15〉 교육시설복합화 시범사업 대상	50
〈표 16〉 논현문화복지회관 사례	50
〈표 17〉 지자체 주도 공공건축 사업 사례	52
〈표 18〉 지자체 주도 공공건축 사업의 유형 분류	53
〈표 19〉 조사지역 기초현황	56
〈표 20〉 금산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59

〈표 21〉 거창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1
〈표 22〉 영주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4
〈표 23〉 제천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6
〈표 24〉 울산시 중구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9
〈표 25〉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면적 비교	71
〈표 26〉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면적 비교	72
〈표 27〉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면적 비교	73
〈표 28〉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면적 비교	74
〈표 29〉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면적 비교	75
〈표 30〉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면적 비교	77
〈표 31〉 입지 타당성 검토 내용	83
〈표 32〉 공공건축 설계변경 원인	84
〈표 33〉 ○○시 공공건축물 시설간 기능 현황 및 연계 가능성	85
〈표 34〉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의 경제파급효과	112
〈표 35〉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참여주체 및 주체별 역할	123
〈표 36〉 각 사례의 공공건축 추진 전담 공공조직	132
〈표 37〉 각 사례의 공공건축 추진 전담 민간조직	133
〈표 38〉 정부 및 지자체주도사업과 연계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153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대상으로서 공공건축 범위	8
〈그림 2〉 연구진행과정	12
〈그림 3〉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사회문화적 공공성	21
〈그림 4〉 사회문화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개념	24
〈그림 5〉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과 역할	26
〈그림 6〉 공공건축의 영역	28
〈그림 7〉 공공건축의 범위	28
〈그림 8〉 공공건축의 진행 프로세스별 관계법령 도식화	39
〈그림 9〉 중앙정부 주도형 공공건축 조성과정	41
〈그림 10〉 지자체 주도형 공공건축 조성과정	44
〈그림 11〉 지자체 공공건축 전담부서 운영 유형	46
〈그림 12〉 금호초등학교	50
〈그림 13〉 목동 양천문화복지회관 사례	51
〈그림 14〉 행정복합도시 복합화 프로그램	51
〈그림 15〉 5개 지자체 인구, 면적, 인구밀도, 공공건축물 현황	57
〈그림 16〉 5개 지자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현황	58
〈그림 17〉 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시기별 증개축 현황	58
〈그림 18〉 금산군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58
〈그림 19〉 금산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58
〈그림 20〉 금산군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59

〈그림 21〉 금산군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0
〈그림 22〉 금산군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0
〈그림 23〉 거창군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61
〈그림 24〉 거창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1
〈그림 25〉 거창군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2
〈그림 26〉 거창군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2
〈그림 27〉 거창군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3
〈그림 28〉 영주시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64
〈그림 29〉 영주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4
〈그림 30〉 영주시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4
〈그림 31〉 영주시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5
〈그림 32〉 영주시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5
〈그림 33〉 제천시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66
〈그림 34〉 제천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6
〈그림 35〉 제천시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7
〈그림 36〉 제천시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8
〈그림 37〉 제천시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68
〈그림 38〉 울산시 중구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69
〈그림 39〉 울산시 중구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69
〈그림 40〉 울산시 중구내 지역별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70

〈그림 41〉 울산시 중구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70
〈그림 42〉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평균 면적 비교	71
〈그림 43〉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1
〈그림 44〉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평균 면적 비교	72
〈그림 45〉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2
〈그림 46〉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평균 면적 비교	73
〈그림 47〉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3
〈그림 48〉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평균 면적 비교	75
〈그림 49〉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5
〈그림 50〉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평균 면적 비교	76
〈그림 51〉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6
〈그림 52〉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평균 면적 비교	77
〈그림 53〉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77
〈그림 54〉 5개 지자체간 시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78
〈그림 55〉 5개 지자체간 시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78
〈그림 56〉 5개 지자체간 교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78
〈그림 57〉 문화·전시·복지시설수 변화	82
〈그림 58〉 지역수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Y시 체육관	82
〈그림 59〉 보행자의 접근성이 낮은 공공도서관	86
〈그림 60〉 관료적인 공공체육관 건축형태	86

〈그림 61〉 금산군 다락원 전경	94
〈그림 62〉 다락원 배치도	94
〈그림 63〉 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클러스터 계획	95
〈그림 64〉 다락원 내부 모습(기능간의 연계를 위해 설치된 보행교)	95
〈그림 65〉 폐컴도서관 전경	99
〈그림 66〉 폐컴광장에서의 접근성	99
〈그림 67〉 폐컴도서관 내부	99
〈그림 68〉 센다이 미디어테크 외부	104
〈그림 69〉 센다이 미디어테크 1층 로비	104
〈그림 70〉 센다이 미디어테크 library	104
〈그림 71〉 센다이 미디어테크 multimedia library	104
〈그림 72〉 빌바오 구겐하임 서측전경	111
〈그림 73〉 빌바오 구겐하임 동측전경	111
〈그림 74〉 나가사키현 어번디자인(urban design) 조직구성 및 운영	114
〈그림 75〉 나가사키현 현립미술관	115
〈그림 76〉 함부르크 반호프미술관	116
〈그림 77〉 발틱현대미술센터	117
〈그림 78〉 발틱현대미술센터와 연계된 밀레니엄 브리지	117
〈그림 79〉 증축으로 천문대를 설치한 무주 부남 면사무소	119
〈그림 80〉 주차장을 공용마당으로 조성한 무주군청사	119

〈그림 81〉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조직	122
〈그림 8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과정	124
〈그림 83〉 세이와 분라쿠관(전통인형극장), 향토요리관/이시이 가즈히로	125
〈그림 84〉 현영 호타쿠보 다이이치 단지/야마모토 리켄	125
〈그림 85〉 전통건축코스 가공조립실	125
〈그림 86〉 구마모토 어업단속반 사무소	125
〈그림 87〉 다마나 전망관	125
〈그림 88〉 구마모토 기타 경찰서	126
〈그림 89〉 Ayunose 다리	126
〈그림 90〉 CTO 사업추진절차	129
〈그림 91〉 키비코우겐 초등학교	130
〈그림 92〉 오카야마 북경찰서	130
〈그림 93〉 오카야마현 평생학습센터	130
〈그림 94〉 아쿠아, 스포츠 살롱 미마사카	130
〈그림 95〉 공공건축의 문화적 생산체계	138
〈그림 96〉 공공건축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142
〈그림 97〉 공공건축 정책방향	143
〈그림 98〉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한 점, 선, 면의 네트워크화	144
〈그림 99〉 공공건축물의 점, 선, 면의 확장(바르셀로나, 스페인)	144
〈그림 100〉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전략	147

〈그림 101〉 수직복합방식	149
〈그림 102〉 수평복합방식	149
〈그림 103〉 학교 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형성 사례	149
〈그림 104〉 동사무소(오른쪽)+주민자치센터(왼쪽)	149
〈그림 105〉 복합화된 공공건축의 커뮤니티단위 또는 광역단위 네트워크	150
〈그림 106〉 공공건축, 공공공간의 연계를 위한 소규모 어메니티 시설 만들기	152
〈그림 107〉 무주 공공건축의 점, 선, 면의 네트워크	152
〈그림 108〉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동력으로서 공공건축	153
〈그림 109〉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	154
〈그림 110〉 베르겐의 향토박물관 예술의 거리	154
〈그림 111〉 공공건축 통합화 효과	154
〈그림 112〉 기존건축물 및 유휴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	155
〈그림 113〉 도서관을 미술관으로 개조 사용(구마모토)	156
〈그림 114〉 개조된 미술관 내부	156
〈그림 115〉 낙후상가지역을 개조, 패션 인큐베이터로 활용(아오모리 아우가)	157
〈그림 116〉 노후상가의 일부를 개조하여 청소년 쉼터로 조성(광주 충장로)	157
〈그림 117〉 Strafford-upon-Aven 농촌생활체험관(셰익스피어 마을)	158
〈그림 118〉 폐가를 활용한 토고미 자연학교(강원도 화천)	158
〈그림 119〉 증축으로 천문대를 설치한 무주 부남 면사무소	159
〈그림 120〉 주차장을 공용마당으로 조성한 무주군청사	159

〈그림 121〉 기존 영단주택을 재건축하여 상업건축물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일부에 기존건물 디자인을 재현(오모테산도힐즈, 도쿄)	159
〈그림 122〉 쇠락하는 항구지역을 재정비하여 현대미술관을 조성(나가사키, 일본)	160
〈그림 123〉 발전소를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조성한 런던 Tate Modern Gallery	160
〈그림 124〉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162
〈그림 125〉 구마모토 세이와 분라쿠 전통인형극장	162
〈그림 126〉 로드맵 작성에 의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전략 수립	164
〈그림 127〉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166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3. 연구내용 및 방법

(a u 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은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건축에 대한 가치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건축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은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을 당면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공공부문(public sector)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공공 건축은 공공성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핵심요소로서 그 역할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론화되고 있다.

한편,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직면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도시경쟁력이 건축도시정책의 주요 목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경쟁력은 경제, 사회, 문화적 자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사회문화적 자산의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경관형성과 지역별 특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건축도시공간의 품격향상은 도시경쟁력의 물적 토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¹⁾ 이에, 참여정부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건축문화선진화운동’, ‘문화

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수준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지역주민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고, 사업을 통한 공공성 회복이 목적이며, 여기서 공공건축은 다수 시민을 위한 생활지원 및 커뮤니티 측면의 서비스 기능을 담보하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²⁾

공공건축은 공공영역인 행정,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등의 기능을 담는 것(조명래, 2007)으로, 이들 기능은 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공공건축은 관주도의 기념비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관료화와 획일화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시설별로 건설·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체 도시공간차원의 문화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위 건축물로 조성됨으로써 사회적 기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하는 커뮤니티 스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행정복합도시나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같이 일부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한 공급자 중심의 디자인과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정체성을 갖지 못하며, 개별 건축물 단위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이용계층의 사회, 문화, 경제 여건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한 공간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건축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거나 특정 장소 및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주민의 공공적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공공건축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요자 입장에서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결합된 공공건축을 조성함으로써 커뮤니티 생활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행정적 노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장소적 가치를 갖는 공

1) 국내 건축도시문화에 대한 수준진단 결과, 도시경관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이하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 한국 고유의 정체성 부족과 건축물의 품격 저하를 들고 있음, 대한주택공사 외, 200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실천전략 수립연구,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p.30

2)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은 연 6.3조원(2007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지원분 포함)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연구,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pp.15~25

공건축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공공건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부터 추진된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의 한국 건축도시환경 진단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논의에서 공공건축의 권위주의적 조성행태에 따른 공공성 약화, 칸막이식 행정체계에 의한 시설 간 연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공건축의 기능과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7년 6월 창립)에서는 2007년 9월 공공건축포럼을 통해 공공건축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건축의 문제점과 한계, 공공청사, 문화예술회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시민의 삶속에 깊게 파고들지 못하는 공공건축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공공건축이 갖추어야 할 공공성 부재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건축문화운동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국가이미지 향상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도시공간의 골격으로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

최근 우리나라도 공공건축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박물관, 대규모 체육경기장 등의 국제현상공모전이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설계공모에 의한 공공청사 건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설계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공공건축의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향상에만 국한되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여전히 관주도의 관료적 행태를 보임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 공공건축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이나 개별건축가의 노력으로 지방 소도시의 도시이미지를 혁신한 무

3) 영국은 1998년부터 ‘건설산업 재인식 운동’을 전개를 시작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평가지표체계를 도입하였고, 그 일환의 하나로 CABE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의 가치향상을 위한 우수 공공건축물 사례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오카야마 CTO사업, 나가사키 Urban Renaissance 등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건축도시공간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선례이다.

주 공공건축 조성사례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외 우수선례와 달리, 행정가나 건축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이 주민생활과 밀착된 공간환경으로서 그 가치를 복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과 실천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의 가치증진을 위한 개념 및 역할 정립

- 공공성에 근거한 공공건축의 개념과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역할 재정립

② 국내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공공건축의 개념 및 역할 재정립에 따른 공공건축의 조성실태 및 한계, 조성과정의 문제구조 파악

③ 공공건축의 가치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인벤토리 제시

- 공공건축이 건축도시문화의 장소적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추진전략 도출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전략은 구체적인 도시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공건축의 현황과 과제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략의 인벤토리를 구축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1) 기존 연구성과

공공건축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공공건축의 개념 및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공공건축의 기획/관리 전반에 대한 논의를 다룬 연구, 공공건축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와 공공건축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건축의 개념과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바탕으로 현대 공공건축에 대한 역할을 논하고 있고, 이를 통한 공공부문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들의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공건축의 사회문화적 담론을 형성하는 토대로 본 연구의 기본적 이념을 구성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의 기획과 관리를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으나 그동안 정부주도의 중앙 집중적인 공공건축 공급방식에 대한 문제는 일부 제시되었다. 그중 '건축 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조사'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규모, 관리부서 등에 대한 현황진단 내용에 공공건축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건축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공공건축 총괄조정체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주로 현황과약을 위한 자료수집의 한계 등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중앙정부주도의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분석 중심으로 결과가 도출되었고, 정책대안 또한 공공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개괄적인 현황과약은 본 연구의 사업주체별, 공공건축 기능별 현황과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건축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는 주로 건축물의 공간프로그램이나 표준화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공건축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중 복합커뮤니티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나 금산 다락원의 건축계획 및 공간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최근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참조선례로 공공건축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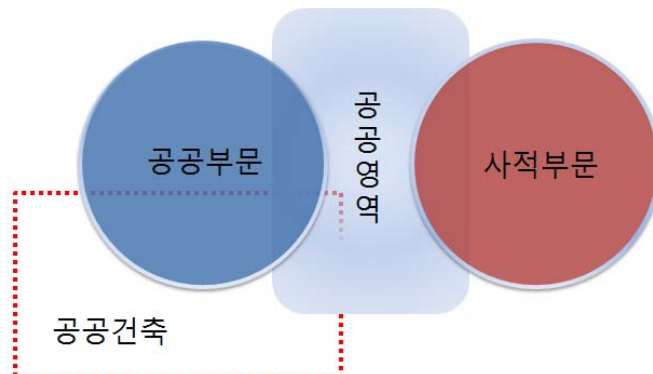
〈표 1〉 기존 연구성과 분석

분류	논제	저자	주요 내용
공공건축의 개념 및 역할에 관한 연구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성 및 공공영역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강욱,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학 측면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들 - 공공성의 의미의 역사적 고찰 - 현대건축의 공공영역의 경계에 대한 개념 - 공공부문의 건축가, 도시계획가의 역할
	현대건축의 공공영역에 나타나는 경계변이의 양상과 방향에 관한 연구	조영국 외,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06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비판과 공공부문에서 건축가, 도시계획가의 역할	이상헌, 문화과학25, 2001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	이은비, 서울대 석사, 1998	
공공건축의 기획/관리 전반에 관한 연구	공공문화회관 건립 및 시설의 문제점과 제안	박영정 외,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7	
	건축규제 통합관리방안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2005	
공공건축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건설교통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의 효율적 공간계획을 위한 계획기준설정과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건축물의 설계표준화 지침서 개발 연구	김수암 외, 건설교통부, 1997	
	커뮤니티 시설의 배분모형 및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박영기, 대한건축학회, 1994	
	면적구성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보건소 표준시설 기준의 도시 보건소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3	
공공건축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도시시설학회, 대한주택공사,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and 효율적 계획에 관한 연구
	공용청사 프로그램 복합화에 따른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서정숙 외, 대한건축학회, 2007	
	금산 다락원의 행정적 건립배경과 건축계획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신혜정, 청주대학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 전략	온영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2) 연구범위

공공건축은 공공성에 의한 공공영역의 개념이 관철되는 장으로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건축물 중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으로써 기능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은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건축물로 사회적 기능이 분명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며, 민간부분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건축물일지라도 구겐하임미술관과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개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건축은 공개성이 약하며,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공공건축은 사회기반시설로써 목적성이 명확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 등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확산됨에 따라 그 근간이 되는 지역 공공건축물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공공건축이 생활거점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향에 대한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착된 공간으로써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공공건축에 한정하여 공공건축의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대상으로서 공공건축 범위

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공공건축이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생활에 밀착된 장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인벤토리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총 6장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인 2장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공건축의 개념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건축기본법상 공공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에서 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건축 조성체계 및 정책동향,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밝혀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 관련 법체계분석과 지자체 공공건축 담당자들과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5개 지자체(제천, 영주, 금산, 거창, 울산 중구청)에 대한 공공건축 현황과 조성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국내외 공공건축의 참조적 선례에 대해 추진배경, 추진전략, 사업추진조직, 계획특성 및 운영프로그램, 관련제도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각 참조선례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자, 설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외 사례조사는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답사를 통해 행정담당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5장에서는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 실천전략에 대한 인벤토리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 정책의 실현을 위한 운영전략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의 개념설정 및 사회문화적 측면의 역할 정립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공건축 재조명
 - 공공건축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과 사회적 의미파악
 - 공공성의 개념 및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개념 정의
- 사회적 담론으로써 공공건축의 유형분류 및 역할정립
 - 공공건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변화에 따른 유형분류 및 역할정립

(2) 국내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및 현황 파악

- 주체별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및 추진전략 분석
 -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 추진실태 분석
 -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써 개별 공공건축의 조성실태 파악
- 국내 공공건축의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건축조성사업 및 공공건축 현황/운영실태 조사
 - 지자체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건축의 운영실태 조사
- 국내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구조 파악 및 원인 진단
 - 참여주체의 역할, 거버넌스 등 이해관계자 측면의 한계 및 문제점
 - 관련 정책 및 전략 측면의 한계 및 문제점
 - 공공건축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 내용적 측면의 한계 및 문제점

(3)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 국내 공공건축에 의한 장소성 창출 사례조사
 - 금산 다락원, 무주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 지자체 주도의 공공건축 조성사례 조사
 -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참여주체의 역할 및 정책적 지원, 건축가 참여방안 등 조사
- 국외 공공건축에 의한 장소성 창출 사례조사
 - 국외 공공건축 관련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조사
 - 사회문화적 기반시설로써 대규모 공공건축 조성 사례 :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 근린단위에서 주민 커뮤니티 지원형 공공건축 조성사례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오카야마 CTO 프로젝트

(4) 공공건축의 가치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 실천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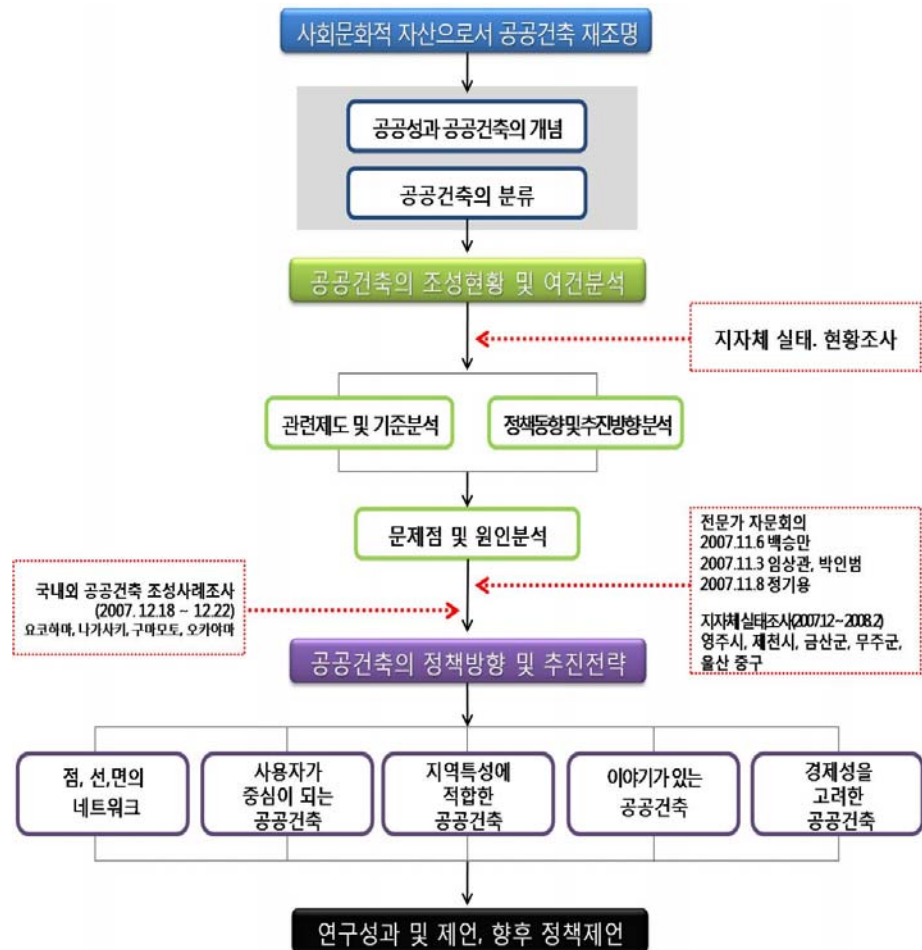
-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및 전략
 - 참여주체 및 관리주체별 역할과 지자체와의 관계 정립
 - 거버넌스 체계구축 및 사업화 방안
- 지자체 차원의 정책방향 및 전략 수립
 -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한 지역의 장소 창출 전략
 - 공공건축의 지속성 및 경제성을 위한 운영전략
- 공공건축의 가치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전략 및 운영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관련 기초 자료, 연구자료의 수집, 분석 및 최종성과 검증
 - 공공건축의 개념 및 담론 형성에 관한 국내외 이론 및 연구성과 분석
 - 인터넷, 문헌,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등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축의 가치제고를 목표로 한 지역성 창출의 국내외 사례발굴
- 전문가 의견조사
 -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 판단을 위한 사회학자 및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조사
 - 공공건축 조성을 추진하는 중앙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 행정전문가 면담
- 현황검토 및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운영
 - 공공건축과 관련된 학계, 공무원, 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공공건축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
- 현장방문조사 : 지자체 주도의 국내외 공공건축 추진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금산 다락원, 무주 공공건축물 조성사례에 대한 현지답사
 -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오카야마 CTO 등 선진사례조사 및 행정담당주체 면담

- 지자체 주도 공공건축 조성실태 및 사용실태, 프로그램 운영현황 조사
 - 최근, 5년간 건설된 지자체 주도의 공공건축 조성 프로그램 및 운영 실태 조사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지원대상 지자체 중 인구 10만 내외의 지자체 사례조사
 - 조사대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중 유형별로 5개 선정하여 조성과정 및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담당자 심층면접조사
 -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심층조사 : 영주, 제천, 무주, 울산 중구청에 대한 심층조사

3) 연구진행과정



〈그림 2〉 연구진행과정

II.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재조명

1.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개념
2. 공공건축의 분류
3. 공공건축의 분류에 따른 대상

(auri

사회문화적 자산 으로서 공공건축 재조명

1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개념

1) 공공성의 개념 및 범주

(1) 건축기본법에 나타난 공공성

건축기본법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서는 건축의 공공성 가치를 기본이념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이 모두 공공적 가치의 구현과 공공성의 실현에 두고 있다는 것은 건축의 사회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건축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장에서는 인문·사회과학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정치·경제적 공공성에서 사회·문화적 공공성으로 전환

① 정치·경제적 의미의 공공성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공공성의 의미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적, 공익, 공정의 세 가지 의미로 제기한 신광영의 논의에 따르면 공공성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인 속성으로서 공적 공공성이 있으며, 특정한 집단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공익의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 혹은 형평성 등으로 파악되는 공정으로써 공공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을 해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공성에 따르면 많은 이들에게 평등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익 창출과 이익 분배문제를 유념해 보아야 한다. 이익 분배문제는 정치경제적 관점에 비추어 공공성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익 분배 및 창출은 양적 발전에 치중하게 되며 이것은 양적이고 획일적인 공공성을 낳을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공건축 사업이 이러한 이익분배 측면에서 수행됨으로써 지자체별 예산의 균등 배분과 이로 인한 획일적 사업성과를 낳는 배경이 되고 있다.

② 사회·문화적 공공성

21세기에 들어서 '문화'에 대한 강조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정치·경제의 논리로만 움직이고 문화가 전적으로 부재한 사회는 아니다. 이러한 문화는 경제적 성장과정의 부차적인 부산물로서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새로운 양상의 사회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식 정보 산업과 문화산업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주축이 될 지식사회, 본격화된 지방자치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 고도성장을 통한 여가시간의 활용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뜻한다.

문화는 우리에게 삶의 질을 고양시켜 준다. 즉 삶의 총체적인 상황의 통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란 경제적·정치적 부산물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당연히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와 공공성은 어떤 연관관계를 갖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문화는 공공영역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더욱이 소비와 여가를 포함한 문화생활이란 넓은 의미에서 일상생활 영역으로, 즉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공공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심광현은 공공성의 주요 가치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공통성(사회적 평등성)'에서 '공론성(공론적 자율성)'으로 중심이 옮겨진다고 설명하며, 공론적 공공성이란 '정보의 공개와 자유로운

접근,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그리고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한 지식/담론 생산과 소통의 장'이라 설명한다. 이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석해 온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나아가 공공성의 문화적 관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론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공공성은 일상생활의 문화화로 확장할 수 있으며, 여기서 문화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능동적 행위양식의 문제로 사고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공익적이며 긍정적인 정치·경제적 공공성의 개념에 문화적 공공성을 포함시킨 사회·문화적 공공성은 현대 문화사회에 적합한 공공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공공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공공영역에서 문화적 공공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폐쇄적이고 경직된 공공영역들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영역들로 변환시키고 소통시켜 일상생활의 영역을 문화화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문화적 공공성은 일상생활 영역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며, 사회·정치·복지·행정·공간환경 등 사회 제반의 영역들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하여 문화적 영역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즉 사회문화적 공공성이란, 양적이고 획일적인 공공성에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성, 지역의 특수성을 함의할 수 있는 다원적 공공성, 다양한 의견과 복합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다층적 공공성 등을 일컫는다.

(3) 사회·문화적 공공성과 건축기본법에 나타난 공공성의 관계

건축기본법에 따르면 건축의 기본이념으로서의 공공성은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건강·복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된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수용하고 환경영향 최소화과 자원의 재이용·재생의 촉진으로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공공성 확보',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문화·산업적 경쟁력 제고와 전문가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공공성 구현'을 주요 내용⁴⁾으로 한다.

이 세 가지 공공성을 앞에서 논의한 사회·문화적 공공성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보면 첫째, 생활공간적 공공성은 건전한 일상생활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건전한 일상생활이란 국민의 안전·건강·복지가 고려된 생활이며 이는 넓은 의미의 문화, 즉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능동적 행위'의 사회·문화적 공공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4) 김상호, 2007, 건축기본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 특집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지각변동, 건축과 사회, pp.27-28

공공성은 건축의 사회적 자산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수용하는 역할로서의 공공성이다. 기존의 공공영역이 주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공공영역들은 변환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셋째, 건축과 관련된 전반적 행위에서 문화적·역사적 가치화를 추구하며,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공공성은 사회·문화적 공공성 정의 그 자체와 맥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문화적 공공성 개념의 특징은 건축기본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의 개념을 포괄한다.⁵⁾

(4)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범위 : 일상생활 영역내의 공공부문과 공공영역

① 공공성의 범위 : 공공부문과 공공영역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범위는 공공건축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근거이므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아야 한다.

우리 일상생활이 점유하는 영역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나누어 본다면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영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이 두 부문에 공통적으로 걸쳐 존재하는 공공영역이다.

앞에서 논의된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범위는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민간부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부문'이라고 정의해 왔다. 이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 그 틈새에서 새로운 매개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공공영역이 제시된다. 이는 하버마스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공공영역은 의사소통행위에 의해 산출된 사회적 공간이라고 정의'(하버마스, 1966)할 수 있다. 공공영역은 '사회구성원 간의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의사소통 관계에 기반한다면, 공공부문은 사회구성원 생활의 질과 관계된 공적인 속성'⁶⁾을 가진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은 국가 정책과 관련한 제도로서의 공공부문과 시장원리에 우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정,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말한다. 또한 시장과 대칭 개념인 공공부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에 반해, 공공영역은 사회적인 행위와 담론적 공론형성의 차원으로 주민

5) 그러나 본 과제에서 다루는 사회·문화적 공공성 개념은 공공건축의 공공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건축 기본법의 공공성 개념이 다루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를 포함하는 범위와는 다르다.

6) 정은희, 앞의 책, p.253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문화적 정치적 활동 보장, 국가권력의 사회를 견제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또한 생활기반에 대한 공공성 보장을 기초로 자율적 삶의 이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일치하는 이러한 공공영역의 개념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공성 개념이 작동되는 구체적인 영역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관계는 서로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이다.

②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상호의존적 관계와 역할

일상생활 영역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공영역으로 고정 분리하려는 시각은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공공성이 가지는 참여적 공공성의 특성을 간과하게 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공영역이 유동적으로 겹친다는 것⁷⁾에 강조점을 두어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관계는 공공부문의 공공영역으로의 확장으로 볼 수 있고,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정치·경제적 측면 위주로 집중되어 왔던 그동안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상호의존적 의미란 공공부문이 사회·문화적 특성과 결부되고 사회적 토론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이 공공부문으로 보장됨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⁸⁾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이 공공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영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공공영역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소극적, 폐쇄적, 획일적인 공공성에서 벗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활성화시키고 자극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공공영역의 의도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해 스스로 열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만들어내어야 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특징과 역할 : 다층적·복합적 공공성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범위인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는 서로간의 영역과 부문들이 서로 유동적이고 중첩되어 있어서 매우 다양하며

7)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에 대한 정의는 공공영역을 하나의 새롭게 형성된 영역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각이지만 의사소통에 대한 강조로 그 공공영역의 경계의 역동성과 유동성에 대한 공공영역의 중요한 역할을 놓치고 있다.

8) 학교교육은 정부에서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이지만 청소년·교사 직원이 관계 맺고 의사소통하는 일상공간이기도 하거나 언론처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와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교류되는 영역이다. 정은희, 앞의 책, p.254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러므로 공공부문과 공공영역의 역할과 경계 그리고 각 주체들의 노력에 따라 관계가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관계성 속에서 참여적 공공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며, 또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공공성 확보와 보장에 대한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문화적 공공성이 실천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양적이고 획일적인 공공성에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공성, 지역의 특수성을 함의할 수 있는 다원적 공공성, 다양한 의견과 복합적인 상황을 포괄하는 다층적 공공성’으로 정의했듯이, 이러한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특징은 다층적·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층적·복합적이란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의 역할이 어느 한 주체에 의해서만 주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주체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나 일상성 회복을 통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인정은 지역성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공동체적 공공성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의 영역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어야 한다. 즉, 주체들의 역할이 중첩되기도 하고 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층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단일한 영역보다는 복수적 또는 다층적인 영역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인 관계의 열린 공공성이다.

그동안 공공영역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는 공공영역의 개념을 만든 하버마스의 ‘공론적 공공영역’⁹⁾, 공공영역의 다양한 공존 가능성을 논한 롤스의 ‘중첩적 공공영역’¹⁰⁾, 공공영역/공공성의 다수성의 논의와 경계의 역동성을 강조한 고길섭의 ‘중층적 공공영역’¹¹⁾ 등이 있다. 다층적·복합적 공공성

9)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하버마스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적영역과 이분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공공영역과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하버마스의 ‘공론적 공공영역’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며, 하버마스에 대해 고길섭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음. “의사소통적 담론의 정치는 공공영역에서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지만,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이 민주적 주권이라는 구체적인 제도 속에서 구현될 수 없고 토의와 참여를 증진시키는 민주적 절차 속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표명할 뿐이다. 예컨대 빈민의 주택문제는 의사소통으로서의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그런 류의 의사소통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고길섭, 2000,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호, 문화과학사, p.3

10) 중성적 사회적 공간으로 다수성의 논리에 따라 지배되는 롤스의 중첩적 공공영역, 존 롤스의 중첩적 합의의 개념은 그의 정의론에서 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가치체계들 사이에 그 공동체를 유지해 주는 수준에서 가능한 합의의 조건을 중첩적 합의라 정의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을 공공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중첩적 공공영역이 중성적 사회적 공간으로 다수성의 논리에 따라 지배되는’ 헌법적 수준의 것이 아닌 정치적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1) 고길섭의 공공영역/공공성에 대한 중층적 분류는 1. 장소성 공공영역 : 장소-공공성 장소의 공간적 정의 2. 제도성 공공영역 : 제도-공공성 제도의 공식적 정의 3. 집단성 공공영역 : 집단-공공성 집단의 참여적 정의 4. 담론성 공공영역 : 담론-공공성 담론행위의 소통적 정의 5. 표현성 공공영역 : 표현-공공성 예술표현의 문화적 의미 6. 시장성 공공영역 : 시장-공공성 시장의 교환적 정의 7. 생활성 공공영역 : 생활-공공성 공공서비스의 공급적 정의

이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고길섭의 중층적 공공영역의 개념에서 좀 더 확장 발전¹²⁾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공공성의 특징을 다층적·복합적이라고 한다면, 다층적·복합적 공공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층적·복합적 공공성은 각각의 층위가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가 어떻게 접속되느냐에 따라 다른 가능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의미의 열린 공공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공공 디자인 그리고 경관, 도시 등이 만나는 다양한 경계에서 어떻게 접속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이러한 열린 공공성의 역할은 확장 가능하다. 이러한 열린 공공성의 역할은 또한 다양한 주체들의 간의 합의, 혹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행정적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즉, 단순한 관·민 간 주도형의 주어진 공공성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또한 건축기본법의 사회적 공공성의 개념에 포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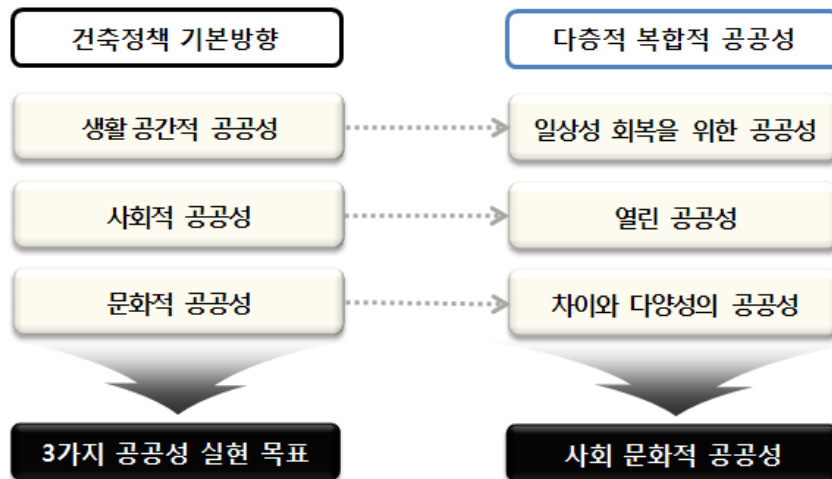
둘째, 보편화, 평균화, 획일화된 공공성은 지역에 따른 특수한 현황에 대한 공공성에 대처하지 못하지만 다층적·복합적 공공성은 현 지역의 일상생활 영역의 상황에 적합한 실천성을 담보한 공공성의 특성과 사용자 위주의 개별적인 상황, 즉 장애우, 노약자 등을 고려한 공공성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성과 구체성을 가진 공공성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적인 의미의 공공성을 갖게 됨으로써 일상성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는 생활적 공공성이라는 건축기본법에서 명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기존의 공공성이 모든 개인성을 배제하는 동일성과 보편성만을 추구

8. 생태성 공공영역 : 생태-공공성 환경의 생태적 정의임. 예를 들면 공공영역 대학은 장소성 공공영역(특정장소)-제도성 공공영역(교육제도/건축제도) 집단성 공공영역(교수/학생/교직원) 담론성 공공영역(지식생산) 표현성 공공영역(저항예술활동) 생태성 공공영역(교육환경) 등으로 중첩되고 인접된다. 이러한 중첩상과 인접성은 불균등하고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끊임없이 생성된다. 고길섭, 앞의 책, p.40

12) 중층적 공공영역이란 질 들뢰즈의 이론에 기반하는 개념으로, 공공영역, 사적영역으로 구분되는 영역이 상호 경계와 관계에 의해 중층적으로 서로 얽힘에 따라 가변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일한 공공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층적인 복수의 공공영역들로 서로 겹쳐지고 연결됨으로써 중첩성과 인접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공공영역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다층적이란 다양한 관점과 이에 따르는 다양한 참여가 가능함을 뜻한다. 하지만, 고길섭의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중층적 공공성은 먼저 공공영역 안에 하나의 층위로 공공부문을 고정적으로 위치시키고 국가나 정부의 위치를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정적 대전제로 본다. 이 같은 국가 및 정부의 위치 규정은 공공부문의 주체적 역할과 위치를 심하게 축소함과 동시에 공공영역의 역할을 과장적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이 공공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공공영역을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공공영역과 공공부문의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놓치고 있다.

하는 공동체였다면 다층적·복합적 공공성은 여가, 문화, 정치, 경제, 복지 등에 걸쳐 삶의 생활양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이와 다양한 공동체적 공공성¹³⁾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또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다양한 지역문화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건축기본법의 문화적 공공성과 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사회문화적 공공성

2) 공공건축의 개념

(1) 기존 공공건축의 개념

현재의 공공건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건축과 공간환경으로서 현재 관련법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공공이 조성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정도이다. 즉, 기능과 용도의 시설별 기준에 근거한 분산적, 파편적인 정의뿐이며,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의 법적인 공공건축의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이 소유하고, 공공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공공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외에도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 나누어 정의한 예가 있다.(김성홍, 2004)

13)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서 활동적인 삶이란 공공영역을 동일성/보편성에서가 아니라 차이/다양성에 기초하는 공공성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 고길썬, 앞 책, pp.47~48

〈표 2〉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건축의 정의

법조항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² 이상인 건물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² 미만인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 (정의) "기반시설"의 종류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김성홍, 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복합도시추진단, p.3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은 다른 선도국가들에서도 국가 건축정책의 근간으로 나타나는데 공공건축에 대한 정의를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건축정책¹⁴⁾에서는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 즉 건축은 본질적으로 공공적 작업',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형태'라는 표현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건축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공공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건축을 표명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모든 시민에게 향유되어야 하는 건물이므로 최고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핀란드는 공유와 개방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건축의 기능과 효율성을 넘어선 최상의 공동체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에 대한 각국의 정의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새로운 공공건축

14) 세계 최초 정부주도 건축정책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도에 발표된 제3차 개정 건축정책의 내용

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도가 있는데, 공공건축의 공급자적인 주체와 범위, 일상생활과의 밀접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공공건축의 정의(문화관광부, 2008)와 공공성의 개념을 토대로 참여적, 소통적인 사회적 공공성과 공동체적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건축의 정의(조명래, 2007)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공공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건축의 기능, 역할을 새롭게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적합한 실천전략을 도출하는 데는 미흡하다.

공공건축의 정의

“공공건축은 공공에서 발주하여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공공적 성격의 건축이다. 공공 건축은 공공적 기념성과 상징성을 가지며 도시의 공공적 환경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집합적 환경의 수준과 질을 결정한다. 한 나라의 건축문화의 수준은 공공건축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⁵⁾

“공공건축은 도시란 공간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집합적 삶의 차원(공공행정,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도시건축의 공공성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개별화된 도시적 삶을 소통적 공동체적 민주적인 것으로 이끄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이다.”¹⁶⁾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정책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공공(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시설 및 공간 환경으로 공공건축의 범위를 한정한다.

(2) 사회·문화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개념

① 생활적 공공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이란 커뮤니티 생활의 발전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건축이 책임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역할¹⁷⁾을 의미한다. 이는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건축의 개념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15)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main.jsp>

16) 조명래, 2007

17)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앞의 책, p.6

을 지원하는 생활기반 시설로서 그리고 지역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요소의 질 개선을 통한 지역의 문화시설로 작용하는 것이다.

② 공공건축의 사회적 공공성의 기능 강화

공공영역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소통을 위한 장소로 모든 계층이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로 결집시킴과 동시에 모든 계층들의 다양한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생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건축의 개별화, 관료화, 획일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다수의 이해 관계자를 통합하는 행정체계의 전환을 통해 소통적, 열린 공공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공성이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유연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담아내고 그들의 참여로 생활공간을 선도하는 참여 민주주의적 공공건축은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③ 문화적 공공성으로서 지역주민의 공적 삶의 가치 증진

지역성이란 주민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환경에 대한 합의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영역성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서 공공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이란 개념은 안전하고 건강한 주민들의 삶을 위해 지역생활문화에 적합한 장소를 만들어 지역생활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공공건축의 연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공공건축의 통합 관리와 개선은 지역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심어줘 주민의 공적인 삶에 가치증진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사회문화적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개념

3) 사회 · 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 및 역할

(1)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도구로서의 공공건축

일상생활이란 주민들의 여가, 교육, 쇼핑, 휴식, 보육, 의료행위, 문화활동 같은 다양한 활동을 뜻하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로서의 공공건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건축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인식해야 하며, 양적공급의 차원에서 벗어나 질적, 수요자적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은 생활서비스의 중심이자 교육 및 문화의 집적장소인 지역생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열린 공공성을 통한 주민 참여적 공공건축

열린 공공성이란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공적인 기능의 공공건축을 의미한다. 즉, 공공건축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에게 활동의 다양성과 행위의 자율성을 공식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는 공론적 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소관부처, 담당부서별 칸막이식 행정에 의해 조성/관리되는 개별 공공건축에서 지역주민과 다수 이해관계자(사용자로서의 공무원, 공급자로서 중앙 및 지자체 행정가, 건축가 등)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공공건축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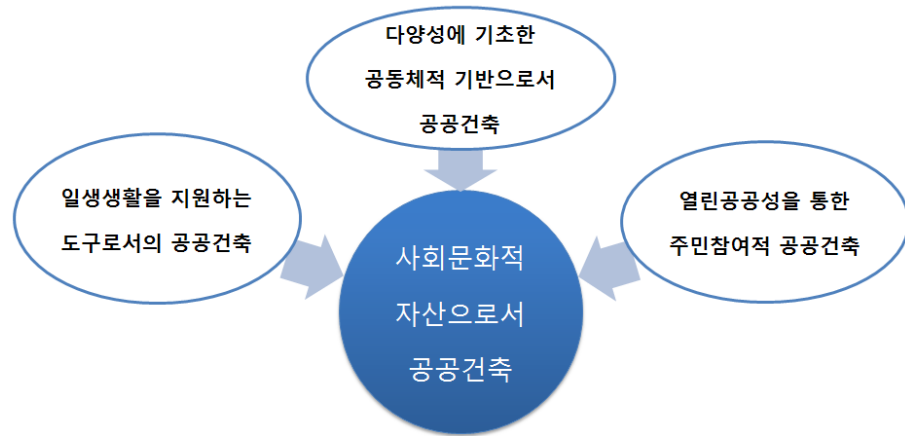
(3) 다양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기반으로 공공건축

이는 공/사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적 공공성을 표현하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공공건축을 의미하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에 적합한 공공건축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문화를 표현하는 그릇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4) 사회 · 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이란 단순한 기능성과 경제성을 넘어 지역성과 수준 높은 디자인을 통해 세계적인 지역성을 창출하는 지역의 명소로서 장소

성을 만들어내는 협의의 의미와 위의 세 가지 공공건축을 통해 광의의 무형·유형의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과 역할

공공건축의 분류

2

1) 분류기준

공공건축의 분류는 법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김성홍, 2004)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분류한 방식(조명래, 2007)이 있다.

먼저, 법적 기준에 의한 분류방식은 공공이 소유하고, 공공업무와 관련된 시설과 공공업무(국가 기관청사,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타공공건축물)와 직접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문화 및 서비스)로 분류한다. 여기서는 공공건축의 소유 주체별(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준과 다양한 공공의 소유 내에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개방정도로 구분한다.

〈표 3〉 법적 기준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분류

분류	시설
국가기관청사	1. 행정부 청사 - 종합청사 2. 사법부 청사 - 법원청사 3. 입법부 - 국회의사당
지방자치단체청사	1. 시청사, 구청사, 지방자치단체, 의회청사 2. 군청사, 동사무소
기타 공공건축물	1. 경찰청, 헌법재판소, 국가산하기관, 국가연구소, 중앙은행, 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복지관 2. 국·공립학교 3. 대사관저
문화 및 서비스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콘서트, 홀, 회의장, 문화회관

* 김성홍, 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행정복합도시건설추진단, p.4

한편, 공공성에 근거한 분류는 모든 건축의 본질을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확대하여, 공공건축의 소유보다는 시민 대중의 직접 이용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며, 즉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민간건축 일부 포함)으로 나누면서 정부건축과 공용건축을 공공건축으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공공건축의 분류는 소유의 주체보다 공공성의 개방정도를 중요시한다.

〈표 4〉 정부건축/공용건축/공공화된 건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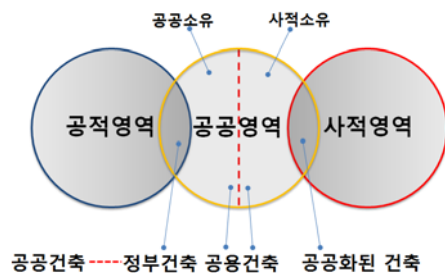
구분	정의	분류
정부건축 (governmental architecture)	정부의 고유한 권력적·제도적 성질을 가지며 공공성을 구비하는 공공건축	- 시청사, 정부청사, 국회, 법원, 의회 등
공용건축 (public-use architecture)	소유에 관계없이 시민대중이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공통의 특징인 공공건축	- 공공소유 : 동사무소, 마을회관, 문화회관, 공리병원,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 컨벤션 센터, 박물관, 운동장 등 - 민간소유 : 사립미술관, 사립병원, 교회, 절, 사립대학, 정류장 등
공공화된 건축 (pseudo-public architecture)	사적영역에 있는 건축으로 도시 정체성을 표방하는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또는 시민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공건축	- 상가, 백화점, 기업본사건물, 랜드마크형 건물, 대단위 아파트

※ 조명래, 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건축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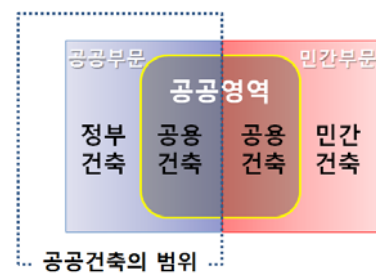
여기서 법적 기준은 단순히 기능적 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을 분류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분류는 수요자 측면에서 공공건축을 재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자산으로 공공건축에 좀 더 접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분류기준을 따르되 최종 수요자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을 바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양한 분류 중의 하나이며, 기존의 개별적 칸막이식 공급자적 분류와의 비교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건축의 분류는 크게 정부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정부건축과 시민대중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공용건축, 민간건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영역내 민간부문을 제외한 공공부문/영역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공공건축으로 한정하고자 하며, 민간부문을 제외한 정부건축과 공용건축을 공공건축의 범위로 한다.



〈그림 6〉 공공건축의 영역



〈그림 7〉 공공건축의 범위

2) 정부건축과 공공건축의 분류

(1) 정부건축

정부건축은 정부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를 상징하는 공공건축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격상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직접적이지 않은 공공건축을 지칭한다.

정부건축에는 법무시설, 청사, 외교시설, 연구시설, 우편시설(우편집중국), 군시설, 항공·항만시설(관제탑, 등대) 등이 속한다.

(2) 공공건축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이 직접 이용가능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생활의 기반이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공공건축을 말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건축이며, 이러한 공공건축을 다시 기초생활시설, 여가생활시설, 생활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의 분류와 다른 점은 국립시설들, 즉 국립극장, 고속철도역사 등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동등한 지역의 시설들로 분류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건축을 다시 분류해 보면, 기초생활시설은 공공행정시설, 주거시설, 금융시설, 보건위생시설, 기반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서비스시설들을 말하며, 여가생활시설은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방송시설 등이 포함된다. 즉, 자아계발과 친목 또는 여가, 건강을 위한 서비스시설 등을 말한다. 또한 생활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유치원, 학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3

공공건축의 분류에 따른 대상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건축과 공용건축 그리고 공용건축 내 기초생활시설, 여가생활시설, 생활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발주주체를 함께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공공건축 분류에 따른 대상시설

분류		시설 분류	비고
정부건축	정부시설	법무시설, 청사, 외교시설, 연구시설, 우편시설, 군시설, 항공·항만시설 등	
공용건축	기초생활시설	공공행정시설, 주거시설, 금융시설, 방송시설, 보건위생시설, 기반시설 등	
	여가생활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공간시설 등	
	생활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시설 등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

1. 공공건축 관련법규 및 시설설치기준
2. 공공건축 조성과정
3. 공공건축 담당조직 및 운영체계
4.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5.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현황
6. 공공건축 조성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a u r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

1

공공건축 관련법규 및 시설설치기준

1) 공공건축 관련법규

공공건축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으로써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시설별로 해당부처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관할의 공공건축물은 재정확보에서 기획, 설계, 운영 및 관리의 전 과정을 담당부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청사를 비롯한 각 행정청의 청사와 군시설, 항공·항만시설 등의 정부건축물과 공용건축이라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건설되는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해양박물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학교시설 전부가 중앙부처가 직접 공급,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다. 지방정부 관할의 공공건축물은 정부재정에 의해 지방정부 주관 아래 기획, 설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표 6〉 공공건축의 시설별 관리주체 및 근거법령

분류	시설분류		관리주체	근거법령	
정부건축	정부시설	법무시설	검찰청 등	법무부 검찰청법 제3조	
		청사	정부청사, 경찰청	행정안전부	경찰법 제2조
			해양수산청	국토해양부	-
			노동부청사	노동부	-
			외교시설	재외공관	외교통상부
		우편시설	우편집중국	지식경제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3절 제41조의 14
		군시설	군 관련시설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항공항만시설	관제탑	국토해양부	항공법 제2조 제6호
			등대	국토해양부	항만법 제2조 제6호
공공건축	기초생활시설	공공행정시설	지방청사, 소방서	지자체	소방기본법 제3조
			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조직법 제3조
			경찰서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3항
			우체국, 전화국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3절 제41조의 14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국토해양부	임대주택법 제2조
		보건위생시설	병원, 보건소	지자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국립의료원, 재활원, 검역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3항, 제7장 제38조
		기반시설	버스터미널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장 제50조의 2
			공항, 역사, 항만터미널		항공법 제2조 제5호, 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항만법 제2조 제6호
	여가생활시설	문화시설	지역문화원, 공연장	지자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공연법 제3장 제8조
			문화전당, 국립극장, 국립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제3장 제8조,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3조 제1호
		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제4장 제27조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3장 제18조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지자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장 제12조
			국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장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지자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립청소년수련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지자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6조
			전문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5조
	생활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자체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12조
		노인복지시설		지자체	노인복지법 제4장 제33조
		사회복지관		지자체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제34조
		장애인복지시설		지자체	장애인복지법 제5장 제59조
	교육시설	유치원	유치원	지자체	유아교육법 제2장 제8조
			국립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제2장 제7조, 제8조
		학교시설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교육법 제2조, 제4조, 고등교육법 제2조, 제4조

2) 공공건축물의 결정 및 시설설치기준

공공건축물은 시설물의 결정과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정의되지 않으며,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가 혼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결정사항(지역 및 권역범위에 따른 시설의 설치 규정)과 설치기준(입지조건, 시설물의 설치조건, 규모 등)을 공공건축물의 결정 및 시설설치기준으로 포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각 법률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설치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린주구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와 관할구역의 인구규모에 따른 거리기준으로 설치되는 소방파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건축이 행정구역단위로 1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결정기준은 입지에 관한 규정, 계획을 위한 기본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공공건축물 중 철도, 공공청사, 문화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은 교통의 편리성, 사용자의 접근성 등 입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학교, 도서관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인구규모에 따른 시설배치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을 제외한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 등에 건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용도지역과 연동한 입지허용 기준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설치기준은 예산지원신청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설계단계에서 참고해야 하는 각 법규상 설계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지원신청을 위한 기준은 대부분 중앙부처가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으로써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청사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학교, 보건소, 우체국 등과 같이 특정 목적의 시설에 대해 일정기간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표준설계기준을 작성/적용하는 경우, 각 시설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시설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7〉 공공건축의 시설별 설치기준 및 근거법령

분류	시설분류			설치기준						법령	
정부 건축	정부 시설	법무시설	검찰청 등	없음						없음	
		청사	정부청사	-						-	
			경찰청	광역시·도 단위 1개소						-	
공공 건축	기초 생활 시설	공공 행정 시설	시청	관할행정구역당 1개소						지방 자치법	
			구청	관할행정구역당 1개소							
			동사무소	관할행정구역당 1개소							
			읍사무소	관할행정구역당 1개소							
			면사무소	관할행정구역당 1개소							
			소방서	시·군·자치구 단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 파출소	구분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소도읍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관할면적	5km ²	10km ²	15km ²	20km ²			
				관할인구	서울 : 7만명당 1개소, 부산 : 3만명당 1개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2만명당 1개소	인구 50만 이상 : 3만명당 1개소,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2만명 당 1개소	1만5천명당 1개소	1만명당 1개소			
					출장소					농공단지·주택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지역 또는 계절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설치	
			보건 위생 시설	보건소	시·군·구 단위 1개소						지역보건법 시행령
		보건지소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 단위 1개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		시·구 관할 구역안의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설치							
		기반시설	역사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						-	
		여가 생활 시설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						지방문화 진흥법
				종합공연장	시·도 단위 종합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도서관	지역대표 도서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1개소						도서관법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 및 시·군·구 단위 1개소 이상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문화의집	읍·면·동 단위 1개소							
	체육시설		생활 체육시설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체육시설	특별시·광역시 및 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교육 시설		학교시설	초등학교	근린주거지역 단위 1개소						-
				중등학교	2개 근린주거지역 단위 1개소						
		고등학교		2개 근린주거지역 단위 1개소							

※ (사)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연구, 대한주택공사 일부 참고

〈표 8〉 세부 설치 및 설계기준 설정 방법에 따른 유형 분류

구분	특성	유형		지침규정
		기관	프로그램	
법 제 화	법령에 의한 기준	행정안전부	청사	청사관리규정
전문위탁	일정기간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결정	행정안전부	경찰서	경찰서 등 관서 신·개축지침
		지식경제부	우체국	우체국사 시설계획 및 시설집행 지침 위탁설계지침
			전화국	건물설계지침 건축사업지침 위탁설계지침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학교시설공사 설계지침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 (보건기관별 표준시설기준)
사업추진시 결정	사업별로 수시 조사	법무부	검찰청, 교정시설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각 사업수행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결정

이러한 설계기준은 대부분 표준화된 지침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구성항목은 건축물 건설에 관한 기본개념 및 최소 필요면적, 건설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갖는 우체국·전화국·보건소 등의 설계기준은 천장고 및 자재치수, 재료선정 등의 기준을 담고 있다

〈표 9〉 시설별 설계지침 운영 예시

설계지침	학교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전화국
평면계획	· (주요실면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기준	· (연면적) 경찰청 시설규모 조정 기준 · (과단위 면적) 청사관리규정준용	· 표준설계도서 적용	· 면적산출식 작성 · 주사급 경우 표준설계도서 적용 원칙	· 면적산출식 작성 · 실별설계자료 · IB화 고려 · 주요실 모델안 · 분기국사 표준설계도 적용원칙
구조계획	-	-	-	· 슬래브, 기둥, 보 등의 항목지정	· 전자교환기에 따른 스펠치수 ·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스펠치수 · 통신기계실, 주차장 및 구조에 따른 스펠치수
단면계획	-	-	-	치수규정	치수규정
재료선정	-	· 조립식 간막이벽 활용(내부)	-	· 주요 부위 적용자재 명시 · 이동식 철재 경량 간막이벽 활용(내부) · KS자재 적용	· 주요부위 적용자재 명시 · 주요기계실의 문치수 · 조립식경량간막이벽 활용(내부) · KS자재 적용
표준설계	-	-	있음	표준설계일부사용 (소형우체국)	표준설계일부사용 (소형전화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 공공건축물의 설계표준화 지침서 개발연구, 건설교통부, 참고

이러한 설계지침은 각 시설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건축수준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전국에 획일적인 건축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능적인 설계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표 10〉 공공청사 계획관련 규정 일람 예

항목	관련법률 및 내용	
부지조건, 규모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46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49조)
위치, 배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18조 6)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19조 4) (자전거전용도로는)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20조 3)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95조)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47조 7)
복합화, 집산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95조 5)
	공유재산관리지침	청사 신축시 공공청사와 공공회관 기능의 복합화 추진 - 앞으로 시·군·자치구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지역내 각종 공공회관이 없는 지역은 청사내에 설치되는 극장식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과 직원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 즉, 별도의 각종회관을 신축하지 않고 함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복합 기능의 청사신축을 추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 접근을 용이토록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함 · 초기 타당성조사 용역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시행 - 사회복지·문화체육분야의 회관을 신축하는 때에는 시·군·자치구청사의 신축과 연계하여 종합 검토하고,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도 가능한 개별사업비로 독립하여 집행하지 말고 복합기능 청사신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

항목	관련법률 및 내용	
복합화, 집단화	공유재산 관리지침	청사의 복합건물화 1)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함 2) 추진방안 : 공유지신탁 방식의 신축 면적이 비교적 큰 도시계획지역 도로변 요지에 소재한 노후청사로서 재건축이 필요한 『동사업소청사』를 대상으로 공유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임대분양형 신탁계약을 하여 복합건물로 신축을 추진
		임대용 복합건물 용도의 청사신축 금지 · 임대형 사무실, 상가 등의 다목적 복합청사의 신축 금지 · 다만, 공유지 토지신탁에 의한 복합청사(예: 관상, 주거, 사무실 용도의 건물 등) 신축은 예외로 함
시민 편의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95조 6)
	공유재산 관리지침	공공 편의시설의 최소화 · 청사 건물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는 지나치게 크게 설치되거나 또는 공원화 등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바 대상 시설의 개소와 면적을 최소화하고 중복시설을 하지 않도록 함
외관 및 디자인	공유재산 관리조례표준안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47조 1항 2)
공간구성 및 기능	공유재산관리 조례표준안	- 총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47조 1항 4-6)
	공유재산 관리지침	- 임대용 복합건물 용도의 청사신축 금지 - 실·과단위 경계벽(칸막이) 제거 공동 사용
시설규모 및 면적기준	공유재산관리 조례표준안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47조1항)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47조 1항 1호)
	공유재산 관리지침	- 총무시설의 최소화 및 다용도화로 평상시 사장을 방지 - 연금매장 등 설치 금지 - 청사별 표준면적기준 운용 · 청사별 표준면적 기준을 조례에 제도화 ·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시 표준면적을 기초항목에 포함 - 본관 건물상의 지하주차장은 건물 연면적의 10%범위 내에서 설치(청사표준면적이 법규화된 이후는 표준면적을 적용) - 행정수요, 인구, 기관직제 예측 철저 · 타당성조사 용역(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후단) 등에 따라 행정력의 증가와 감소 등 수요 예측을 정밀 산정하여 면적 산정 ·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폐치·분합 등을 고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은 구청이 설치된다는 것을 예상하여 면적 산정
증축 및 수요증가 등 장래의 대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95조 7)
	공유재산관리 조례표준안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7조 1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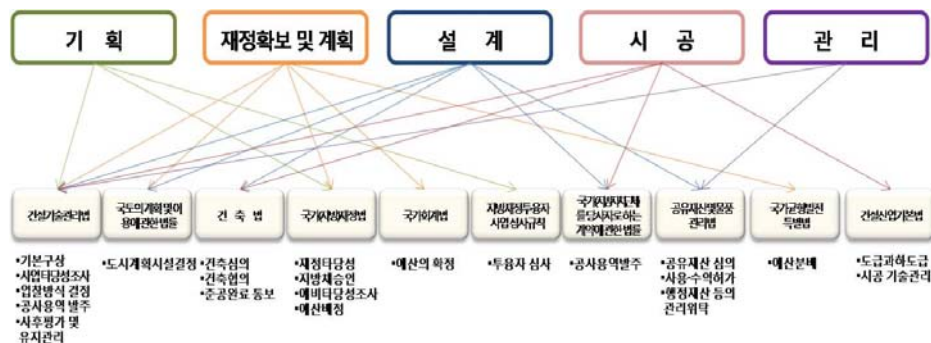
* 강인호, 2008, “우리 모두의 공공청사, 무엇을 추진되는가?”, 공공건축 설계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설계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4년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설치에 관한 전문기구인 농어촌기술지원단¹⁸⁾을 조직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재화와 복지시설을 결합하는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보건소의 설계지침과 표준설계도집을 작성하였고 이는 설계공모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과정

2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기획과정에서 건설,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 2항(정부발주의 공공시설물)에 의거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설과정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며, 입지선정에서 기획, 설계, 발주, 시공, 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적용받는 관련법이 복잡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림 8〉 공공건축의 진행 프로세스별 관계법령 도식화

이러한 공공건축 건설과정은 예산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형’과 ‘지자체 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주도형’은 기획과정에서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 과정을 각 시설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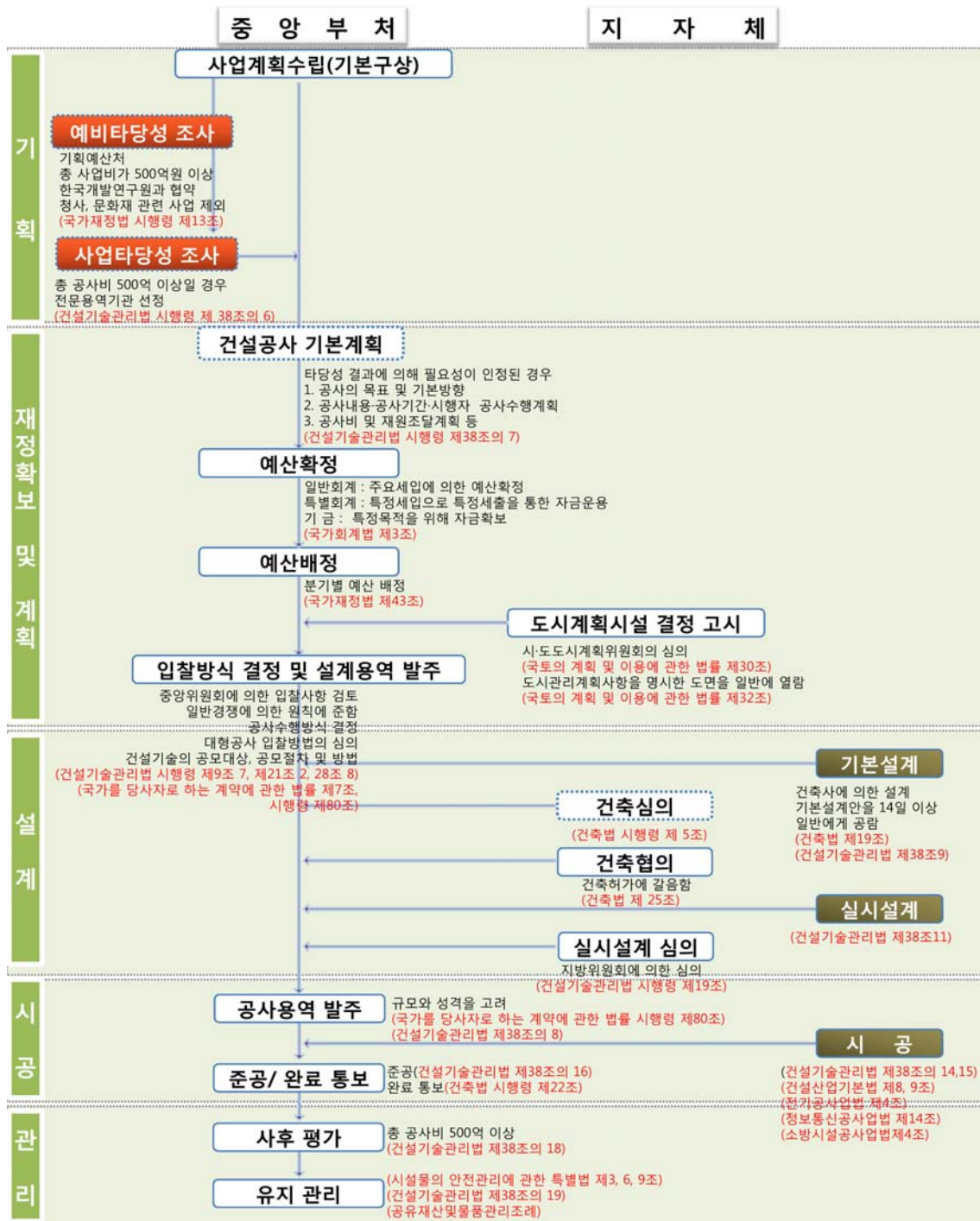
18) 농어촌기술지원단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과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의료관리연구원에 소속된 건축가, 연구원과 공공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김승희, 2006,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의 진행과정, 건축과 사회, 겨울호

각 부처 내의 시설관련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경우와 공단이나 관련청을 설립하여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전 단계를 일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법무부 소속 검찰청과 정보통신부 소속 우체국과 같은 시설물들이 해당되며, 후자는 철도청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청, 교육청 등에서 주관하는 역사, 공공청사, 학교 등이 해당된다.

1) 중앙정부 주도형

‘중앙정부 주도형’은 기획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사업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500억원 이상 건설사업이나 300억원 이상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타당성 검토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신청에 따른 예산확보와 부지선정, 입찰방식 등을 결정하며, 지방도시계획심의와 의회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함께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설계단계에 들어간다. ‘중앙정부 주도형’의 공공건축의 설계단계는 발주부서나 발주청의 주도 아래 건축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공공건축은 ‘건축법’ 제25조 1항에 근거하여 허가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관계부서의 협의만으로 허가행위를 준용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경우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담당 행정청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하게 건설 전 과정을 관장하고 있다.



〈그림 9〉 중앙정부 주도형 공공건축 조성과정

〈표 11〉 특별법 운영에 의한 특례규정

구분	학교시설	보건소
관련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등 특례 조항	<p>제5조의 2 (학교시설의 건축 등)</p> <p>① 제4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감독청은 승인, 신고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이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p> <p>④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p> <p>⑤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보건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 이상(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천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p>
심의 위원회 구성	<p>제5조의 2 (학교시설의 건축등) ~학교시설 건축 등~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감독청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
심의 위원회 역할	<p>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2조 (감독 등) 제13조 (준공검사 등)</p>	-

2) 지자체 주도형

정부청사나 학교, 국립박물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건축은 지자체 주도로 건설과정이 진행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건설되는 공공건축은 대부분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이며 기획단계의 모든 절차는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수립과 심의절차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가 주관하여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기획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한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 승인심사 등 재정지원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각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재정보호를 위한 내용위주로 기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정지원이 결정되면, 입찰방식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 이후, ‘중앙정부 주도형’ 공공건축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협회의 의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보건소, 체육시설공단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체육시설, 문화관광부의 예산지원으로 건설되는 문화예술회관 등은 중앙 주도형 사업과 달리 설계심의과정에서 자체적인 건축심의 이외에도 중앙부처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설공사 단계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관리하며, 건설 후 유지관리는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장하거나 위탁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며, 공공건축에 대한 일괄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등록하는 행정적인 관리절차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10〉 지자체 주도형 공공건축 조성과정

3

공공건축 담당조직 및 운영체계

공공건축의 건설과정 및 운영·관리를 위한 담당조직은 ‘중앙정부주도형’의 경우, 행정부처에 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직접 담당하는 사례와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설관련 별도의 행정청을 조직하여 건설과정을 이관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에서 2007년 6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건축과 관련한 중앙부처 전체 47개 기관 중 14개 기관만이 전담조직에 의해 건설과정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 중앙정부 주도형 사업예산 중 53%에 해당하는 예산이 전문시설사업 시행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33개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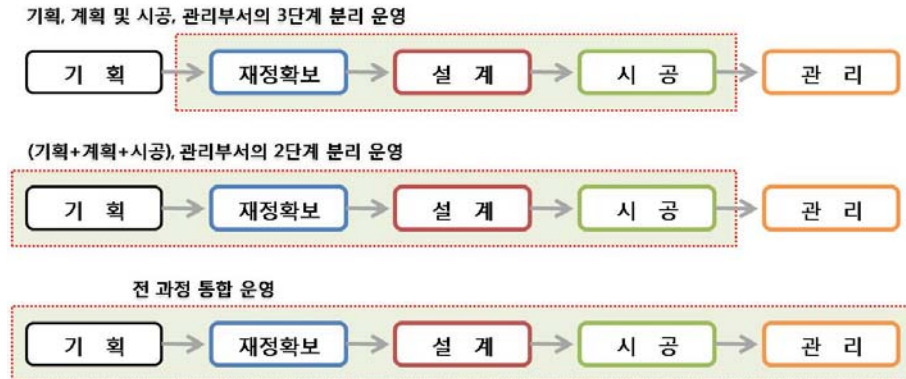
〈표 12〉 정부 부처별 공공사업 수행조직 현황

구분	과단위이상 조직보유기관	계단위 조직 보유기관	시행조직 미보유기관	건교부, 행복청	계
기관수	6	6	33	2	47
사업예산 (백만원)	470,471	53,372	704,552	100,345	1,328,740
예산비율	35%	4%	53%	8%	100%
참고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정통부	헌재, 기상청, 복지부, 방위청, 문화재청, 식약청	전체의 53%, 7,046억원	-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조사 연구,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 p.39

지자체 주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사업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방식에 따라 첫째, 기획, (설계+시공), 관리가 분리되어 있는 유형, 둘째, 기획과 설계시공은 하나의 팀에서 하되, 관리전담조직을 두는 유형, 셋째, 기획, 진행, 운영관리를 하나의 조직에서 일괄 담당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의 책, pp.38~39



〈그림 11〉 지자체 공공건축 전담부서 운영 유형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확보과정과 설계, 시공과정은 대체로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기획업무와 운영·관리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획업무는 문화부, 체육부, 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각 시설에 대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확보 및 설계, 시공과정은 회계과나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울산시 중구청이나 고양시와 같이 설계 및 공사발주 등의 건설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는 설계과정을 단순 발주행위로 인식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운영·관리는 각 지자체에서도 시설유형에 따라 기획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전담하거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수한 시설의 경우 시설 내에 전담 관리조직을 위탁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이 자체별 공공건축 담당부서를 조사한 결과,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시설유형에 따라 기획 및 계획수립단계와 설계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관리체계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칸막이식 행정에 익숙한 풍토를 고려할 때, 각 시설담당 주무부서가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에 대한 기술력 축적 및 사업간 연계/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관리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 데이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관리체계가 전담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관리시스템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4

1) 공공건축 정책현황

(1) 정부 지원사업에 의한 공공건축

중앙 부처에서는 도시 및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지자체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독자적인 계획에 의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기획단계에서 부처간, 부문 간(문화, 경제, 교육 등)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에 해당하는 통합개발방식을 소위 패키지 사업²⁰⁾형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정책적용 수단으로 공공건축이 활용되는 예가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 패키지 사업이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개념적으로 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간 사업을 하나의 사업목표와 개념하에서 묶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한 사업을 말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의 책, p.10

〈표 13〉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건축의 연계

주체		지역		공공건축물과의 연계	사업시기
		도시	사업명		
패키지 사업	국토 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 평동 전통떡 마을조성사업	전통떡 만들기 체험장, 식충 식물원	2007
			경기도 화성시 창문예술마을만들기	빈 농협창고를 개조한 갤러리	2007
	행정 안전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라북도 완주군 대승리 한지마을	전통가옥 박물관, 한지문화 연구소, 한지공예 공방촌, 한지 장인학교	2007
		소도읍 육성사업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나비생태관	2007
			경기도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도시	선사유적박물관	2005
	산림청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산촌체험장	산촌체험관, 산열매 저장고	2006
			경기도 광주시 하번천마을 생태체험장	수생식물 판매장	2007
부처별 지원 사업	농림 수산 식품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군산 뜰아름마을	채만식 문학관, 전시/왕골체험장, 전통우물, 쉼터	2002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전라남도 영광군 삼호리 효동마을	윗샘과 연자방아 복원, 초가정자 3채 신축	2005~2008
			전라북도 고창군 월산리 사등마을	진채선 생가터 재활용, 당산나무의 휴게공간화, 소금체험관	2006~2009
			경북 안동시 와룡면 군자마을	역사자료 조사 및 보존, 고택 체험을 위한 고택정비 및 개방	2004~2007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전라남도 함평	함평 노의웅 미술관 건립	2008
	행정 안전부	통합청사 추진사업	제주, 광주	제주지방합동청사, 광주전남합동청사	2006
		도서종합 개발사업	강화 교동 등	마을회관 건립	1988~
		오지종합 개발사업	경기 장남면 등	복지회관 신축	1996
		노근리사건 지원사업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역사평화 박물관	2007~2009

(2) 복합화 사업을 통한 공공건축

최근, 공공건축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건축의 건립방식은 시설별로 독립적으로 건설되어 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생활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복합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정부의 공공건축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복합화를 전제로 한 공공건축 사업이 기타 사업에 비하여 높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 시설물 예산규모 현황 중 복합적 지원의 규모

(단위 : 백만원)

시설구분	3년평균	2005	2006	2007	규모비율(%)	순위
교육	1,845,548	2,690,473	1,783,217	1,062,953	29.3	1
청사	1,356,555	1,183,028	1,541,667	1,344,971	21.6	2
교통	898,651	688,763	1,081,289	925,900	14.3	3
산업연구지원	550,033	575,035	604,936	470,129	8.7	4
복합적 지원	432,354	430,839	475,822	390,402	6.9	5
의료	13,673	2,933	13,576	24,510	0.2	1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의 책, p.21

공공건축과 관련된 복합화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들 수 있다. 교육시설의 복합화란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자녀교육과 평생학습, 체력단련 등 자기계발과 보육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심의 복합화 시범사업을 지칭한다.

〈표 15〉 교육시설복합화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교명	개교	복합시설
서울	구로구	신도림고 신축	2008.3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고척초 개축	2008.9	도서관
	강북구	행복중고 신축	2008.3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부산	해운대구	센텀고 신축	2008.3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광주	광산구	수완2초 신축	2008.9	도서관
충남	천안시	월봉중 신축	2008.3	보육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청당초 신축	2009.3	보육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경남	마산시	중리초 신축	2008.3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 금호초교 복합시설/재정사업('01년 준공)

- 학교+주차장+체육관+수영장+헬스장 등
- 추진주체 : 성동교육청+성동구청
- 총사업비 : 교육청 110억원+구청 114억원
- 체육관, 수영장 등 학생 무료 이용 (연 60억원 절감)
- 구청은 학교부지 무상사용 (1,200평, 60억원 절감)

〈그림 12〉 금호초등학교

교육시설의 복합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공용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복합화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공공건축물들을 연계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지원형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들을 복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논현 문화복지회관이나 양천 문화복지회관과 같이 동사무소나 지역청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사례를 들 수 있다.

〈표 16〉 논현 문화복지회관 사례

층수	층별 면적 및 용도	
	용도	면적
지하층	주차장(46대), 기계실	2,473.60m ²
1층	동사무소	1,008.48m ²
2층	동대본부, 마을금고, 선관위	792.00m ²
3층	어린이집	777.48m ²
4층	여성센터	595.32m ²
5층	체육교실	595.32m ²
6층	도서실	595.32m ²
7층	문화예술관	595.32m ²





〈그림 13〉 목동 양천문화복지회관 사례

복합화의 양상은 단순히 몇 가지 프로그램의 결합을 넘어서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도시 공공건축물의 주요한 계획원리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들 수 있으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마을 사업’은 국내 최초로 하나의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동사무소·학교·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문화 및 복지시설이 입체적으로 연계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후속으로 건설될 나머지 20개 기초생활권에도 공공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을 복합화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림 14〉 행정복합도시 복합화 프로그램

이와 더불어 파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이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용도복합 계획에 있어서도 공공건축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3) 지자체 자립형 공공건축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 관련 프로그램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건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지역 명소화, 관광자원화 전략으로 구현되고 있다.

〈표 17〉 지자체 주도 공공건축 사업 사례

지자체	지역	사업명	공공건축물 용도	사업시기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	미술관	2002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유희공장 (김중업 작품)	전시관 (문화시설활용계획)	2007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 국악의 성지	전시체험관, 국악원	2007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	농기구 박물관	2001
경기도	경기도 여주시, 광주시, 이천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전시관	2001-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백련대축제	수상유리온실, 호담항공우주전시관	1997-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촌 사업화	청미문학관, 전혁림미술관 등	2000, 2003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유교문화사업	영주선비촌마을	1999-2002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	고성 남북교류센터	DMZ 박물관	2007
부산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신 고리 지역협력시설	스포츠,문화센터, 홍보전시관	2005-2006
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군포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2006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장애인재활지원센터	2003-2007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소, 노인·청소년복지시설	2002
금산군	충청남도 금산군	다목적 군민회관	문예회관, 야외공연장, 장애인 청소년의 집	2000-2004
무주시	전라북도 무주시	무주 공공프로젝트	마을회관, 면사무소, 청소년수련관 등	1997-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사회복지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	2003-2005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노인복지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	2005-2007
진해시	경상남도 진해시	청사노후화 개선과 주민복지 커뮤니티 확보 방안	종합복지관	1996-2004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유형은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과 같은 지역의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병원, 재활지원센터, 보건소 등의 복지시설 지원형 사업, 마을회관, 면사무소,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의 생활 커뮤니티 지원형 사업과 지역 공공청사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표 18〉 지자체 주도 공공건축 사업의 유형 분류

유형	특성	주요 프로그램
여가, 문화 활성화사업	지역의 성격을 특성화하고 지역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문학관, 홍보관, 도서관, 문예회관, 스포츠문화센터
복지시설 지원사업	기초생활자 비롯한 지역민의 기본적인 복지생활 유지를 위한 시설물	장애인 재활센터, 보건소, 노인청소년 복지시설, 노인요양병원
생활 커뮤니티 지원사업	지역시민의 생활기반형 집회 시설물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노후한 공공시설물을 보수, 신축하여 지역민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성을 고취하는 시설물	지역공공청사

2)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특성

(1) 지역 활성화 전략을 위한 구심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 명소화, 특성화, 관광자원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중심에는 공공건축이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지역축제나 테마파크(theme park)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다른 지역민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공건축물과 연계시키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 침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공공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중앙정부 지원²¹⁾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특히 문화관광부에서는 2008년도 신규사업 중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역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2008, 20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22

(2) 문화, 복지향상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도구

또한,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공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도구로 공공건축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 복지 측면에서 주민의 기초생활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최근 복지관, 문화관 등이 신설되고 있으며 노후복지시설, 청소년 시설 및 유아 보육시설 등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여가생활시설이나 생활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시설간 연계 가능성 확대

정부 지원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사업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복합화 지원 방안의 증가 추세는 공공건축이 더 이상 단일의 시설물보다는 시설 상호간 연계의 가능성 커져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부처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양산(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등)되고 있고, 복합화 사업의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치밀한 수요 예측과 시설간 연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만 한다.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현황

5

1) 대상선정

(1) 조사배경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통한 지역성 확보와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앞서 조사된 정책현황을 바탕으로 실제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분포와 경향, 관리 및 운영 현황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조사목적

조사목적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파악을 통해 사용자와 지자체의 입장에서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건축 조성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사대상의 선정기준

-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생활권(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인구 5~10만 내외 규모의 소도시 기준
 - 일간지, 잡지 등에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지방도시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도시 : 금산군, 거창군
 - 정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역사문화마을만들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도시 : 영주시
 - 건축도시정책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소도시 : 제천시
 -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 공공디자인 및 공공건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중인 도시 : 울산광역시 중구

이상의 기준을 통해 조사 지역은 지역규모별로 금산군, 거창군, 영주시, 제천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총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2) 조사지역현황

〈표 19〉 조사지역 기초현황

구분		금산군	거창군	영주시	제천시	울산중구
인구 (2005년 기준, 명)		53,629	60,524	113,670	132,483	225,810
면적(km ²)		576.29	804.07	668.88	884.05	78.46
인구밀도(인/km ²)		93.05	75.27	169.94	149.85	2,878.02
행정구역		금산을 외 9면	거창읍 외 11면	풍기읍 외 9면, 9동	봉양읍 외 7면, 9동	14개동
공공건축물 의 수	정부시설	1	2	1	2	0
	기초생활시설	23	28	37	34	24
	여가생활시설	13	8	11	14	6
	생활복지시설	30	33	49	66	45
	교육시설 ²²⁾	50	54	75	81	69
	합 계	117	125	173	197	144
대표 공공사업		금산 다락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공공건축물의 분류는 본 보고서 2장〈표5〉의 분류에 근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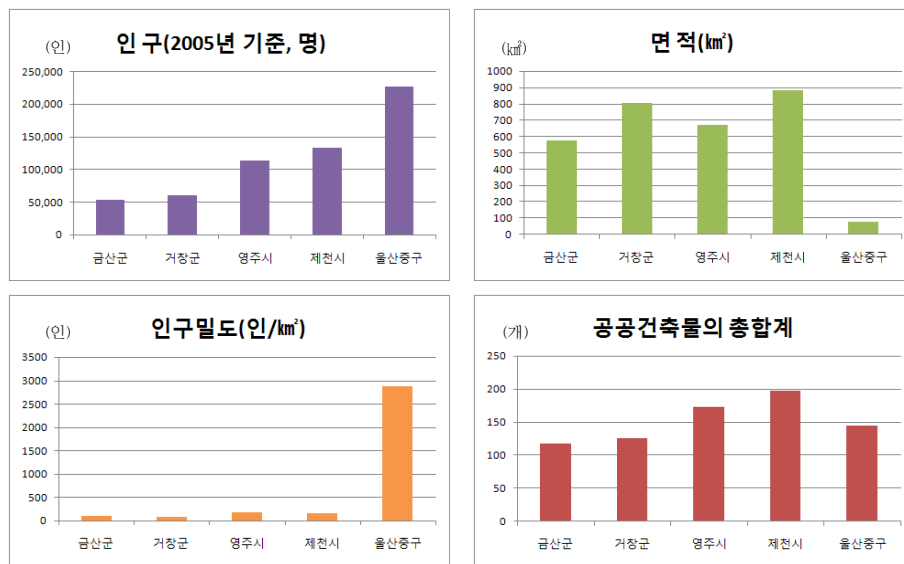
3) 실태현황

(1) 공공건축물의 비율 및 지자체별 분포

지자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생활복지시설, 기초생활시설, 여가생활시설, 정부시설 순으로 공공건축물 분포를 이루고 있었으며 지자체간 비교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2) 교육시설은 지역 교육청에서 시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지자체 관할내에 설치된 총 개수 이외에 시설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육시설은 총합계 이외에 전체 분석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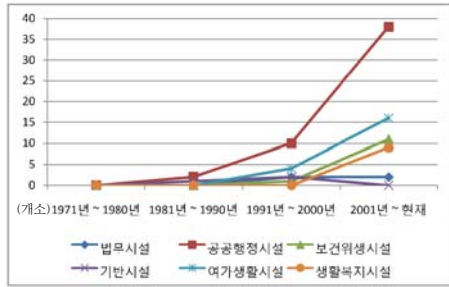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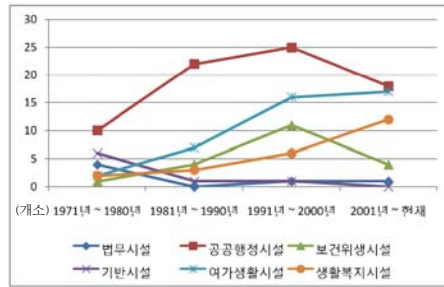
또한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지자체의 면적규모보다는 지자체의 인구규모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울산시 중구는 인구규모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데이터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타 조사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월등히 높은 대도시라는 특수한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기타 지자체와는 다른 비교군으로 제외할 수 있겠다. 다만 울산시 중구가 지자체 면적규모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공공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 5개 지자체 인구, 면적, 인구밀도, 공공건축물 현황

(2)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경향과 증개축 발생현황

1960년대 이후 공공건축물의 건립 개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노인복지시설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여가생활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수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공행정시설은 건립과 증개축 모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 건립되었던 지역행정업무시설들이 그 수명을 다하고 지역규모에 맞게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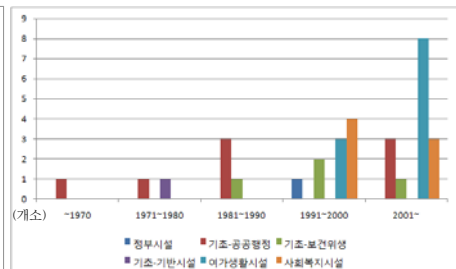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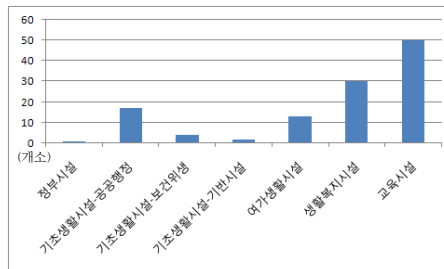
〈그림 16〉 5개 지자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그림 17〉 5개 지자체 공공건축물 시기별 증가추세 현황

(3) 지자체별 공공건축 현황

① 금산군

금산군내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5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시설,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시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보건위생시설과 공공행정시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공공행정 시설은 2000년대 이후 다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복지시설과 여가생활시설은 1990년 이후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증가비율 또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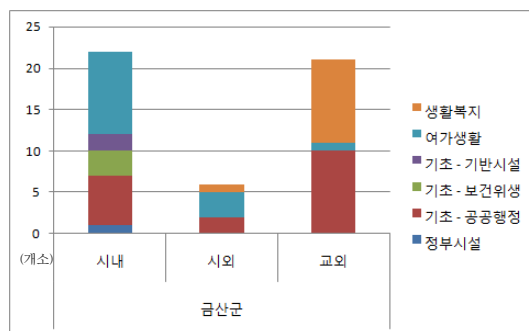


〈그림 18〉 금산군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19〉 금산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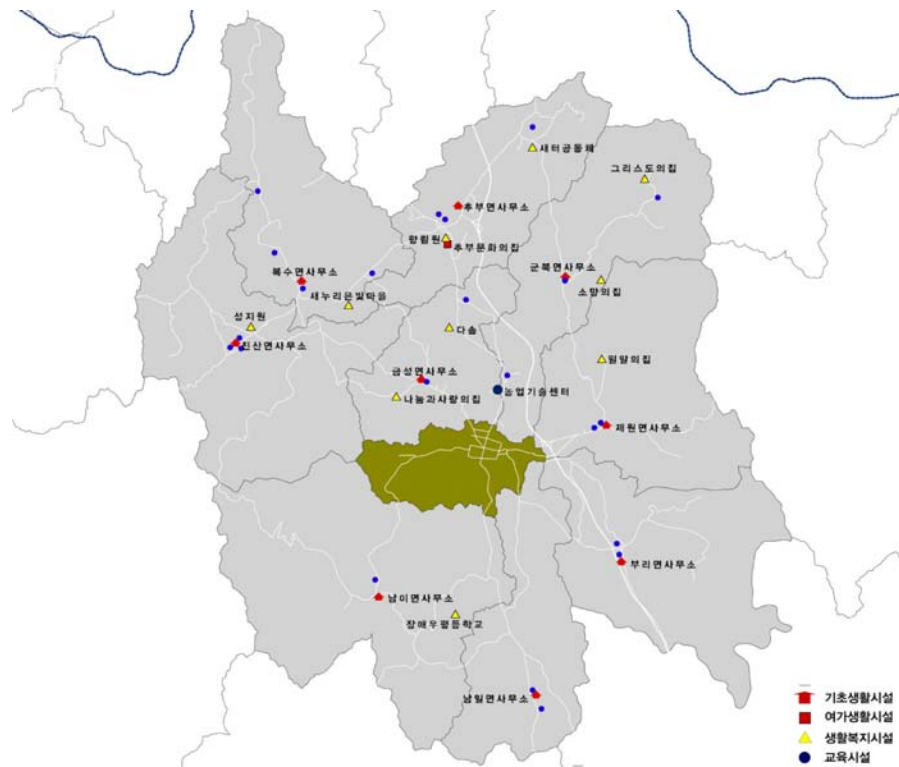
〈표 20〉 금산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시설구분 \ 년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정부시설	0	0	0	1	0
기초-공공행정	1	1	3	0	3
기초-보건위생	0	0	1	2	1
기초-기반시설	0	1	0	0	0
여가생활시설	0	0	0	3	8
사회복지시설	0	0	0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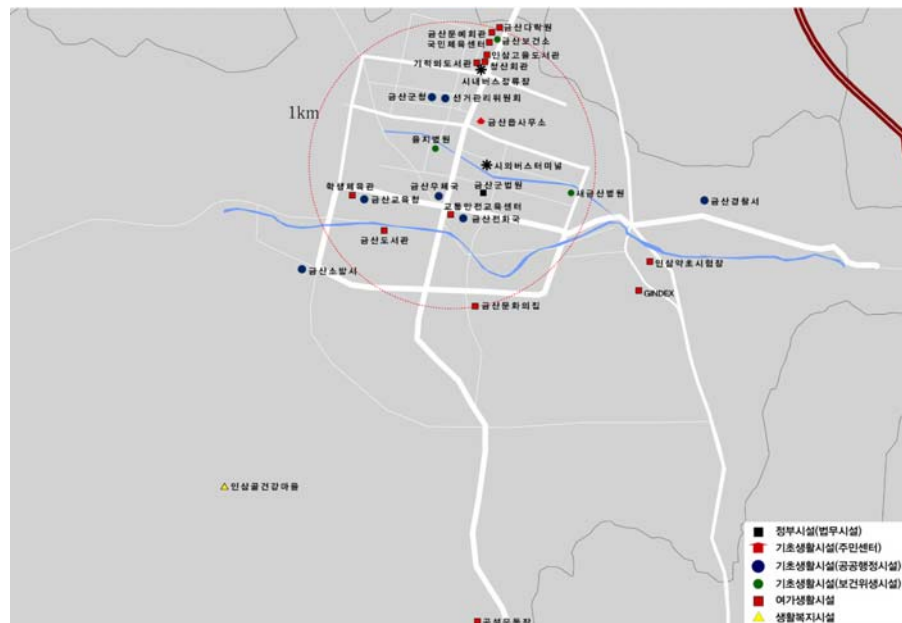
금산군내 공공건축물을 중심시가지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중심지역(시내, 시외)과 교외지역에 공공건축물의 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정부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은 시내(반경 1km)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행정시설은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내로 갈수록 여가생활시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반대로 교외로 갈수록 생활복지시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활복지시설의 경우 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교외지역에 신축으로 건설되는데 그 요인이 있다.



〈그림 20〉 금산군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그림 21〉 금산군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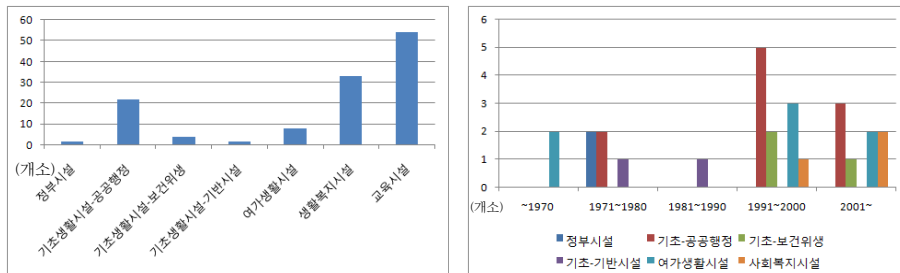


〈그림 22〉 금산군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② 거창군

거창군내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5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시설,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전에는 정부시설과 일부 기초생활시설(공공행정시설, 기반시설)이 건립되었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롭게 보건위생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대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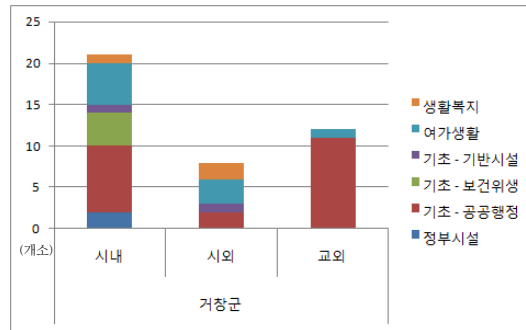


〈그림 23〉 거창군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24〉 거창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거창군내 공공건축물을 중심시가지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 결과 시내지역(반경 1km)에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외지역에는 대부분 공공행정시설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1〉 거창군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시설구분 \ 년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정부시설	0	2	0	0	0
기초-공공행정	0	2	0	5	3
기초-보건위생	0	0	0	2	1
기초-기반시설	0	1	1	0	0
여가생활시설	2	0	0	3	2
사회복지시설	0	0	0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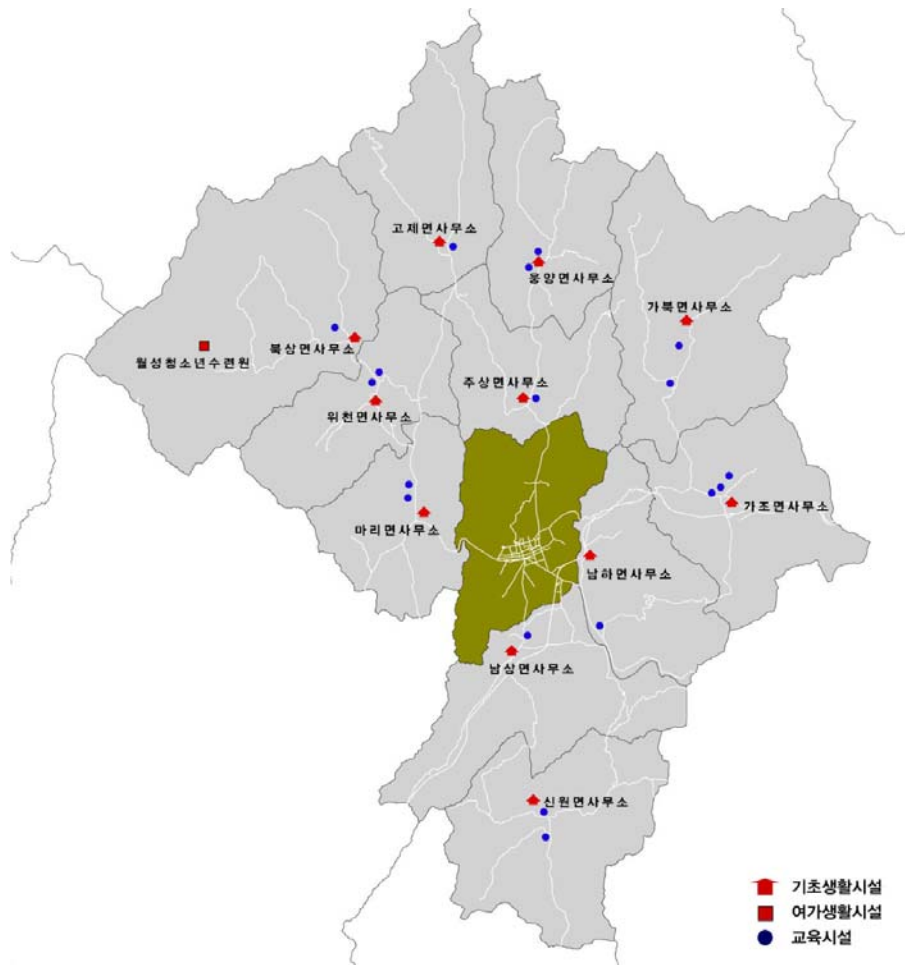


〈그림 25〉 거창군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그림 26〉 거창군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행정업무시설들은 대부분 면사무소들이고 도농통합으로 인해 교외지역이 중심지역(시내, 시외)에 비해 월등히 면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절대적으로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볼 때 보건위생시설과 정부시설은 시내지역에만 위치하며, 기반시설, 생활복지시설은 중심지역(시내, 시외)에 균등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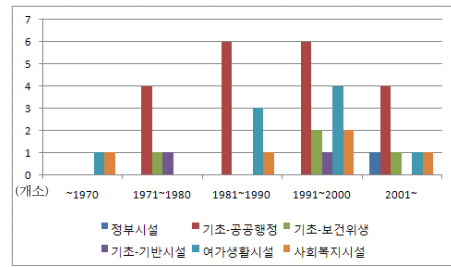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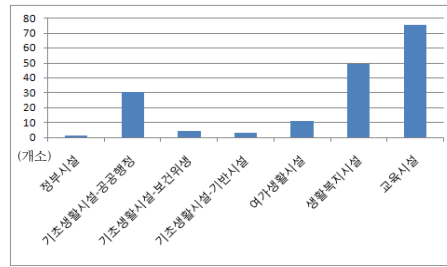


〈그림 27〉 거창군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③ 영주시

영주시내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7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시설,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후로 공공행정시설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로 여가생활시설이, 1990년대 이후로 보건위생시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1970년대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꾸준히 건립되고 있다. 그래프를 볼 때 영주시는 비교적 모든 시기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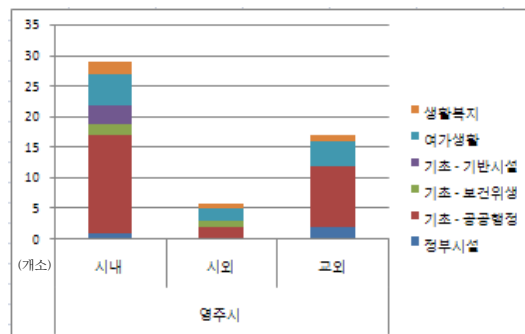


〈그림 28〉 영주시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29〉 영주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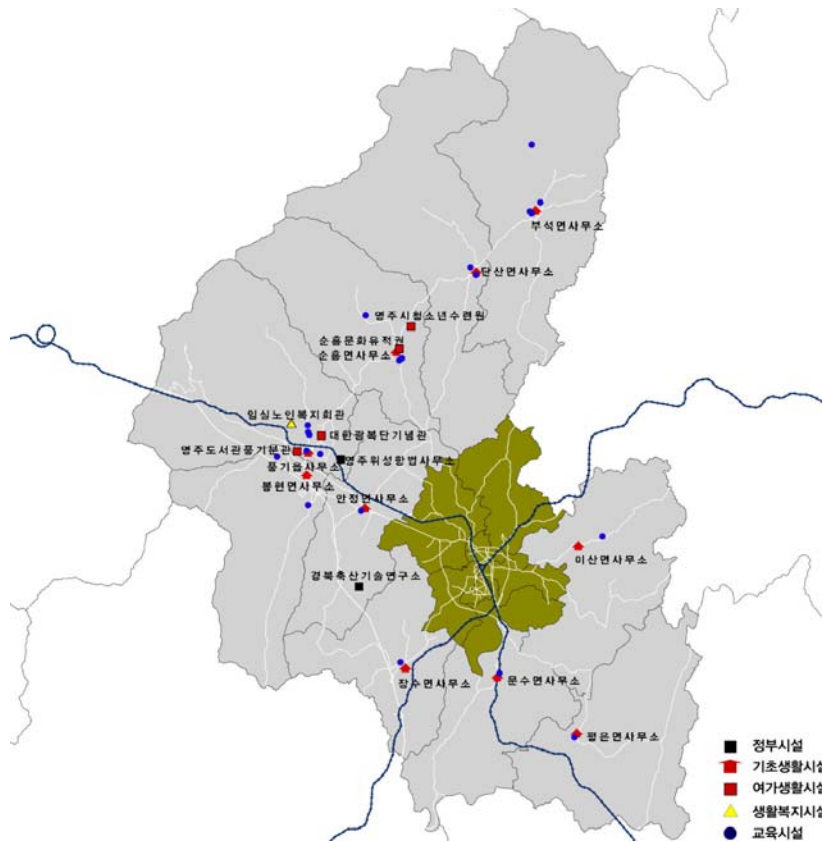
〈표 22〉 영주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시설구분 \ 년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정부시설	0	0	0	0	1
기초-공공행정	0	4	6	6	4
기초-보건위생	0	1	0	2	1
기초-기반시설	0	1	0	1	0
여가생활시설	1	0	3	4	1
사회복지시설	1	0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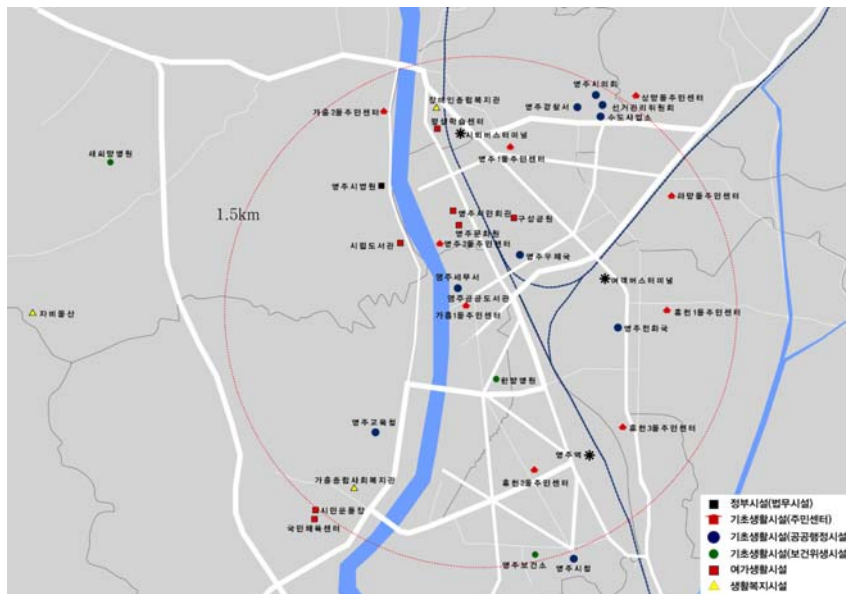
영주시내 공공건축물을 중심시가지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 결과 시내지역(반경 1.5km)에 가장 많은 비율의 공공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교외, 시외 지역 순으로 공공건축물이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정부시설이 교외지역에 위치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축산기술연구소나 위성항법연구소와 같은 특수목적의 정부시설물들이 교외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시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건위생시설은 중심지역(시내, 시외)에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가생활시설과 공공행정시설은 전 지역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 영주시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그림 31〉 영주시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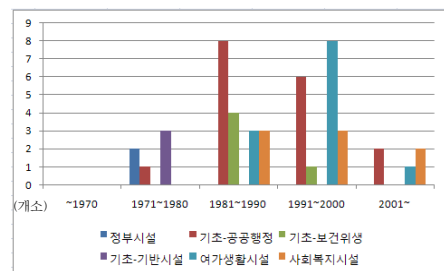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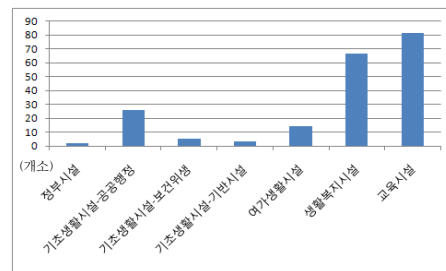


〈그림 32〉 영주시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④ 제천시

제천시내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8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시설,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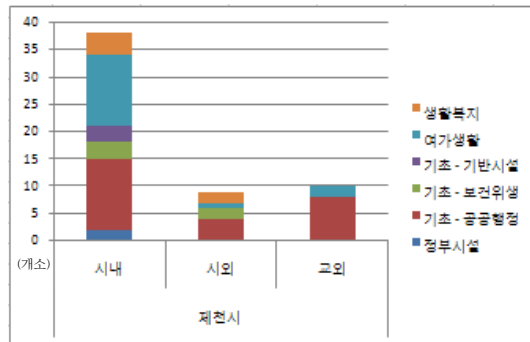
시기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로 공공건축물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행정시설이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건위생시설과 여가생활시설은 1980년대 이후로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데 이 중 여가생활시설은 1990년대에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들어 공공행정시설과 여가생활시설의 증가비율이 둔화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여가생활시설만이 꾸준히 건립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시설과 기반시설이 1980년대 이후로 전혀 건립되지 않고 있는 현상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33〉 제천시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34〉 제천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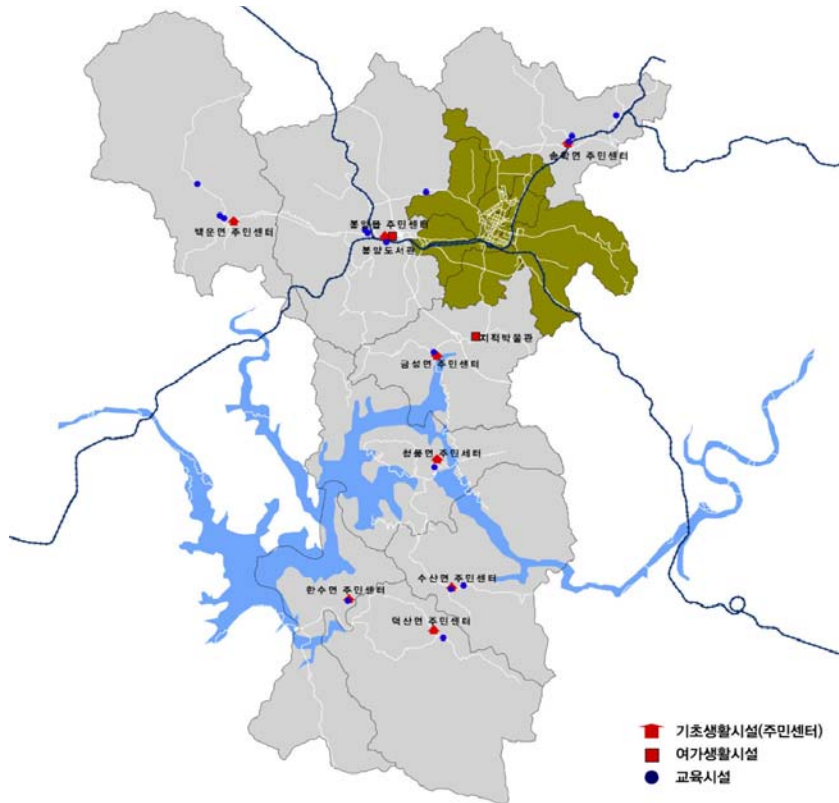
〈표 23〉 제천시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시설구분 \ 년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정부시설	0	2	0	0	0
기초-공공행정	0	1	8	6	2
기초-보건위생	0	0	4	1	0
기초-기반시설	0	3	0	0	0
여가생활시설	0	0	3	8	1
사회복지시설	0	0	3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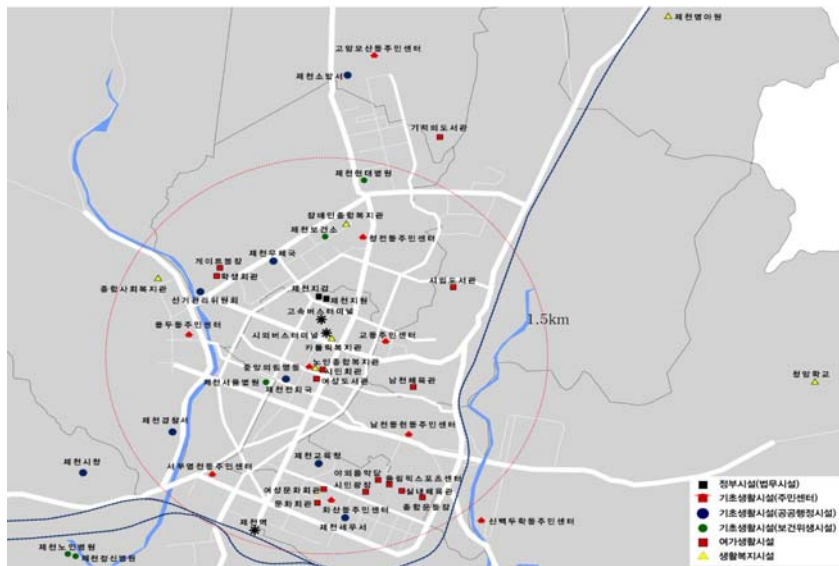


〈그림 35〉 제천시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제천시내 공공건축물을 중심시가지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 결과 시내지역(반경 1.5km)에 가장 많은 비율의 공공건축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교외와 시외지역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의 절대적인 면적비율을 교외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외지역에 대한 공공건축물의 수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교외지역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주민지원센터(구 동사무소)로 이루어진 공공행정시설로서 다양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반시설과 정부시설은 시내에 집중되고 있으며, 생활복지시설과 보건위생시설은 시내로 올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여가생활시설이 전 지역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박물관과 도서관 분관 등이 일부 교외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림 36〉 제천시내 교외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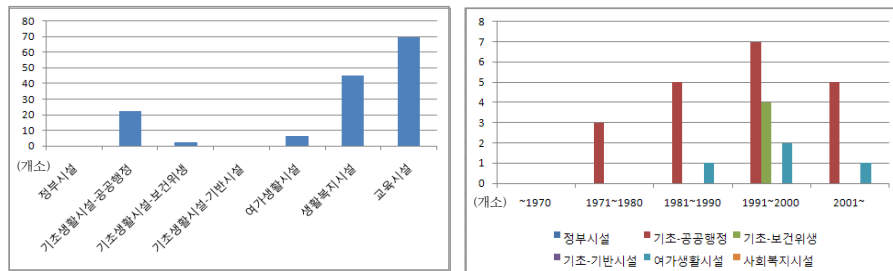


〈그림 37〉 제천시내 중심지역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⑤ 울산시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내 공공건축물의 비율은 교육시설이 70여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활복지시설, 공공행정시설, 여가생활시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조사 지자체들과 비슷하다. 다만 광역시의 일부 지자체로서 정부시설과 기반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기별 공공건축물 현황을 살펴보자면 1970년대 이후로 공공행정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 여가생활시설과 1990년대 보건위생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가생활시설은 최근까지 꾸준히 건립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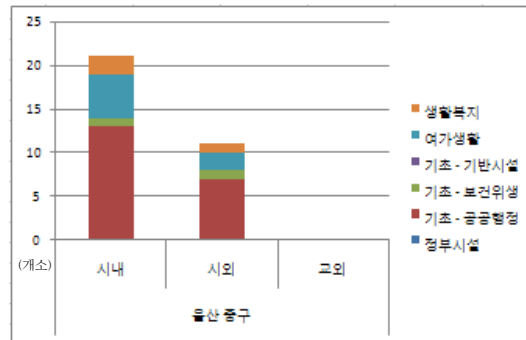


〈그림 38〉 울산시 중구내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39〉 울산시 중구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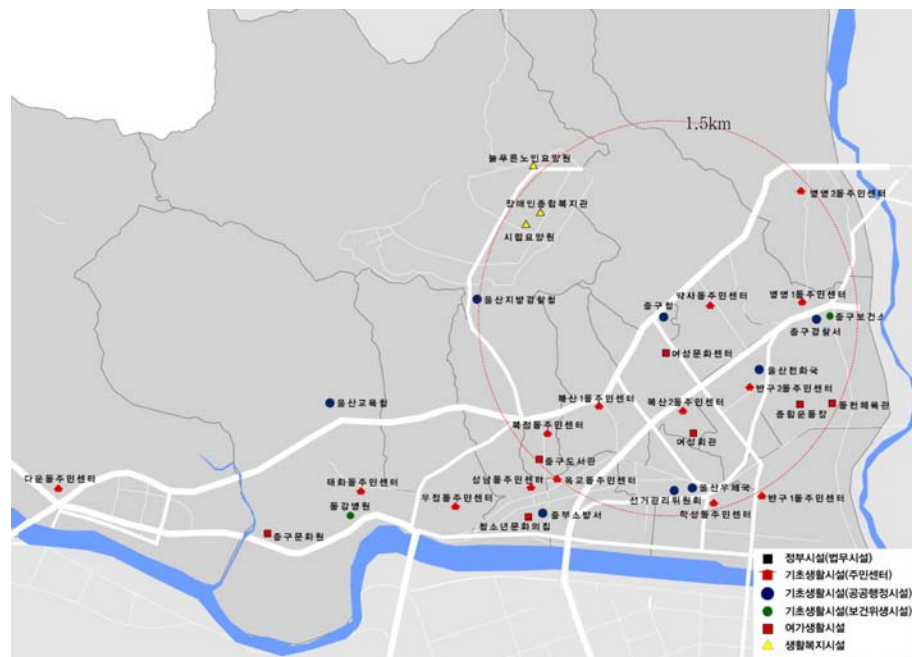
〈표 24〉 울산시 중구내 시기별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

시설구분 \ 년도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정부시설	0	0	0	0	0
기초-공공행정	0	3	5	7	5
기초-보건위생	0	0	0	4	0
기초-기반시설	0	0	0	0	0
여가생활시설	0	0	1	2	1
사회복지시설	0	0	0	0	0

중구내 공공건축물을 중심시가지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 결과 도시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비교적 시내외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위치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다만 시외지역에 비해 시내지역에 좀 더 많은 수의 공공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0〉 울산시 중구내 지역별 공공건축물 구성 현황



〈그림 41〉 울산시 중구내 공공건축물 분포 현황

(4) 시설별 공공건축물 면적 비교

① 정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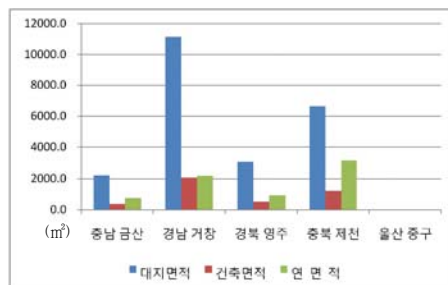
시설별 공공건축물 면적을 비교한 결과 정부시설의 경우 거창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지면적이 월등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천시가 그다음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면적 또한 2,000㎡ 이상으로 거창군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제천시가 1,236㎡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기타 지자체는 1,000㎡이하로 비교적 소규모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면적은 제천시가 가장 크며, 거창군이 두 번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5〉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면적 비교

정부시설 면적(㎡)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2214.0	11146.0	3113.0	6652.6	0.0
	평균	2214.0	11146.0	3113.0	6652.6	0.0
	최소	2214.0	11146.0	3113.0	6652.6	0.0
건축면적	최대	390.9	2092.3	541.1	1741.3	0.0
	평균	390.9	2092.3	541.1	1236.8	0.0
	최소	390.9	2092.3	541.1	732.3	0.0
연면적	최대	752.9	2349.1	922.7	4376.0	0.0
	평균	752.9	2183.6	922.7	3197.3	0.0
	최소	752.9	2018.1	922.7	2018.7	0.0
건폐율	최대	17.7	18.8	17.4	13.1	0.0
	평균	17.7	18.8	17.4	12.0	0.0
	최소	17.7	18.8	17.4	11.0	0.0
용적률	최대	26.8	32.9	27.6	31.2	0.0
	평균	26.8	32.9	27.6	30.8	0.0
	최소	26.8	32.9	27.6	30.3	0.0
개수		1.0	2.0	1.0	2.0	0.0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체로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천시가 12%대로 가장 낮은 건폐율을 보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15~20%의 범위를 나타낸다. 용적률은 거창군과 제천시가 30% 이상의 규모이며 이는 대지면적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큰 규모의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43〉 5개 지자체간 정부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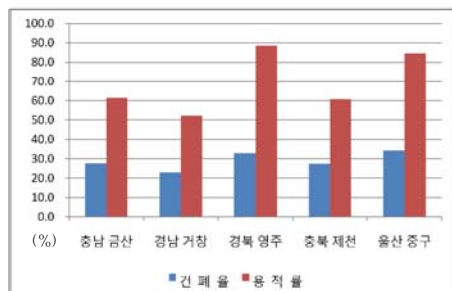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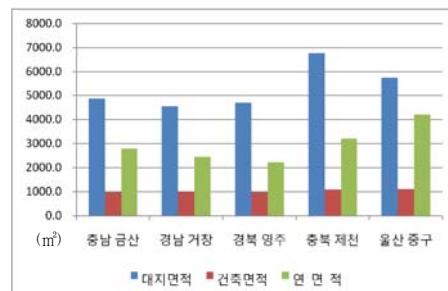
② 공공행정시설

공공행정시설을 비교한 결과, 대지면적은 제천시가 6,770㎡로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울산시 중구가 5,700㎡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건축면적은 대체로 1000㎡내외에서 균등하게 유지되는 반면 연면적은 울산시 중구가 4,000㎡ 이상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대략 2,000~3,000㎡ 범위의 연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면적 비교

기초-공공행정시설(㎡)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16757.0	7011.1	22224.0	46160.0	36400.0
	평균	4859.7	4542.9	4690.8	6769.2	5751.4
	최소	331.0	2167.0	459.0	449.3	493.0
건축면적	최대	2178.2	1553.2	2318.1	4397.0	5657.7
	평균	972.2	995.3	973.0	1101.5	1114.4
	최소	116.3	459.9	216.3	227.9	92.4
연면적	최대	7823.8	4015.9	8805.1	14512.0	29745.5
	평균	2786.6	2458.0	2228.6	3211.5	4203.4
	최소	174.9	996.7	179.2	469.6	444.8
건폐율	최대	42.2	36.1	63.0	51.7	59.6
	평균	27.7	23.0	32.8	27.5	34.2
	최소	8.6	13.9	10.4	7.0	8.1
용적률	최대	98.5	86.0	315.1	111.9	150.9
	평균	61.5	52.2	88.7	60.8	84.7
	최소	17.5	28.6	29.5	20.8	33.9
개수		8.0	8.0	20.0	17.0	20.0

건폐율은 30% 내외에서 비슷하게 건립되고 있는 반면, 용적률은 영주시와 울산시가 80% 이상으로 큰 용적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기타 지자체는 60%선에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45〉 5개 지자체간 공공행정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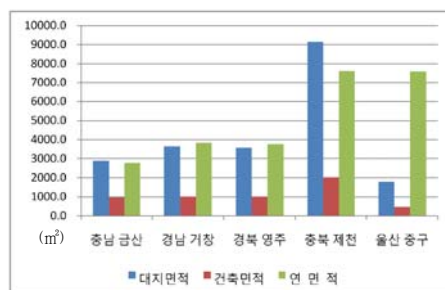
③ 보건위생시설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제천시가 평균면적에서 월등하게 높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조사대상 지자체에 비해 대규모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중구 또한 대규모 병원이 입지하고 있어 높은 연면적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7〉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면적 비교

기초-보건위생시설(㎡)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3653.0	5770.0	4968.0	19063.0	4557.0
	평균	2892.3	3645.3	3585.0	9159.6	1794.3
	최소	2191.0	2023.0	2522.9	934.0	395.0
건축면적	최대	2178.2	1180.6	1268.0	3329.2	888.4
	평균	972.2	1022.5	1013.9	2025.7	459.4
	최소	116.3	739.4	838.7	478.4	235.3
연면적	최대	7823.8	5222.9	6123.6	11161.1	23278.4
	평균	2786.6	3831.3	3765.0	7631.7	7597.5
	최소	174.9	1412.0	1576.0	2425.4	1420.3
건폐율	최대	42.2	37.6	50.3	51.2	59.6
	평균	27.7	31.3	30.9	34.7	46.1
	최소	8.6	19.9	16.8	17.5	19.5
용적률	최대	98.5	128.9	225.1	308.6	363.7
	평균	61.5	86.6	112.9	139.7	245.7
	최소	17.5	64.9	42.9	45.9	56.8
개수		4.0	3.0	4.0	5.0	4.0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용적률은 울산시 중구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6〉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47〉 5개 지자체간 보건위생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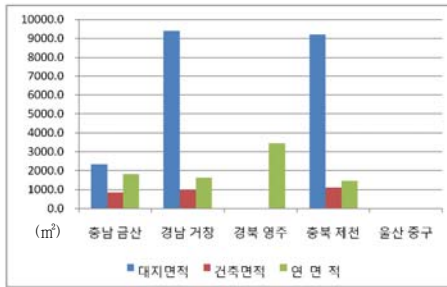
④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비교 결과 대체로 지자체는 3개 이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거창군과 제천시가 가장 큰 대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시간 이동교통수단의 발전 정도와 비례하여 기반시설의 규모가 확보되어 있으며, 교통에 의한 원활한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로 충분한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영주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연면적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그 규모는 기타 도시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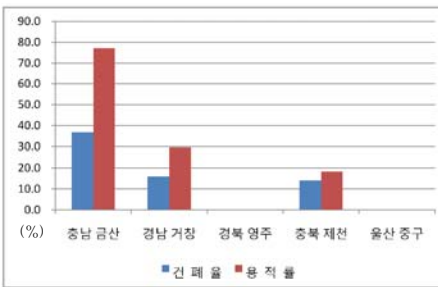
〈표 28〉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면적 비교

기초-기반시설(㎡)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2344.0	9420.0	0.0	16802.0	0.0
	평균	2344.0	9420.0	0.0	9230.5	0.0
	최소	2344.0	9420.0	0.0	1658.9	0.0
건축면적	최대	861.6	1495.5	0.0	1952.8	0.0
	평균	861.6	994.4	0.0	1114.2	0.0
	최소	861.6	493.2	0.0	275.5	0.0
연면적	최대	1808.6	2785.7	5781.6	2455.7	0.0
	평균	1808.6	1639.5	3440.8	1454.5	0.0
	최소	1808.6	493.2	1100.0	380.1	0.0
건폐율	최대	36.8	15.9	0.0	16.6	0.0
	평균	36.8	15.9	0.0	14.1	0.0
	최소	36.8	15.9	0.0	11.6	0.0
용적률	최대	77.2	29.6	0.0	22.9	0.0
	평균	77.2	29.6	0.0	18.3	0.0
	최소	77.2	29.6	0.0	13.7	0.0
개수		1.0	2.0	2.0	3.0	0.0

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금산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가 대규모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도시가 대규모 도시에 비해 기반시설의 이용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차량 대기공간이나 수리공간, 주유공간에 해당하는 외부공간이 훨씬 작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49〉 5개 지자체간 기반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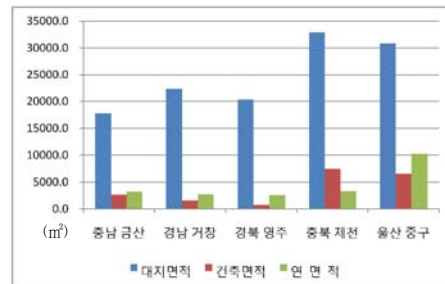
⑤ 여가생활시설

여가생활시설의 경우 대지면적 평균은 제천시와 울산시 중구가 30,0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대체로 17,000㎡ 이상의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연면적 평균에서는 울산시 중구가 10,000㎡ 이상으로 가장 크고 건축면적 평균은 제천시와 울산시 중구가 비슷하게 비교적 큰 규모로 조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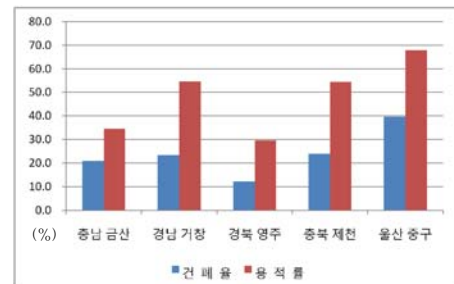
〈표 29〉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면적 비교

여가생활시설(㎡)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65112.0	67628.0	61783.0	114875.0	113602.0
	평균	17789.8	22299.6	20370.9	32936.4	30862.0
	최소	1717.0	1013.0	1493.4	344.5	2645.0
건축면적	최대	7120.6	3420.2	1284.3	22092.0	22137.2
	평균	2671.8	1575.4	721.1	7443.4	6549.8
	최소	486.2	292.7	404.6	287.1	906.6
연면적	최대	10570.1	5337.6	8805.0	6735.0	32200.7
	평균	3263.0	2750.5	2599.6	3335.1	10279.6
	최소	528.5	928.4	808.4	817.1	1686.0
건폐율	최대	32.8	46.6	27.1	83.3	59.7
	평균	21.0	23.4	12.2	23.9	39.7
	최소	6.3	3.3	0.7	3.5	19.5
용적률	최대	50.3	121.3	75.3	245.2	126.3
	평균	34.5	54.5	29.7	54.4	67.9
	최소	9.0	6.6	1.3	6.1	26.5
개수		11.0	7.0	9.0	12.0	4.0

울산시 중구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조사대상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주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 중구가 대도시라는 지역적인 여건상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여가 생활시설들이 외부보다는 실내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는 반면, 영주시는 여유 있는 대지면적의 확보가 가능하여 외부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0〉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51〉 5개 지자체간 여가생활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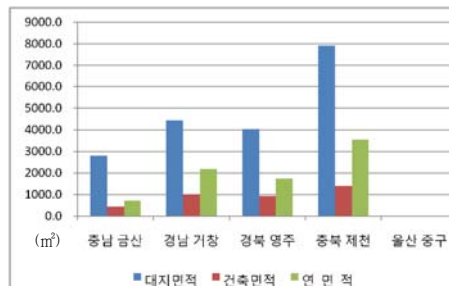
⑥ 생활복지시설

생활복지시설은 제천시가 가장 규모가 커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창군, 영주시, 금산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시 중구는 생활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도시권 일수록 생활복지시설로의 공공건축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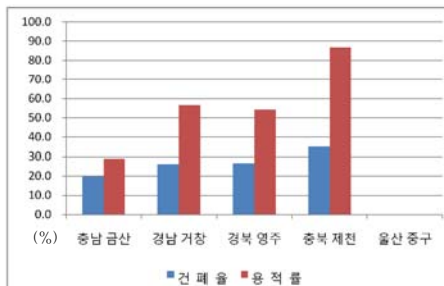
〈표 30〉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면적 비교

생활복지시설(㎡)		충남 금산	경남 거창	경북 영주	충북 제천	울산 중구
대지면적	최대	7219.0	6380.0	5084.0	27144.0	0.0
	평균	2807.9	4431.3	4042.5	7925.7	0.0
	최소	454.0	2631.0	3001.0	330.6	0.0
건축면적	최대	1420.0	1129.9	1185.9	4954.3	0.0
	평균	442.9	1006.9	943.6	1392.9	0.0
	최소	95.0	790.1	701.3	221.3	0.0
연면적	최대	2990.3	2806.6	3209.9	10945.9	0.0
	평균	726.5	2188.4	1749.1	3536.1	0.0
	최소	174.7	1190.4	50.0	568.9	0.0
건폐율	최대	31.0	42.9	39.5	67.0	0.0
	평균	19.7	26.2	26.7	35.2	0.0
	최소	8.3	17.3	13.8	12.6	0.0
용적률	최대	40.8	96.1	76.1	157.9	0.0
	평균	29.0	56.6	54.1	86.8	0.0
	최소	11.2	17.2	32.2	37.9	0.0
개수		7.0	3.0	5.0	8.0	0.0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어, 생활복지시설은(울산시 중구를 제외) 지자체의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평균 면적 비교



〈그림 53〉 5개 지자체간 생활복지시설 평균 건폐율/용적률 비교

(5) 중심 시가지로의 접근성에 의한 공공건축물 분포현황 비교

① 시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개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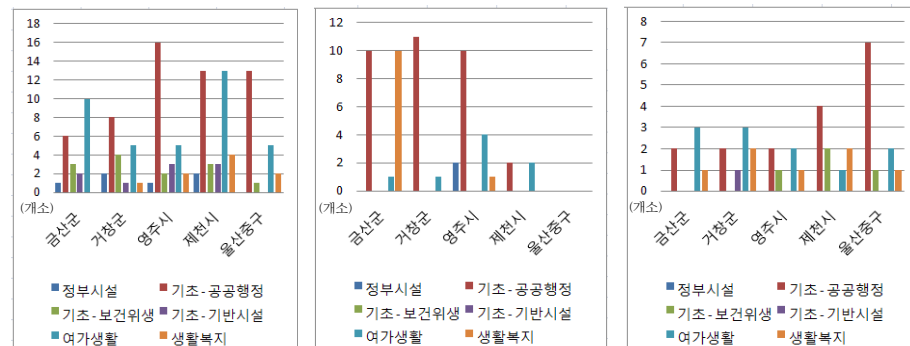
각 조사대상 지역의 공공건축 분포를 중심시가지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모두 시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은 공공행정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가생활시설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은 공공건축물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금산군과 거창군의 경우, 보건위생시설, 영주시의 경우 기반시설, 제천시와 울산시 중구의 경우 생활복지시설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시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개수 비교

시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은 인구규모가 큰 제천시와 울산시 중구가 공공행정시설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인구규모가 작은 거창군과 금산군은 여가생활시설이 다른 조사대상 지역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공공행정시설과 여가생활시설이 같은 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복지시설과 여가생활시설은 비교적 모든 지자체에 균등하고 나타나는 반면 보건위생시설은 영주시를 포함한 인구수가 많은 제천시와 울산시 중구에서만 시외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교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개수 비교

교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은 공공행정시설이 모든 지자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가생활시설이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만 금산군에서는 생활복지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주시에서는 정부시설이 일부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4〉 5개 지자체간 시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그림 55〉 5개 지자체간 시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그림 56〉 5개 지자체간 교외에 위치한 공공건축물 비교

4) 실태결과 종합

(1) 공공건축물의 중심지역 편중화

5개 지자체의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시내, 시외 지역을 포함한 중심지역에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이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건설되는 공공건축물은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보다 토지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시외에 입지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수는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도농통합이나 산업구조상 인구에 비해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교외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가생활시설, 생활복지시설의 수요 증가

조사대상 지자체의 전체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이를 조사한 결과, 여가생활시설과 생활복지시설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로 건립과 증개축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계획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동시에 이 결과는 앞서 정책 동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문화복지향상 프로그램 구현의 도구로써 공공건축물이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공행정시설은 1990년대 이후 증개축 현황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공청사를 비롯한 노후 공공행정시설의 증개축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교육시설, 주민지원센터 등을 통한 공공건축 거점화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과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일정지역 규모 단위로 균등하게 분산되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더불어 교외지역으로 벗어날 경우 공공건축물의 전반적인 공급이 부족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센터와 같은 공공행정시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 주민지원센터가 교외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와 공공건축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점으로 가능성이 높은 잠재시설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정책현황에 밝혔듯이 공공건축물의 연계화 경향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두 가지 시설이 공공건축물 사이의 연계 거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계획

지자체간 공공건축물의 비율이나 건립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면적규모나 건폐율/용적률의 경우는 동일 프로그램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프로그램별로 거대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공공건축물의 수요와 공급이 지역 규모보다는 대지상황, 인구구성, 기반산업, 지역사회 여건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운영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지역주민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6 공공건축 조성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1) 공공건축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화된 공급체계로 인한 지자체 자율성 확보 미흡

교정시설이나 특수의료시설, 일부 공공청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건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서비스 시설이므로 최종수요자(end-user)입장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건축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시스템 자체가 예산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적 시스템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적용을 들 수 있다. 공공건축은 건설과정에서 건축의 성능이나 품질을 검증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절차인 건축허가 절차 대신 관계기관 협의과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특례규정으로 건축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건설하는 공공건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주민의견공람,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²³⁾ 학교시설의 경우,

23)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 면담결과, 중앙정부가 건설하는 공공건축의 경우, 협의절차는 공문에 의한 문서행위를 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지자체가 건설하는 공공건축 또한 향후

2007년 12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건축협의, 심의 등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시행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 독단으로 학교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관료적 체계를 명시화하고 있다.

둘째,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중앙부처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체육시설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체육시설, 보건소 등은 설계과정에서 중앙부처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²⁴⁾

또한,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예산지원 대상 지자체의 관리·감독 수단으로서 독립된 시설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예산지원 결정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간 복합화나 새로운 공간계획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일례로 7개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12개 예산지원 프로그램을 모아서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여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금산다락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한 부처마다 독립된 시설과 공간기능을 설치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예산결산 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²⁵⁾

(2)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건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거점 기능 미흡

공공건축물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래 도시발전과 수요 예측을 토대로 수급계획 및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최종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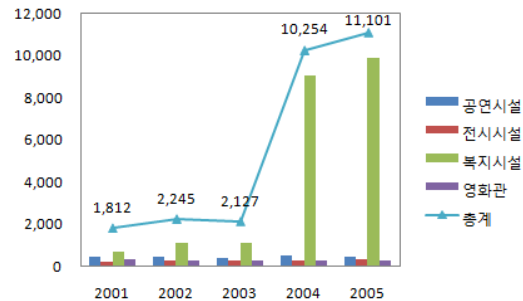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최종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조성되면서 따라 지역마다 획일적인 기능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건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예회관이나 생활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관련 공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등록을 위해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문서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자체 공공건축 담당자 면담결과, 2007.11~12

24)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관리능력과 지역 건축사의 품질저하로 인한 자구책이라고 담당 부처는 설명하고 있다.

25) 일례로 체육관리공단, 여성복지부 등 각 기관에서 모두 강당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다락원의 경우 중복된 기능은 설계과정에서 하나로 합쳐 규모가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각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복합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된 시설과 기능배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

급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시설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각 공공건축이 지자체를 대표할 만한 명소나 생활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의 중복과 과잉, 완공 후 잦은 보수, 시민선호 프로그램의 부재, 관리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조명래, 2007).²⁶⁾



- 공연시설 :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 복지시설 :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복지회관, 청소년수련시설

※ 출처 : 한국의 사회지표,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림 57〉 문화·전시·복지시설수 변화



〈그림 58〉 지역수요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Y시 체육관

또한,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행정담당자들의 전시행정과 더불어 타 지역과 경쟁적으로 최고 시설을 유치하려는 정책입안자의 특성화 전략은 공공건축의 대형화, 거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거대 규모의 공공건축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공공건축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²⁷⁾

(3) 결과물 중심의 기능적 생산체계로 인한 창조적 공간계획 미흡

공공건축이 일상생활의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사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갖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26)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는 공공건축이 화려하고 거대한 외양과 달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부재로 공공적 삶(문화, 복지, 여가, 교육 등)의 질 향상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명래, 앞의 책, p.16

27)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몇백 명의 대기자가 있기도 하며, J시의 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수요에 비해 시설공간이 부족하여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급반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공공건축 담당자 면담 결과, 2007.11

공간계획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공건축 조성과정은 학교, 도서관, 문예회관 등 그 자체의 목적만을 고려한 결과물 중심의 기능적 생산체제로 진행되면서 창조적 기능을 담기 위한 공간계획이나 신기술도입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특히, 문화관광부의 문예회관 건립지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건축이 연차별 일정규모로 배분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지원 기준에 맞추어 기획서를 작성,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로 인해 다음 표와 같이 공공건축 조성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사업타당성 등의 기획과정 대부분이 경제성, 사업성 평가 등 예산확보를 위한 행위에 치중되어 있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전기획단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초기 기획단계 대부분이 예산신청을 위한 절차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 31〉 입지 타당성 검토 내용

구분	예산확보단계		기획단계	
	투융자심사	지방채 승인심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주관부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사업부처
근거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예산회계법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대상사업	공공사업 중 재정부자 신청 대상	공공사업 중 재정부자 신청 대상	· 5백억 이상 건설 개발사업 · 국고 3백억 이상 민자 지자체사업	·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 있는 사업 · 1~5백억원 규모
실시시기	예산확보단계	예산확보단계	사업계획 초기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후 기본설계단계
내용	·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 재정경제적 효율성	· 원리금 상환 가능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 ²⁸⁾	· 경제 정책적 타당성 검토 · 필요시 개략적 환경성 검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중점
조사방법	-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약, 출연금으로 수행 · 용역 계약 없음	사업기관이 용역기관 선정, 개별용역계약 실시

※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p.56, 부분 발췌

이같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기획력과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관리
 리가 연계된 통합화된 공공건축 조성과정 없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기능적 생산체계는 창조적 공간계획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 더욱이 기능적인 공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관리체계는 지역주민에게
 공공건축이 매력적인 장소로 인지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생산
 체계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32〉 공공건축 설계변경 원인

사례	조성주체	기획단계	설계변경원인
제주 4.3평화 기념공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특별법에 의한 위령묘역조성 및 위령탑공원 건립, 사료관 조성 - 문화센터(4.3평화관)와 상징조형물 공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문제 등 중앙부처와 협의가 어려워 문화센터 건립 불투명
남원 국악의 성지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의 성지를 조성하여 국악을 관광 상품화하고 판소리 학습도장으로 활용 - 장인들의 납골묘 시설, 국악대학 유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시 누락된 사당 및 화장실 1동 설계 반영 - 기획당시 프로그램 검토 미흡으로 공사비 과다 지출 지적
문경 시립 노인전문 간호센터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지역 내 개발택지에 계획하여 특색 있는 병원운영 추진 - 병상수를 90병상으로 기획 - 온천 이용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의 진정 및 탄원 소송으로 공사 지연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추가 계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을 고려 병상수를 152병상으로 상향조정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에 기능성온천탕 추가 계획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	산업자원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상공회 의소 공동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기획단계에서 지하4층, 지상7층이던 건축물을 지하3층, 지상9~12층으로 대폭 수정 -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미흡하였으며, 사업성 검토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장 확대 - 사업 착수전 사업규모의 예측 잘못과 관련단체간의 협의 미흡으로 3차례 설계변경 추진
대전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설교통부 대전시 대덕 연구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특화도시로서 국제적인 과학관련 회의장소 제공 - 21세기 동북아 회의 및 관광산업 중심지로 육성 - 과학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확충 - 문화이벤트 행사를 위한 대회 의장에 공연기능 보강
고성 남북교류 타운 (DMZ박 물관)	통일부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평화의문, 남북교류센터 조성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촉매제로 역할 -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한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보조사업 규모 축소로 남북교류센터 단일사업으로 지원함에 따라 설계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의 책, pp.58-161

28) 김훈, 2002,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론, p.48

(4) 개별화된 공공건축 조성과정으로 지역내 시설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저하

기능적인 생산체제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은 상호 독립적이고 개별화된 체계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공공건축 생산체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설별로 적용받는 관련법과 기준이 상이하고, 개별화되어 있는 담당부서의 칸막이식 행정의 전형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특히,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결정하고 있는 교육시설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제로 인해 지자체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건축되고 있다.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교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이 지자체내 유사시설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과의 복합’이라는 또 다른 획일화의 전형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각 부서간 유사시설을 기획하거나 신축, 증개축 과정에서도 지자체내 칸막이식 행정으로 인해 지역내 공공건축물간의 기능중복과 시설간 이용계층의 단절을 유발하고 있다.²⁹⁾ 그 결과, 각 시설 가동률이 낮고, 시설의 일부 기능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표 33〉 ○○시 공공건축물 시설간 기능 현황 및 연계 가능성

공공건축시설	자료실	열람실	극장	강당	평생 학습실	귀빈실	전시실	회의실	휴게실	유관 기관 사무실
도서관										
시민회관										
여성도서관										
문화회관										
학생회관										
주민자치센터										

이러한 개별화된 공공건축은 토지와 공간의 유효이용을 도모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 다양한 기능의 집적 효과에 따른 사회통합을 실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9)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실태 조사과정에서 지자체내 공공건축을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없어 부서별 담당자를 별도 면담해야 했으며,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관련사업이나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담당자간에 정보교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 행정담당자 면담결과, 2007.11~12

(5) 미학적 관점에 치중한 설계로 인한 공공건축의 종합적 성능확보 미흡

공공건축은 그동안 조성과정의 권위성과 관료성으로 인해 공간디자인 또한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형태로 건설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공건축 품격에 대한 가치를 낮게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⁰⁾

또한, 공공건축 결정기준에서 보행동선과의 연계성,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및 계획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신축된 대부분의 공공건축이 중심시가지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성 시가지 및 주거지역과 거리가 먼 외곽지역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각 시설의 중심 건축물이 부지 안쪽 깊이 배치되어 있어 보행접근성도 낮다. 이와 같이 디자인 수준이 낮은 공공건축은 지역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59〉 보행자의 접근성이 낮은 공공도서관 〈그림 60〉 관료적인 공공체육관 건축형태

최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입찰에 의한 설계안 선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디자인 수준확보가 어렵다는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현상공모, PQ, 턴키 설계, BTL 같은 공개공모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철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공모지침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적 측면이 부각된 디자인 측면만 강조되어 프로그램개발과 유지관리, 건축물의 기본 성능확보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및 신에너지 사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력이 바탕이 된 실험적인 건축물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과 감사에 대비한 경직된 행정체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신진건축가 발굴이 공공건축에서부터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30) 200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 전문가들의 45.4%가 디자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48.9%가 보통수준이라고 답하고 있다. 백승만 외, 2007.12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한 초기예산 부족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과정에서 건축면적이나 시설들이 새롭게 계획되는 경우도 많고, 상대적으로 건설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공공건축의 선도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무주군의 경우, 향토박물관 설계시 프로그램 개발과 향토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콘텐츠 부족으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우수한 공간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거의 없어, 설계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접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향토박물관 건립 당시, 설계를 맡았던 정기용 건축가는 박물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주군에 지속적으로 제안하였고, 도로공사비에 쓰일 예산 중 일부를 콘텐츠를 채우는 데 반영하자고 건의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³¹⁾ 그 결과 향토박물관은 현재 이용객이 거의 없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관료적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을 통해 건축물 디자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의료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다는 긍정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외곽에 입지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³²⁾

이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져도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의 발굴이 결합되지 못하면 결국 지역주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건축 문제에 대한 원인

이상과 같이 공공건축의 문제는 공공건축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문제,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입안자, 행정가, 건축가,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과 역량의 문제, 프로그램과 설계, 유지관리, 운영을 연계하는 기획력 부재의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31) 정기용 건축가와 면담내용, 2007.11

32) 1994년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농어촌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거점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건소라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관리되고 있어 지역의 장소성과 결합되지 못함에 따라 입지문제와 주민이용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문제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법제도, 운영방식, 공공건축과 관련된 사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1)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부재

칸막이식 행정, 시설별 공공건축에 적용되는 산발적인 법체계와 관료적 운영은 공공건축을 전담하는 총괄관리체계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총괄관리체계의 부재는 국가자산이자 시민사회의 공유재인 공공건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여 각 시설에 대한 중복성, 사업타당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배정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획일적인 공공건축물이 산발적으로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처간, 부서간 조정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앙부처간 칸막이식 행정체계는 지자체 차원까지 파급되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건축을 일관된 체계로 관리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이로 인해, 부처별로 지원하는 소규모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하나로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렵다.

(2) 기획력 부재

공급자 중심의 공공건축과 기능적 생산체계 등의 문제는 공공건축 초기단계의 기획력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공건축은 시민생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 발굴과 사업타당성, 미래 지향적인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공건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맞추어 계획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잦은 설계변경과 사용 후 유지관리의 문제, 일부 공공건축의 사공간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건축에서 기획력이란, 무슨 기능을 유치할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주목하기보다는 무엇을 담아야 공공건축의 장소적 가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획력의 부재는 결국 공급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양산하고 기능적이고 관료적인 생산체계를 조장하고 있다.

(3) 공공건축 행정담당 조직의 전문성 부재

공공건축의 총괄관리체계 부재와 기획력 부재는 결국 공공건축 행정담당 조

직의 전문성 부족이 그 원인이다. 칸막이식 공공건축 행정과 조성시스템은 결국, 기획력을 갖춘 행정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며 선도사례를 확산시키지 못함에 따라 공공건축의 부정적 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전문성 부재는 결국, 지자체 담당자가 예산과 함께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에 종속하게 만들고, 중앙부처 또한 공공건축 전담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지침에 의한 행정중심의 관료적 행위를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전문가 활용 시스템 부재

최근,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건축설계과정에서 공모방식에 따른 설계안을 선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예산배정으로 인해 담당 부처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중심으로 기획서를 작성하거나, 기획능력이 없는 업체에 저비용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건축 조성 양태는 결국 기능중심의 시설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기획단계에서 각 시설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위원회와 같이 일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참여에 의한 전담조직 또한 관료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역생활과 유기적인 공간계획을 주도하지 못하고 권위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많다.³³⁾

(5)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부재

공공건축이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결과물 중심의 기능적 생산체제로 일관되고 있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예산편성,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설계, 시공, 운영관리 체계 등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33) 농어촌기술지원단에 참여하는 건축가는 의료관리연구원에 소속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위원회는 교육시설학회, 교육청을 중심으로 표준설계안 작성, 설계심의 등을 운영하고 있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건축은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만을 강조하는 성과관리로 인해 공공건축 담당자들로 하여금 지침에 없는 일은 가급적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도하며, 감사에 대비한 행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지역주민의 생활개선에 투입되고 지속관리되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³⁴⁾

결국,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부재는 관료적이고 기능적이며 개별화된 공공건축을 양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시민의 참여기회 부재와 공공적 삶의 방식 결핍

앞에서 언급한 공급자 중심의 공공건축 생산체제로 인한 관료화와 획일화, 개별화는 공공건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공건축의 이용주체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건축의 운영관리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의지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공적 자산인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를 사용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관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공공건축은 정부와 지자체, 이를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인 시민이 공통의 목적의식을 갖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협력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34) 다락원의 경우, 통합된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행정지침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감사를 받고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공무원들이 신념을 갖고 일을 하게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지 못하는 단적인 예이다.

IV.

국내외 공공건축 조성사례

1. 공공건축 통합화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기여 사례
2. 공공건축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사례
3. 기능쇠퇴 건축물 및 유휴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4.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전략 사례
5. 시사점

(a u r i

국내외 공공건축 조성사례

1 공공건축 통합화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기여 사례

1) 금산 다락원

(1) 개요

- ①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 금성면 일대
- ② 설계 : 임상관
- ③ 준공 및 개관 : 2004년
- ④ 사업비 : 310억원(국비 97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5억원, 기타 21억원)
- ⑤ 규모 및 시설 : 지하 1층, 지상 3층(일부 4층), 생명의 집(공연장), 건강의 집(보건소), 만남의 집(사무실), 문화의 집(문화원), 장애인·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농민의 집, 야외공연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 ⑥ 부지면적 : 53,122㎡
- ⑦ 연면적 : 21,203㎡

(2) 추진배경

금산군은 ○○년도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정도시 금산'을 군정 목표

로 채택하고 문화예술, 복지증진 등 풍요로운 삶의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금산의 랜드마크(landmark) 건립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금산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복지, 체육 시설이 부족하거나 기존 시설이 낙후하여 군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기능이 취약하다는 현황진단을 하고 새로운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하되,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복합 다기능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추진조직 및 과정

금산군 다락원 건립은 군수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지를 행정력으로 실천한 사례이다. 기획단계에서는 안상관 소장의 조언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개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금산군에서는 당시 7개 중앙부처(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부, 행정자치부, 농업진흥청, 마사회,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12사업 예산을 하나로 결집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금산군 담당부서 공무원 7명이 동시에 정부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였고, 종합관리를 위해 지원금액이 가장 많았던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지원금은 모두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다락원의 설계발주에서 준공, 운영관리까지 전담하였다.

재정확보는 각 부처의 지원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설계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설계안은 현상공모와 안상관 소장의 안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진행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한 중앙정부의 부처별 요구조건에 따라 당선안이 계속 변경되었다. 특히, 예산지원 조건이 대부분 독립된 건물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간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 담당부처의 설계 심의시 각 부처에서는 제시된 설계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함에 따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난항을 겪기도 하였다.³⁵⁾ 이에 따라 건축가는 각 예산지원에 따른 시설(여성의 집, 군민의 집, 농민의 집 등)을 분절시키되 1층과 2층에서는 공용공간을 브리지(bridge)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각 중앙부처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간의 이해대립과 의견조율은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였고 행정담당자와 건축가의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7개 중앙부서 12개 단위사업을 통합한 국내 최초의 사례를 선도적으로 실현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이는 군수의 의지와 이를

35) 금산군 다락원 건립시 담당 행정가와 건축가 면담 내용, 2007.11

실현하기 위한 행정담당자, 행정적인 요구를 건축적으로 해결한 건축가 개인의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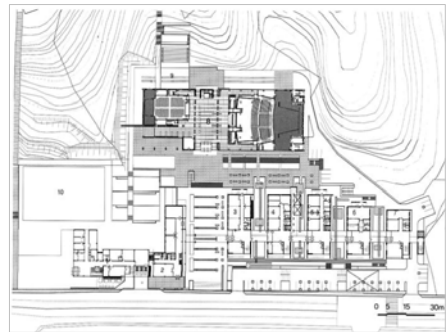
(4) 기획 및 계획의 특성

금산 다락원은 기획과정에서 금산군에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군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커뮤니티 복합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현상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각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기획에 충실한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복합화와 주민지원시설을 하나의 단지로 건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한 장소에서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접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새로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프로그램과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다락원이 지역생활의 거점으로 작용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61〉 금산군 다락원 전경

출처 : http://www.auric.or.kr/user/kmsb/GISdata/805/img/d_img/805_1d.jpg



〈그림 62〉 다락원 배치도

출처 : http://www.auric.or.kr/user/kmsb/GISdata/805/img/b_img/805_3b.jpg



〈그림 63〉 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클러스터 계획

출처 : http://www.auric.or.kr/user/kmsb/GISdata/805/img/b_img/805_2b.jpg



〈그림 64〉 다락원 내부 모습(기능간의 연계를 위해 설치된 보행교)

출처 : http://www.auric.or.kr/user/kmsb/GISdata/805/img/b_img/805_5b.jpg

(5)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금산 다락원은 12개 중앙부처의 지원금액을 하나로 결집하여 건립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 준공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산을 지원한 각 부처는 독립된 건물을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정산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행정처리가 완료된 이후, 금산군은 다락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04년 7월 30일 정식으로 금산 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향상과 문화예술,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건립한 금산 다락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준공 이후, 모든 시설은 금산군으로 이관되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산군에는 다락원이라는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53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하였다. 이 중 29명이 공무원이며,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해 기획담당 전문원을 특채하였다. 다락원의 업무는 관리, 사업, 복지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분야는 다락원의 외부시설을 관리하며, 사업 분야는 생명의 집 운영 총괄·대관 업무, 복지 분야는 행정,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으로 나누어 관리·운영한다. 다락원의 모든 운영비는 군비로 지원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평생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3명의 평생교육사를 육성하고, 약 20개의 운영기관 및 약 299개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통합관리체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관리비 절감 효과라는 부가적인 성과를 갖게 된다.

(6) 성과 및 효과

다락원은 각 부처의 예산을 하나로 모아 복합화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간 이해 대립과 각기 다른 행정지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락원 건립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설을 통합하고 복합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개선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락원은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각 공공건축의 복합화를 통해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실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금산 다락원은 2005년도 한국건축가협회에서 한국 건축물 베스트 7에 선정되는 등 언론에서도 집중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부각시켰으며,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런던 페컴도서관(Peckham Library)

(1) 개요

- ① 위치 : 122 Peckham Hill Street, London, SE15 5JR
- ② 준공 및 개관 : 1999년 준공, 2000년 개관
- ③ 건축주 : Southwark Council, Education & Leisure Services
- ④ 디자인 팀 : Alsop Architects
- ⑤ 재정지원 : Southwark Council SRB Programme(Government Office for London via Peckham Partnership)
- ⑥ 건설비용 : 510파운드(건축); 총675만 파운드

(2) 추진배경

런던 Southwark 북 페컴지역에 위치한 페컴도서관은 Southwark 자치단체가 슬럼화된 페컴지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건설한 복합커뮤니티형 도서관이다. 북 페컴지역은 임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대부분의 노후주택지와 마찬가지로 가구수 감소와 지역경제 쇠퇴로 인한 슬럼의 진행으로 사회적 배제(social deprivation)현상이 심화된 지역 중 하나였다.

이에, Southwark 자치단체는 1994년 시작된 중앙정부의 단일재생회계(Single Regeneration Budget) 프로그램³⁶⁾을 지원받아 북페컴지역의 정비사업을 추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3,000세대의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1,400세대의 임대주택을 재건하였고, 지역이미지 개선과 지역내 범죄감소를 위해 페컴광장과 같은 공공영역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3) 추진전략

페컴도서관은 1930~40년대에 파이어니어 건강센터(Pioneer Health center)에서 시작한 ‘공공공간을 통한 자유의지에 의한 질서만들기’의 일환인 ‘페컴실험’³⁷⁾의 이념을 바탕으로 둔 페컴광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페컴광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레저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으로 계획되었고, 페컴도서관은 예술단체와 스튜디오 등 ‘미디어테크(Mediatheque)’ 개념을 결합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재정 압박에 의해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 시설만을 복합화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페컴도서관은 ‘사람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 주는 역동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이 기본철학이었으며 이는 모든 계층에게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페컴지역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36) SRB 프로그램은 영국의 낙후지역 재생 프로그램으로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커뮤니티 재생이라는 슬로건에 의해 지자체가 정비프로그램을 정부에게 제출하면 지자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1994년 발표된 이후,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에 7차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37) ‘Peckham Experiment’ : 남부 런던 페컴에 있는 파이어니어 건강센터(Pioneer Health center)에서 한 실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0년전 다른 의사들처럼 질병을 연구하는 대신 건강의 본질, 건강한 행위의 본질을 연구하고 싶었던 일단의 내과의사와 생물학자들이 설립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사교클럽을 만들었다. 가족단위로 회원가입을 받았고,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에 동의하면 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바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인간을 관찰해야 한다고 페컴의 생물학자들은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이곳에는 규칙도, 제약도, 리더도 없었다. 설립자 Scott Williamson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8개월은 혼란 그 자체였다”, “맨 처음 가입한 회원 가족들 중에는 버릇없는 아이들이 무더기로 있었다. 아이들은 넓은 런던 거리를 활보하듯 온 건물 안을 헤집고 다녔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혼란 대신 질서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수영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가끔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였다.” 페컴의 실험에 관한 중요한 몇몇 보고서들 중의 하나에서, John Comerford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어떤 사회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 놓이면 그 사회는 자구책을 찾아낼 뿐 아니라 강요된 리더십이 결코 흥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들의 화학을 만들어 낸다.”, John Comerford, Helth the Unknown : The Story of the Peckham Experiment(London 1947), Innes Pearse and Lucy Crocker, The Peckham Experiment(London 1943)

러한 계획은 Southwark 도시재생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페컴지역 실행계획(Peckham Area Action Plan)의 전략을 반영한 것이었다. 공간계획전략으로는 첫째, 공공영역과 보행로를 연결하고 공적영역으로 전면부를 개선하는 것이며, 둘째, 공공영역의 보완을 위해 공공영역과 다른 건물을 서로 연결하여 개발할 것, 셋째, 레저와 커뮤니티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페컴광장과 Wharf 지역 주변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명기하고 있다.³⁸⁾

(4) 사업추진조직

기획단계에서는 PM인 Southwark 도서관 협회의장 Adriam Olsen에 의해 Southwark 의회의 재정담당 사무관, Peckham Partnership의 대표자, 디자인 팀 Alsop Architects가 전략적인 발주팀으로 구성되어 공공협의회를 통해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기획을 하였다.

(5) 계획특성

페컴광장의 일환으로 계획된 도서관은 광장과 도서관의 일체화를 위해 대지에서 들어올리도록 계획되었고, 공공의 리프트와 계단을 통해서 도서관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에서 건축물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형태는 가로에서 페컴광장의 경관이미지를 제고시켜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게 하며, Peckham Hill St.와 Peckham High St.를 교차하는 통행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러한 개방된 건축형태와 함께 오렌지 색상의 '베레모' 형태와 'LIBRARY'라는 글자가 지붕선을 더욱 활기차게 보여주고 있다.

페컴광장의 정비는 페컴도서관과 인접한 커뮤니티 아트센터를 포함하여 페컴광장을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는 배경이 되면서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정비 재생에 성공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³⁹⁾

38) Peckham Area Action Plan, pp.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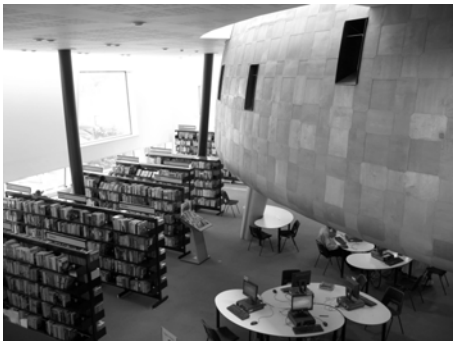
39) <http://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231> 참조



〈그림 65〉 페컴도서관 전경



〈그림 66〉 페컴광장에서 접근성



〈그림 67〉 페컴도서관 내부

(6)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은 영국정부의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10년 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독서와 교육, 디지털 기술, 서비스, 커뮤니티와의 결속력을 통한 공공의 가치제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서의 촉진과 비형식적인 교육', 'e-government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소외를 억제하고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성립시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페컴도서관의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독서토론 모임을 갖는 'Peckham Library daytime book group⁴⁰⁾'이 있으며, 규칙적으로 독서 후 토의를 함으로써 책을 찾거나 비평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Teenage reading groups' 등이 있다. 또한 가족 그룹에서 아이들을 위해 신간을 미리 보관하거나, 퀴즈같은 특별한 이벤트 등을 열기도 한다.⁴¹⁾ 특히 여덟 살부터 열두 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Chatter Books

40) 출처 :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bookgroups.html>

Reading Group'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가족들과 함께하고 독서를 하기 위한 'Family reading groups'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은 다양한 클럽활동을 통해 숙련된 스태프(staff)들과 봉사 자원자들로부터 필수적인 공부를 배울 수 있다. 'Homework Help Clubs'에서는 무료로 학생들을 위해 1대 1로 도와주고 있으며, 'Children's activities'에서는 공휴일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활동교실을 운영하고 여름에는 재미를 가미한 독서도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Education Library Service⁴²⁾'도 있다.

(7) 관련제도

페컴도서관의 운영프로그램은 영국정부가 10년 계획으로 발표한 '좋은 공공 건물' 정책에 의해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혁인 '좋은 공공도서관(Better Public Libraries)'에 근거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도서관 종류와 디자인 평가지표 (Design Quality Indicate) 제안⁴³⁾과 좋은 디자인의 조건⁴⁴⁾ 등이 제시되고 있다.

41)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 Peckham Library Chatter Books last Thursday of every month 4.30 to 5.30. Contact Susan Sierra.

42) 출처 :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edlibraryservice.html>

43) DQI는 건물 디자인 평가방법이다. 이것은 다양한 단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것의 목적은 프로세스로부터 전문적 반응을 억제하고, 진행요원, 최종 사용자와 적절한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이용되어 왔으며, 영국의 새로운 도서관을 위한 제안도 포함하고 있다, 'Better Public Libraries', p.26

44) 좋은 디자인의 조건은 Character, Continuity and Enclosure, Quality of the public Realm, Ease of Movement, Legibility, Adaptability, Diversity로 제시하고 있음

새로운 도서관 경향(CABE, 2000)

1. 각각의 도서관들은 그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개발한다.
2. 미래의 도서관들은 다른 서비스들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개발될 것이다.
3. 적절한 내부 디자인, 통과동선, 접근성, 서비스 시간 등은 건물 배치와 디자인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 독서 개발과 문학적 능력 개발은 커뮤니티에 도서관이 제공하는 더욱 중요한 중심기능이 될 것이다.
5. 도서관들은 이동 인구(mobile population)를 위한 중요한 대화의 센터가 될 것이다.
6.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에 오래 머무는 것은 친절하고 충분한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화장실, 매점, 조용한 놀이방 등이 필요함
7. 집과 도서관 사이의 전자적 연결이 증가할 것이다.
8.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는 도서관으로서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은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9. 가상 도서관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될 것이다.
10. 도서관 사서들은 그들의 역할을 문화적 관리인에서 지식의 네비게이터(navigator)로 변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The Prime Minister’ s Better Public Building Award⁴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측면이나 도서관 서비스의 조달 면에서 모두 훌륭한 도서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CABE와 HM Treasury가 스폰서이고, 공공섹터를 대표하거나 공공섹터를 위임하는 도서관 관련 프로젝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⁴⁶⁾

또한 공공도서관 수상제도(Public Library Building Award)⁴⁷⁾는 2년마다 ‘the Public Libraries Group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와 ‘Information Professionals’가 시행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이나 개조(conversion), 개축(refurbishment)한 건물들에게 수상하는데, 도서관 디자인과 외관(내부와 외부 모두), 커뮤니티에 대한 영향, 서비스의 질, 수용가능성과 발전가능성⁴⁸⁾을

45) www.betterpublicbuildings.gov.uk

46) ‘Better Public Libraries’, p.15

47) <http://www.cilip.org.uk/groups/plg/plg.html>

보고 시상한다.

(8) 성과 및 효과

페컴도서관은 건축주, 건축디자이너, 그리고 사용자들에 의해 가장 성공적인 공공건축물로 평가되었으며, 런던 여행의 목적지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다.⁴⁹⁾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의 성과로 미디어에 대서 특필되었고 문화부, 미디어, 스포츠 비디오에서 ‘시민의 Network’로 각광받게 되었다.⁵⁰⁾ 건물 사용자는 매년 5만명 이상이며, 이로 인해 페컴광장 주변의 범죄율도 많이 감소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⁵¹⁾

페컴도서관은 준공 이후 정부에서 수여하는 2000년 Stirling Award 수상(건축적 신기술), 2001년 Cooper Cladding Award 수상(외피 디자인), 2002년 4월 Civic Trust Award 수상(우수 공공건축물)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고, 2002~03년에 317,000건 이상이 기사화⁵²⁾되었다.

3)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

(1) 개요

① 위치 : 2-1, Kasuga-cho, Aoba-ku, Sendai, Miyagi, Japan

② 건축개요⁵³⁾

- 대지면적 : 3,948.72m²

- 건축면적 : 2,933.12m²

- 연 면 적 : 21,682.15m²

48) 'Better Public Libraries', p.15

49) Alsop Architects는 페컴도서관을 두고 'civism'의 접근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공장 소란, 당신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누구나 어디인지 명칭을 알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장소이다."

50) 출처 : <http://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231>

51) 출처 : <http://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231>

52) 학교 수업시간 이후로는 학생들로 채워지는데, Southwark의 도서관들은 성인에게나 10대들에게 모두 독서나 문학적 작업의 장소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있다. 도서관 내의 다양한 공간들과 매우 긴 이용시간으로, 다양한 그룹의 유저들에게 균형을 맞추어 제공되고 있다.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peckhamlibrary.html>

53) 출처 : <http://www.smt.city.senfai.jp/en/smt/about/character>

- 규 모 : 지하 2층 + 지상 7층
- 최고높이 : 36.49m
- 구 조 : 강구조 + 부분적으로 RC 구조
- ③ 시 공 비 : 약 13억엔
- ④ 개 관 일 : 2001년 1월 26일
- ⑤ 시설개요
 - 1층 플라자 : 조젠지도리 거리에서 공공 아트리움으로 접근
 - 2층 안내 : SMT(Sendai Mediatheque) 입구
 - 3~4층 도서관 : 시민도서관⁵⁴⁾
 - 5층 갤러리 3300㎡ : 고정벽 전시 공간(3.3m 천정고)
 - 6층 갤러리 4200㎡ : 가변벽 전시 공간(4.2m 천정고)⁵⁵⁾
 - 7층 스튜디오 : 시청각 자료실, 정보수집실, 작업실⁵⁶⁾

(2) 추진배경 및 특성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도서관, 갤러리, 영상도서관, 시청각장애자 정보제공이라는 네 가지 기능의 복합시설로 1997년 12월 17일 착공해 2000년 8월 10일 완공한, 센다이시를 상징하는 테이젠지(定禪寺) 도오리에 건설된 ‘복합문화센터’이다. 다분야의 의견 조율과 협의를 거쳐 6년 만에 완공된 이 공간은 예술과 감성적인 매체, 서적, 여타 데이터 소스와 같은 지적인 매체 등은 물론, 전자적

-
- 54) “smt의 3층과 4층은 센다이시의 시민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100만 정도의 총 인구중 하루 3500명 정도가 이용)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 같다. 여전히 정보의 중심에 책이라는 미디어를 놓고 있다는 점에서 덜 디지털적일 수 있겠지만, 센다이시의 모든 연령을 커버한다는 정책상에서는 가장 적절한 전략임에는 분명하다. 실제로 전체 층을 둘러 보며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출처 : <http://media.egloos.com/217143>에서 발췌
- 55) “6층은 가변형 벽으로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 공간이다. 갤러리 4200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 역시 공간의 높이 때문인 것 같다. 이곳은 주로 smt의 큐레이터들이 기획을 한 전시를 유치하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출처 : <http://media.egloos.com/217143>에서 발췌
- 56) “3, 4층은 대비적, 보완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을 스튜디오라 이름 붙여진 미디어 라이브러리이다. 180석 규모의 영화상영 공간과 영상, 음향 라이브러리, 그리고 출판, 영상, 음향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었다. 재미있던 것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상 제작 워크숍을 한 후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도록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시민제작 다큐멘터리로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하게 하였다. 한국에서도 rtv와 같은 곳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국이나 시민 단체가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내용을 짜고 취재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시민적인 제작 방식이 아닐까 싶다.” 출처 : <http://media.egloos.com/217143>에서 발췌

인 시청각 매체 같은 새로운 매체들을 함께 제공하는 공간이며 시민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⁵⁷⁾

이를 위한 계획개념으로는 “최근의 지식과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유동적으로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며, 종착점(terminal)이 아니라 거점(node)으로서의 잠재적 네트워크를 극대화하고자 하였고, 모든 사람들(장애인, 사용자, 제공자, 그리고 다양한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건물”이다.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갤러리나 극장과 같이 공연·전시를 위한 공간제공, 스튜디오와 워크숍과 같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최근의 지식과 정보 제공, 그리고 어느 누구나 정보를 수집·분석·편집·전송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 68〉 센다이 미디어테크 외부



〈그림 69〉 센다이 미디어테크 1층 로비



〈그림 70〉 센다이 미디어테크 library



〈그림 71〉 센다이 미디어테크 multimedia library

(3) 성과 및 효과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복합문화센터’로서 개관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지역활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역전센터에서 미디어테크를 연결하는 상가몰 정비가 탄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57) http://www.ar-chi.com/magazine/view.php?id=Series_JHS_Japan&no=18

공공건축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사례

2

1)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MOCA(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A)

(1) 개요

- ① 위치 :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250 South Grand Avenue,
Downtown Los Angeles 90012, CA, USA
- ② 건축가 : 아라타 이소자키(磯崎新 Arata Isozaki, 1931~)
- ③ 규모 : 지상 4층, 지하 2층
 - 대지면적 : 3,700m²
 - 연 면 적 : 9,060m²
 - 전시면적 : 2,276m²
 - 수장규모 : 전체 유물수는 40만점이며 이중 10만점이 전시
- ④ 재정조달 : 1,250만 달러의 민간 모금으로 시작되어 커뮤니티 재개발
기구(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의 기금과 연방재
정 기금으로 충당⁵⁸⁾

(2) 추진배경

이 지역은 로스엔젤레스 시 당국에 의해 벙커힐(Bunker Hill)지구 빈민촌을
정화하기 위해 생겨난 곳으로 당초 재개발 계획에는 미술관 계획이 없었는데

58) 1979년 Beverly hills Hotel에서의 정책기금 조성 행사에서, LA 시장 Tom Bradley, 지방 의원 Joel Wachs와 지역 자선사업가 Marcia Simon Weisman이 모여서 도시에서 현대 미술관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직후에 Mayor's Museum Advisory Committee가 결성되었다. William A. Norris가 이끄는 이 협회는 자금제공자, 수탁자, 관리자, 큐레이터, 갤러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술 수집가 등의 후원으로 이 미술관의 건립에 착수하였다. 그해, LA의 MOCA는 Boyd St.에 사무실을 냈다. 시의 가장 뛰어난 자선 사업가들과 미술품 수집가들이 Board of Trustee로 결집되었고, 그 첫해에 1,000만 달러의 기금목표를 달성하였다. Richard Koshalek이 큐레이터 소장이 되었고, 예술가들과 갤러리들이 함께 관계를 맺었으며, 전시공간과 예술작품 보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Museum_of_Contemporary_Art,_Los_Angeles

미술 수집가인 마사 와이즈만이 제시한 전략이 시장(市長)에게 받아들여져 현대미술관 건립을 실현하게 되었다. 설계자 선정을 위해서 50명의 세계적인 건축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고,⁵⁹⁾ 이들의 자작(自作) 슬라이드를 소개한 후 최종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아라타 이소자키가 결정되었다. 현대미술관은 MOCA의 자매관으로 경찰서 건물을 개조해 건축한 것이다.⁶⁰⁾

(3) 추진전략

병커힐 도시재생 프로젝트(Bunker Hill Urban Renewal Project)는 북쪽으로 First St., 동쪽으로 Hill St., 서쪽으로 Harbor Freeway에 이르는 133acre의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1950년대 후반부터 도심내 주거, 호텔, 상가 등의 4/5가 공가로 남아 기능쇠퇴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역이었다. 이에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는 이 지역을 25개의 대단위 발전구역으로 나누어 새로운 도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언덕 상부와 인접한 평지를 연결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해 다양한 상업지, 업무지, 주거지 개발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는 지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켰으며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장소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병커힐 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MOCA는 새로운 지역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고 인근에 경찰서 건물을 개조한 현대미술관을 개관함으로써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LA에서 새로운 문화지역을 보도하고 현대미술 영역에서 극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위치를 다운타운(downtown)에 입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4) 계획특성

1979년 MOCA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1986년 일본 건축가 아라타 이소자키가 피라미드, 원기둥, 정육면체를 조합하여 설계한 이 건물⁶¹⁾은 박물관 건물로도 흥미를 끌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미국 건축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건물 중 하나가 되었다.

4.5ha 부지에 설립된 이 건물은 캘리포니아 플라자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 캘리포니아 플라자의 예산 1.5%가 박물관에 기부되도록 LA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별관⁶²⁾은 리틀 도쿄(Little Tokyo) 부근에 있으며, 전시실은 공간이 넓고

59) 50명에 케빈 로치(Kevin Roche), 에드워드 번즈, 리처드 마이어(Richrd Meier), 제임스 스티어링(James Stirling), 프랭크 게리(Frank Gehry), 아라타 이소자키(磯崎新) 등이 포함됨

60) <http://www.ci.la.ca.us/>

61) MOCA Grand Avenue

천장이 높으며 이전의 경찰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외관이 독특했다. 현재 MOCA와 이곳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운행중이다. 건물의 내부에는 유리를 이용한 피라미드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며, 1940년대 이후 전위 미술계 각 유파의 유명한 작가들을 비롯하여 아마추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매년 MOCA에서는 상설전시를 비롯하여 특별전시까지 20개가 넘는 전시회를 추진하는데, 각 전시회들은 페인팅, 조각, 스케치뿐만 아니라 비디오, 사진, 영상, 음악, 댄스, 디자인, 건축 분야까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건축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MOCA Grand Avenue는 1986년 겨울에 개관한 중심 건축물로 2,300만 달러의 기금을 CRA(the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에서 받아 시공된 건물이다.⁶³⁾

The Geffen Contemporary는 시의 창고와 경찰서 차고였던 건물을 임대하여 개축한 것으로 Frank O. Gehry에 의해 3층의 천장고와 넓게 개방된 거실 공간으로 섬세하게 리노베이션(renovation)되었다. MOCA측에서는 이 건물을 2038년까지 50년간 LA시로부터 임대를 연장하여 사용하기를 요청하였고, 1986년 초기에 이러한 요청이 승인되어 1996년에 시는 임대기간을 더 늘리기로 하였다. 이에 MOCA는 500만 달러를 The David Geffen Foundation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대미술관(Temporary Contemporary)은 '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라는 명칭으로 새로 명명되었다.⁶⁴⁾

MOCA at The Pacific Design Center(2000년)에 MOCA가 3,000ft²의 전시공간을 Pacific Design Center에 오픈한 것으로 이곳에서는 신진 및 중견작가들의 새로운 작품들뿐 아니라 주요 전시회에 따른 부수적인 프로그램들도 전시한다. MOCA는 또한 공공 프로그램을 위한 384석의 오디토리움(auditorium)으로 이용되고, Pacific Design Center는 Cesar Pelli & Association에서 120만ft²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 디자인하였다.⁶⁵⁾

(5) 운영프로그램

현대미술을 다루는 환상의 시설로 계획된 MOCA는 초대관장으로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의 관장이었던 폰투스 험텐(Pontus Hulten)을 선임하였다.

관장은 MOCA를 도서관이기 이전에 지역커뮤니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다

62) The Geffen Contemporary at MOCA

63) 이는 공공미술 조성에 대해 법적으로 CRA의 전체 예산의 1.5%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임

64) 출처 : http://www.moca.org/museum/us_popup_history_1.php 번역

65)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Museum_of_Contemporary_Art,_Los_Angeles 및 http://www.moca.org/museum/us_popup_history_1.php

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첫 일요일은 가족의 날(First Sundays are for Families)’이라는 프로그램은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오후 1시~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가족단위의 워크숍으로 상호대화 형식으로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시에서 선택한 작품들에 대해 ‘집중조명’하여 관람자적 시점에 기초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본 작품을 토대로 가족이 협력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기획하고 교육하는 혁신적 과정에 기초한 워크숍으로 갤러리의 실험으로 확장되었으며, 뮤지컬 공연, 전위예술, 그리고 다른 다양한 방식의 작품과 함께하는 특별한 활동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학교와 커뮤니티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이벤트인 ‘대가족의 날(Big Family Day)’이 매년 봄에 진행되고 있다. 세 번째, ‘현대 10대 예술가(TOCA, Teens Of Contemporary Art)’는 자신의 경력을 위해 현대 미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개방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월 열리는 고등학생 자문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주제와 이슈를 제기하면 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 MOCA Apprenticeship Program(MAP)은 소규모의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룹을 위해 지원하는 작가들 중심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중, 9개월에 개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교육을 원하는 실습생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MOCA의 스텝들 및 외부 예술가들이 매주 만나서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6) 성과 및 효과

MOCA는 현대미술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에 의해 기획단계부터 설계, 프로그램 개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결정된 사례로서 전위예술의 전시, 대중적 행사 등을 통해 현대미술의 실험적 장소가 되었다. 또한, MOCA는 재개발과정에서 기획된 공공건축물로 상업지, 업무지, 주거지 개발과 함께 공공문화 프로그램이 접목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빌바오 구겐하임(the Guggenheim Museum Bilbao)⁶⁶⁾

(1) 개요

- ① 위치 : 스페인 빌바오 레르비온 강가
- ② 설계 : 미국 건축가 프랑크 게리⁶⁷⁾
- ③ 건설비 : 바스크 정부가 부담하고, 미술관은 바스크 주정부의 소유가 됨
- ④ 규모 및 시설
 - 부지면적 : 32,700㎡
 - 건축면적 : 28,000㎡
 - 연 면 적 : 24,000㎡
 - 전시공간 : 10,560㎡(20실)
 - 공공공간 : 2,500㎡
 - 기타시설 : 도서관, 극장, 사무실, 뮤지엄 스토어, 레스토랑 및 카페

(2) 사업추진배경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비스카야 주의 주도(州都)이며 철강, 조선, 기계, 화학 공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이다. 빌바오는 1975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공황기의 영향을 받아,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1980년대부터는 철강산업의 쇠퇴와 함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내분에 따른 테러로 사회적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빌바오 시는 도시재건을 위해 각종 컨퍼런스와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타국의 산업도시 재건 프로그램의 선례를 빌바오에 재현하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다. 1991년 바스크 정부는 쇠퇴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구겐하임미술관을 유치하였다.

66) 주택도시연구원, 200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전략,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위원회, pp. 85~88 참조, 재정리

67)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20세기 인류가 만든 최고 건물'이라는 극찬을 받음

(3) 사업추진 조직

문화도시조성을 모토(motto)로 도시재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빌바오 시는 1991년 민관협력체인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을 조직하고, 1992년에는 개발공사인 'Bilbao RIA 2000'을 설립하였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조직(Body of Public Utility)'으로 법률적, 재산권적으로 100% 독립된 협회이며, 빌바오 대도시권에서 전문적인 업무 및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적 또는 민간조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된다. 또한 'Bilbao RIA 2000'은 정부계 공동출자회사로써 공공사업 기관, 경제부와 그 관계기관(공공기관인 토지공사), 빌바오 항만국, 철도공사로 구성된 중앙정부의 행정기관과 함께 바스크 주의 행정기관이 함께 설립하였다. 'Bilbao RIA 2000'의 설립목적은 쇠퇴하는 빌바오의 공업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도시계획 및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Bilbao RIA 2000'의 이사장은 빌바오 시장이 되며, 부이사장은 국가 개발부처 도시기반 및 교통장관이 맡고 있다.

(4) 추진전략

빌바오 재건사업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약 35만㎡의 중심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기념비적인 문화시설의 건립을 통한 문화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항만시설 및 컨테이너용 철도역, 조선소가 입지하고 있던 항만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거점으로 수변공원, 국제회의장, 콘서트홀, 호텔 등의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심지내 문화스포츠 시설, 빌바오 도서관 등을 연결하는 문화 네트워크를 실현함으로써 낙후된 구도심을 문화도시로 재건하는 데 있다. 특히, 미술관을 중심으로 신공항 및 지하철망, 고속도로망과 같은 교통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방문객 유치를 위한 종합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레저 및 비즈니스, 주택, 녹지정비 등 항구 주변의 공공공간 정비를 병행하여 빌바오 구시가지의 재생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5) 계획특성

구겐하임 미술관은 수변에 '메탈 플라워(Metal Flower)'로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티타늄 금속 패널이 조각품처럼 서 있어 기존 빌바오 시의 도시문맥에 새로운 컨텍스트(context)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전통 이미지가 아닌 현대 감각의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한 사례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명소로 부각되었다. 전체 형태는 사면이 각기 다른 조각물

을 보는 듯하며, 신선하고 역동적인 외부형태가 그대로 내부공간에 반영되어 공간자체가 시각적 체험의 대상으로 인지되고 있다.

또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공항에서 빌바오 시로 접근하는 주요 고속도로에서 랜드마크적 요인으로 작동하며, 주간과 야간이 서로 다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빌바오의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림 72〉 빌바오 구겐하임 서측전경



〈그림 73〉 빌바오 구겐하임 동측전경

출처 : http://www.arttravel.co.kr/data/arttour/arttour01_6_14

출처 : <http://blog.joins.com/kimkuk76/6090871>

(6) 운영 및 프로그램

‘세계 각국에서 거점만들기를 통해 세계적 미술관 그룹을 창조한다’고 하는 구겐하임 재단의 정책은 빌바오 시의 제안내용에 부합하였으며, 구겐하임 재단과 빌바오 시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기본 합의를 전제로 미술관을 건설, 운영하고 있다. 이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구겐하임재단이 참여하여 설계,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가 총괄적으로 계획되어 건축물 공간계획에 반영되었다. 미술관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20세기 예술 전문도서관 및 카페·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스크 정부가 정치·문화적 지원을 담당하고,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이 예술 소장품 기증, 특별 전시 프로그램 지원, 박물관 운영관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7) 성과 및 효과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의 성과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경제용어를 탄생시킬 만큼 바스크 주의 경제활동 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미술관 사업으로 1997년

부터 2001년 사이에 투자액의 10배 이상의 수입을 얻었고, 연간 1억 6,000만 달러의 관광수입과 1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는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제공과 주택정비사업을 병행함으로써 대형 문화공간 조성이 단순히 외부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거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4〉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의 경제파급효과

(단위 : 100만 유로)

구분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전체
직접 소비	40,5	190,4	202,8	192	150	775,7
GDP 성장	31,5	148	168,3	157,5	150	655,3
고용	832	3,906	4,161	4,415	3,937	4,100
국고 수입	5,9	27,5	29,3	27,8	27	117,5

※ 김효정 외, 2008,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관광문화연구원, p.101

3) 나가사키 Urban Renaissance

(1) 개요

- ① 위치 : 나가사키 항 중심시가지
- ② 면적 : 1,120,000m²
- ③ 프로듀서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NUR(Nagasaki Urban Renaissance) 2001' 구상

(2) 사업추진배경

나가사키 기성 시가지는 나가사키 항을 중심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만에 투영된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지형은 지역발전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고도성장기 이후, 나가사키 중심부에는 도시기능의 집중, 교통혼잡, 공원녹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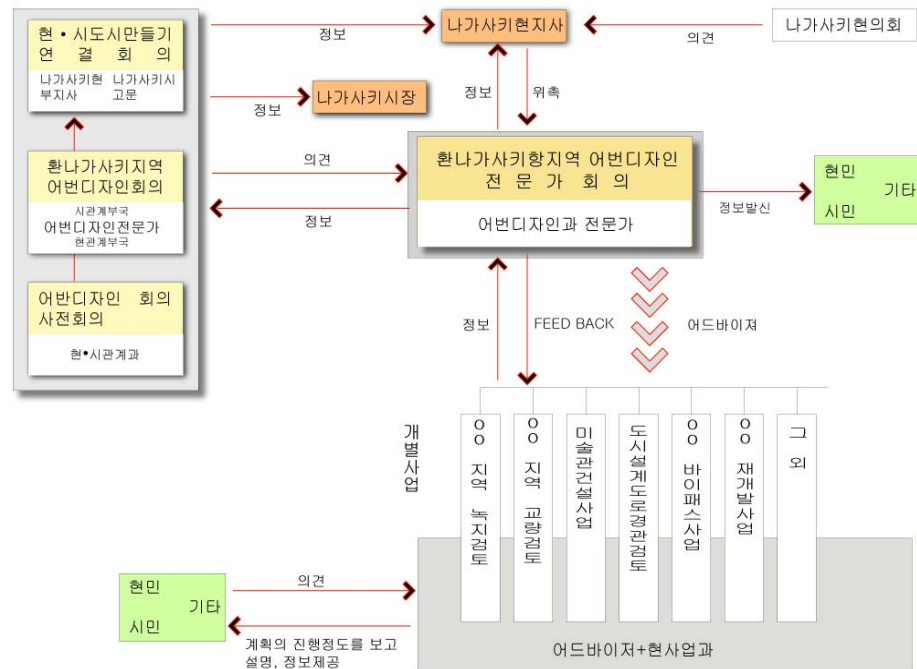
의 오픈스페이스 부족 등으로 도시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조선, 수산, 관광 수입이 줄면서 도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나가사키현은 도심·임해부에 입지한 대규모 공장과 항구 기능이 이전함에 따라 나가사키 도시재생을 위한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인 나가사키 도시부흥(NUR, Nagasaki Urban Renaissance)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 학계, 행정인 60인으로 구성된 구상책정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동안 정비구상을 검토한 뒤 1986년에 계획을 책정하였다. 나가사키현은 NUR 사업의 추진을 위해 프로듀서로 호리이케 히데토(堀池秀人)를 선임하였고, 그는 사업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해 국내외 유수한 건축가를 나가사키로 초청하는 이벤트로서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비구상과정에서 렘 쿨하스(Rem Koolhaas)를 비롯한 유명 건축가가 모인 아이디어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구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지 않고 건축가들의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나가사키항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NUR 사업의 시작으로 렘 쿨하스는 나가사키항 터미널과 창고 설계를 하였고, 이후 공원과 미술관 등의 공공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초 NUR 사업은 200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최근까지 진행 중이다.

(3) 추진전략

‘NUR 2001’은 항만재개발을 통해 컨벤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프로젝트를 구상하였고, 그 일환으로 컨벤션 시설 프로젝트 추진, 물과 녹지의 도시환경 프로젝트, 문화시설 군 프로젝트, 도심형 주택 프로젝트, 고도업무지구 프로젝트 계획을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희이전적지가 나가사키의 새로운 문화복합지구로 재생되었다.

(4) 사업추진조직

NUR 사업추진을 위해 나가사키현은 마을만들기 추진과를 중심으로 도시디자인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사업추진방향과 각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 검증을 수행하였다. 도시디자인 전문가 회의에서는 공모에 의한 설계자 선정 및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최근 나가사키현의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로 정착되었다.



〈그림 74〉 나가사키현 어반디자인(urban design) 조직구성 및 운영

(5) 사업내용

NUR 사업 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2005년 4월 나가사키시 강변 숲 공원 일각에서 개관된 나가사키현 미술관이다. 이는 ‘스마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 발표의 장으로서, 전국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는 주민 갤러리와 함께 주민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아틀리에를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지역주민 모두가 부담없이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지역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나가사키시의 스와노모리에 개관된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은 해외교류사를 테마로 하여 약 48,000점에 이르는 근세 나가사키의 귀중한 역사자료, 미술공예품, 고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75〉 나가사키현 현립미술관

출처 : Nagasaki urban design system 홍보자료, 2007

(6) 성과 및 효과

NUR 사업은 기능쇠퇴 도심공공공간의 재생을 통해 나가사키현에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경직되고 고정적인 도시관리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유연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여 융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나가사키 도시재생사업은 마스터플랜이 없는 행정가의 전략 마스터플랜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기능쇠퇴 건축물 및 유흥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1)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1846~1847년 후기 고전양식으로 건설된 함부르크의 역사는 1884년까지 기차역으로 사용되었고, 1906년까지 교통건축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1945년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그러나 1987년 베를린 탄생 750주기를 맞이하여 건물의 일부를 재건하여 전시회를 열고, 다음 해에 차이틀로스(Zeitlos)라는 대규모 현대미술전이 이곳에서 열려 성공하게 된다.

이후, 서독국은 이곳을 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건축가 J.P.클라이후즈에 의뢰하여 1996년 기존 건물을 개축하고 양측면에 새로운 공간을 덧붙여 지금의 미술관으로 조성하였다.



〈그림 76〉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출처 : http://www.arko.or.kr/bodo/online_news/2006/news_1026_1.htm

2) 발틱 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런던의 타인강(River Tyne) 주변의 쇠퇴지역인 게이즈헤드(Gateshead) 지역에 입지한 발틱 현대미술센터는 제분공장의 곡물창고를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조성한 사례이다. 이는 1998년 게이즈헤드 자치단체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을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와 경제개발로 연결한 프로젝트이다.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권자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신규토지를 찾는 대신에 지역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장창고를 택함으로써 지역문화형성과 쇠퇴하는 지역의 장소를 재생시키는 이중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발틱 현대미술센터는 2002년에 미술관뿐 아니라 음악당, 타인강에 의해 단절되었던 마을을 연결하는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역재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발틱 현대미술센터는 개관 후 6개월 이내에 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였고, 부대효과로 1,500 세대의 신규주택과 5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림 77〉 발틱 현대미술센터

출처 : <http://www.balticmill.com/images/mmlimages/general/ABOUT39.jpg>



〈그림 78〉 발틱 현대미술센터와 연계된 밀레니엄 브리지

출처 : http://www.idomin.com/news/photo/200711/236468_184387_4432.jpg

4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전략 사례

1)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1) 개요

- ① 위 치 : 무주군 공공건축 30여개
- ② 시설종류 : 무주군청사 리모델링, 등나무 운동장, 부남면사무소, 별보는 집, 농업인 회관, 무주시장 현대화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원, 무주 보건의료원, 서창 향토박물관, 곤충박물관, 버스 정류장, 복합 노인 복지시설, 노인 전문요양원, 납골당 등
- ③ 사업시기 : 1995~2006년
- ④ 총괄건축가 : 정기용

(2) 추진배경

무주군은 1995년 당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상권이 약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역정책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에 당시 군수는 무주지역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초기에 무주군수는 무주군 마을회관 기공식에 참석하여 건축가 정기용을 만나게 되는데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던 당시 무주군수와 지역성을 중시하는 정기용의 건축관이 결합하여 10여년 동안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가 일관성있게 진행되었다.

(3) 사업추진조직 및 과정

무주군에서 10여년 동안 공공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공식 조직은 없었으며, 무주군수의 강력한 권한과 의지, 그리고 건축가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시설을 담당하는 발주부서와 시설 담당부서가 칸막이식 행정에 의해 구분되어 있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군수가 직접 정기용 건축가에게 자문을 얻거나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수의계약이 어려운 우리나라 공공발주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수

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몇 단계로 나누어 각 건축물의 설계발주가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칸막이식 행정체제에서는 전례없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0년 동안 한 사람의 건축가가 30여개 이상의 공공건축을 설계하였고, 이는 통일된 도시환경 조성과 새로운 지역이미지 창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무주군의 공공건축의 사례는 지역 발전과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회적 코디네이터로서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예이다.

(4) 계획특성

무주 공공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면민의 집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시설로서 단순한 면사무소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서 기획되었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중 목욕탕과 주민집회실의 기능을 복합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였다. 면사무소 건립을 통해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회복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조성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무주의 공공 프로젝트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공간계획에 반영하였다. 이는 최종 결과물보다는 프로세스에 주목한 공공건축 조성방식의 실천적 사례이다.



〈그림 79〉 증축으로 천문대를 설치한 무주
부남 면사무소



〈그림 80〉 주차장을 공용마당으로 조성한
무주군청사

(5) 성과 및 효과

무주군의 사례는 사회적 코디네이터로서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행정편의적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건축의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선도적 사례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한 의미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무주군수의 퇴임과 함께 공공건축의 통합화된 디자인 방식도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와 행정조직의 변화 없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KAP, Kumamoto Artpolis Project)

(1) 개요

- ① 위 치 : 일본 규슈(九州) 중앙 구마모토(熊本)현
- ② 면 적 : 약 7,215.3km²
- ③ 인 구 : 약 186만명
- ④ 사업기간 : 1988년~현재
- ⑤ 사업목적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구마모토현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 풍토를 살려 후세에게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문화건축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구마모토현만의 독자적인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⑥ 사업시행 근거 : KAP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사항인 KAP 실시요강과 KAP 사업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KAP 실시요강에 근거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추진배경

자연환경이 우수한 구마모토현은 1980년대 중반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신일본 철소비료주식회사와 미나타타 공장 등에서 배출한 유기수은으로 인해 연안수자원과 환경이 오염되어 미나타타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도시 구마모토의 지역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당시 구마모토현 지사인 호소가와 지사는 이러한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던 중에 1987년 베를린국제 건축전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고, 그곳에서 공공프로

젝트를 통한 도시이미지 창출의 가능성을 발굴하였다. 당시 지사는 베를린 국제건축전에 참가하였던 아라타 이소자키에게 자문을 구해 구마모토에도 베를린과 같은 사업추진을 기획하게 되었다. 호소가와 지사는 베를린 국제건축전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재생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마모토에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1988년에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아라타 이소자키를 초대 커미셔너(commissioner)로 선정하여 KAP 사업 전반의 기획과 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커미셔너제도의 도입은 당시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위원회 방식과 현상공모방식에 의한 건축가 선정방식의 한계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었다.⁶⁸⁾

(3) 추진전략

KAP 사업기획의 추진전략은 첫째,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도시박람회 및 주택전시회 등의 국제적인 행사추진과 병행하여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도시경영 및 문화산업을 연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새로운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젊고 유능한 건축가들을 기용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있고 풍요로운 도시건축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이다. 세 번째 전략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만들기 방식에서 착안한 것으로 건축물들의 양적인 집적을 바탕으로 점, 선, 면의 확대효과를 통한 도시형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 전략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기존의 주택지개발에서 벗어나 업무, 상업, 오락, 거주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도시개발을 추진하되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을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략의 목표는 첫째,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창조하고, 둘째,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셋째, 커미셔너가 추천하는 재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건축가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며, 마지막으로 구마모토현 전역으로 KAP 사업 취지를 확산시켜 구마모토현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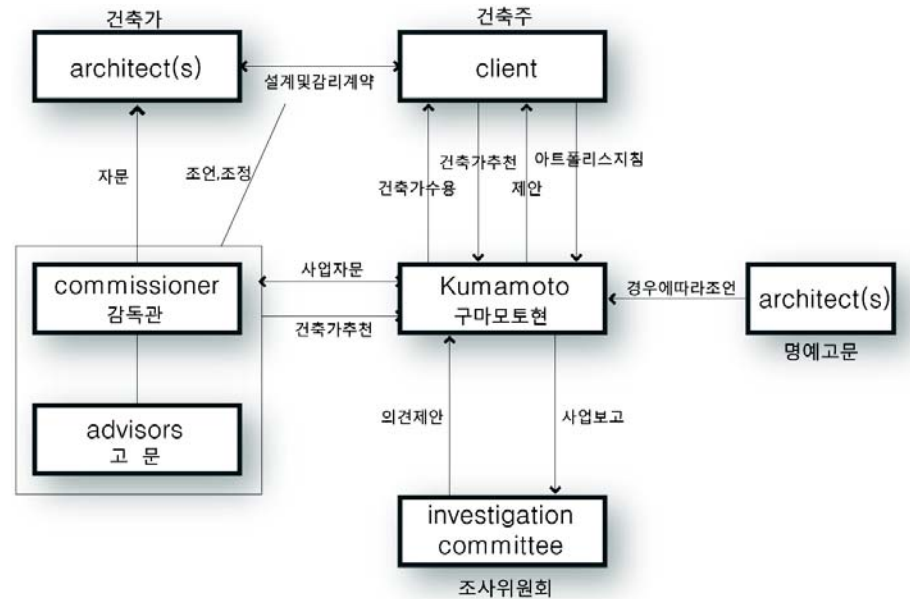
68) 당시 일본에서 공공사업 발주방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설계자 선정방식은 위원회 방식이었다. 호소가와 지사는 위원회 방식에 의한 설계자 선정은 최종적으로 보편 타당한 무난한 안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며, 표준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아래, 다양한 건축물을 통한 개성있고 활력있는 도시창조를 위해 커미셔너 방식을 도입하였다. 2007.12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담당자 면담 결과

(4) 사업추진조직

① 사업추진조직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사업기획단계부터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구마모토현 토목부 건축과에 프로젝트 전담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사업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무국은 사업기획에 대한 자문과 건축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인 커미셔너를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커미셔너에게는 연 1억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공공건축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시 건축, 토목, 행정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어드바이저(adviser) 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중요 사안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커미셔너는 3대째 이어지고 있으며, 1기 KAP 커미셔너인 아라타 이소자키(1988~1995)에 이어, 2기는 다카하시 테이이치(1996~2004)가 역임하였고, 현재 3기 커미셔너로 이토토타(2005~)가 활동 중이다. 초대 커미셔너는 당시 지사인 호소가와 지사의 추천으로 선임되었고, 2기 이후는 선임 커미셔너가 추천하고 지사가 선임하는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림 81〉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조직

② 참여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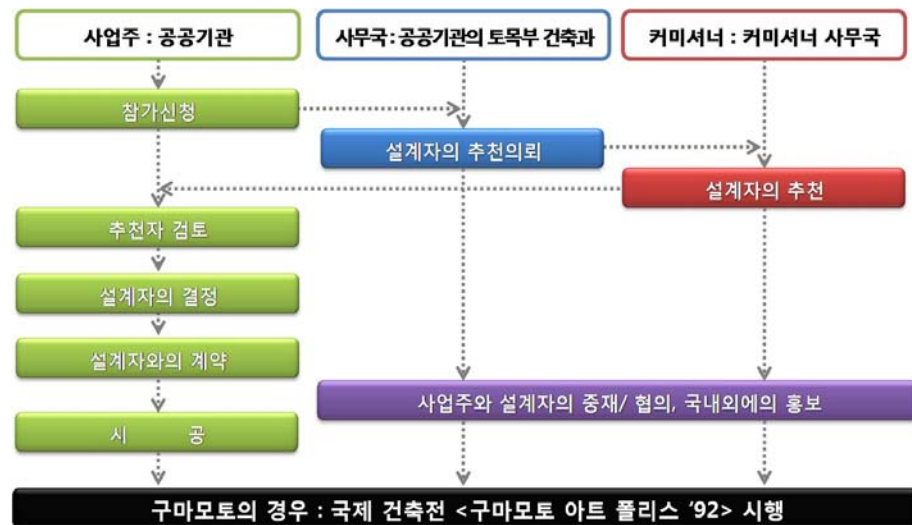
KAP 사업의 주체는 구마모토현이지만 공공프로젝트의 수준향상을 위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커미셔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에서는 커미셔너에게 건축가 선정과 사업참가주체 결정 등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 참여하는 주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35〉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참여주체 및 주체별 역할

참여자	역 할
커미셔너와 커미셔너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기획, 프로젝트의 설계 위탁방식 제안 및 설계자 추천, 사업주 및 설계자에 대한 조정 및 판정 · 커미셔너 사무국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을 담당하고 건축과 도시관련 워크숍을 개최
어드바이저와 어드바이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수행시 논의가 필요한 의제가 올라오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 · 어드바이저(상담역) 위원회는 건축, 토목, 행정, 문화, 경제,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 · 실질적으로는 제2기 사업에서부터 활동
실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P 참가 작품 및 구마모토현의 대표 건축물들을 통한 도시조성의 성과를 국내외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결정 및 승인을 통한 KAP '92의 실행에 주력 · 이사회: 사업계획 결정, 사업보고 승인 등 · 감사회: 사업의 구체적 운용에 필요사항을 심의 · 전문부회 : 전문부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검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내 각 분야에서 아트폴리스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③ 사업추진과정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공공건축물,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KAP 사업의 이념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구마모토현이 발굴하고 이를 각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사업발굴과정에서 현청의 사무국 담당자들은 영업직원이라는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프로젝트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개조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8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과정

(5) 사업추진내용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크게 현창사업과 프로젝트사업,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현창사업⁶⁹⁾은 현내 역사적인 건물 또는 호평을 받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사업(KAP 선정 기존 건축물) 및 아트폴리스 참가 작품을 제외한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것이다. KAP 사업이 선정한 기존 건축물은 1992년 1회만 실시하여 46개소를 선정하였고, KAP 추진상은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 등의 향상을 목표로 풍부한 지역창조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총 11회가 시행되었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기획·설계·시공 및 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고 구마모토현 지사가 표창한다.

프로젝트 사업은 커미셔너가 설계추진방식을 결정하여 적성과 능력이 있는 국내외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KAP 사업추진 이후, 74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이중 70건이 공공건축물이고 집합주택과 관공서, 경찰서, 교육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업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에서는 개성적인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없이 개별건축가의 창의적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최근 KAP 사업에서 추진되는 건

69)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6, 복합건축물 도입전략 수립을 위한 사례조사 출장보고서

축디자인 경향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계승하는 방식에서 각 건축물이 갖는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KAP 사무국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도시문화의 발전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기획 · 홍보 · 인재육성 사업은 KAP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심포지엄 · 강연회 · 전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는 각 단체와의 기획 · 홍보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그림 83〉 세이와 분라쿠관(전통인형극장), 향토요리관/이시이 가즈히로



〈그림 84〉 현영 호타쿠보 다이이치 단지/야마모토 리켄



〈그림 85〉 전통건축코스 가공조립실



〈그림 86〉 구마모토 아업타운스반 사무소



〈그림 87〉 다마나 전망관

출처 : <http://www.pref.kumamoto.jp/traffic/artpolis/links/022.html>

출처 : <http://www.pref.kumamoto.jp/traffic/artpolis/links/056.html>

출처 : <http://www.pref.kumamoto.jp/traffic/artpolis/links/029.html>



〈그림 88〉 구마모토 기타 경찰서



〈그림 89〉 Ayunose 다리

(6) 성과 및 효과

① 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KAP 사업이 일본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따라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방문객들에게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호텔, 식당 등의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촌마을인 야마토마을은 전통 인형극장인 세이와 분라쿠관의 건설로 인해 해마다 15만명씩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렌조 피아노(Renzo Piano)가 설계한 우시부카 하이야 다교는 구마모토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② KAP 사업과 일반공공사업의 차이점

구마모토현은 특수건물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사업을 KAP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KAP 사업을 통해 건축된 건축물이 다른 사업 방식으로 건설된 건축물보다 멋있고 독특하며, 디자인이 우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③ 행정 + 건축가 + 주민의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

현재까지 KAP 사업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회합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사업에서 행정가와 건축가,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고 공통의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3) 오카야마 CTO(Creative Town Okayama)

(1) 개요

- ① 위 치 : 오카야마(岡山)현 전역
- ② 사업시기 : 1993~1999년
- ③ 사업주체 : 오카야마현
- ④ 사업추진결과 : 오카야마 현영(懸營) 나카쇼(中庄) 단지 외 32개 공공 프로젝트

(2)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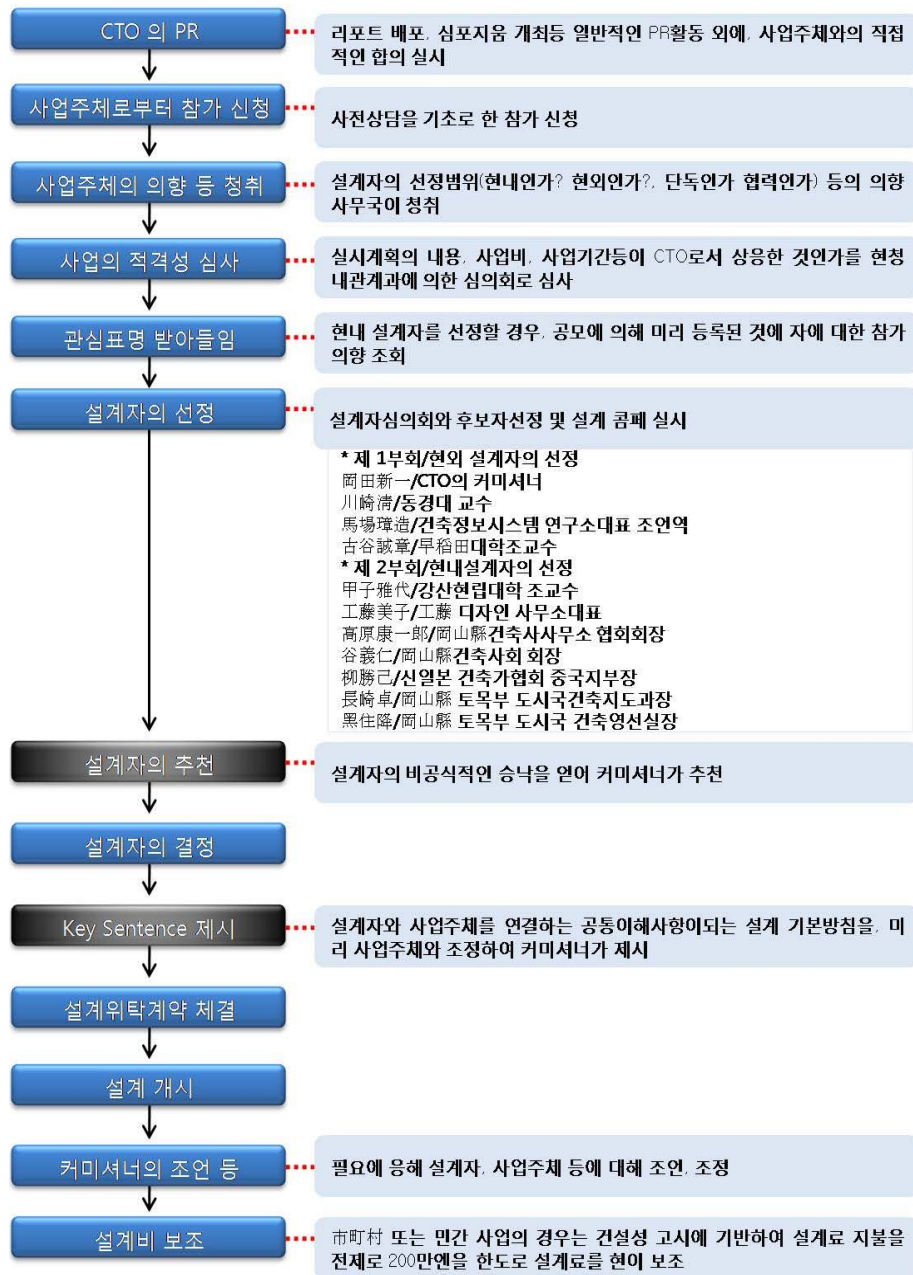
1993년 당시 오카야마에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질적 수준의 저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었다. 구마모토와 마찬가지로 오카야마의 공공사업은 입찰방식으로 건축가가 선정되면서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한 설계행위라기보다는 단순한 경제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터뷰(interview), 히어링(hearing), 프로포잘(proposal), 콤펔(competition) 등 다양한 방식의 설계자 선정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이 또한 평가과정의 투명성 미흡, 심사과정에서 최선의 대안보다는 보편타당한 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당시 오카야마 지사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에서 적용한 커미셔너 방식의 건축가 선정방식을 CTO 사업에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초대 커미셔너로 건축가 오카다 신이치를 선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3) 추진전략

CTO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유럽과 같은 전통있는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커미셔너에게 프로젝트 기획 및 건축가 선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좋은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CTO 사업에 참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설계비의 일부를 200만엔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CTO 사업의 홍보와 다양한 사업을 CTO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심포지엄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4) 사업추진조직 및 절차

사업추진은 오카야마현과 커미셔너, 협력 건축가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었다. 커미셔너는 4년 임기로 위촉되며, 협력 건축가는 오카야마현 외에서 참가한 건축가를 위해 오카야마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CTO 계획의 연속성을 위해 각 프로젝트는 커미셔너를 포함한 설계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후보자 선정을 위한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 CTO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커미셔너는 참가 프로젝트에 대해 설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중요한 설계방침을 제시(key sentence)하고,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건축가들에게 조언이나 디자인 조정을 통해 일관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때, Key Sentence는 설계조건에 대한 발주자측과 건축가 양측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치관이 서로 다른 추천건축가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며, 그 형식은 발주자측과 추천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 정의된다.



〈그림 90〉 CTO 사업추진절차

(5) 사업추진내용

CTO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키비코우겐 초등학교는 오카야마 외곽에 입지한 주거지의 지역커뮤니티센터로 건설되었다. 건축물은 열린 초등학교를 목표

로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사, 운동장, 식당, 수영장 등을 평면적으로 배치하여 이들이 연속적인 공간을 형성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는 마치 개인주택이나 정원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학교 내 일부 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어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실현한 선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91〉 키비코우겐 초등학교

이 외에 오카야마 북경찰서, 오카야마현 평생학습센터, 미마사카역에 건립된 노동자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와 아쿠아 스포츠 살롱도 지역 커뮤니티를 재생시키는데 기여한 CTO 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림 92〉 오카야마 북경찰서 〈그림 93〉 오카야마현 평생학습센터 〈그림 94〉 아쿠아, 스포츠 살롱 미마사카

(6) 성과 및 효과

CTO 사업은 오카야마 도시에 활력을 제고하여 CTO 프로젝트 주변에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개성적인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을 점적으로 확산시켜 오카야마 전체 도시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시사점 5

1) 기획력을 중시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

사례조사결과, 공공건축을 통한 가치향상은 지자체의 행정력과 도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화된 공공건축 디자인 등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재생 전략과 공공건축 건설전략을 도시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고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간에 걸친 현황파악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무주 공공건축은 1995년부터 2005년에 걸쳐 10년정도 추진되었고, 구마모토 KAP는 1988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오카야마는 1993년부터 1999년, 나가사키 또한 198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세계적인 상징적 건축물 건립으로 지역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성의 사업에서 벗어나 상징적인 건축물과 함께 공간환경 전반에 걸친 공간기획과 교통전략, 환경전략, 관광객 유치전략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시관광화(Urban Tourism)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이 기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회학, 예술분야, 경제학 등 다분야 전문가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2) 공공건축 전담기구 운영으로 기획에서 운영·관리의 일관성 확보

공공건축으로 지역만들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공사례들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획력을 담보하고 개별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화, 분산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금산 다락원의 전례와 비교해 볼 때, 지자체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지역차원의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런던 페컴도서관, 로스엔젤레스 현대미술관 MOCA와 같이 도시개발전략과 공공건축사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의 재원확

보와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제3섹터와 같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공건축이 단순히 건축물 하나에 대한 설계와 건설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기능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추진해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36〉 각 사례의 공공건축 추진 전담 공공조직

구분	구마모토	오카야마	나가사키	빌바오
전담기구	KAP 사무국	CTO 사무국	NUR 사무국	빌바오리아 2000
소속	토목부 건축과 마을만들기 추진팀	토목부 건축과	마을만들기 추진과	제3기구

3) 민간전문가 활용에 의한 디자인 수준 향상

공공이 주체가 되는 공공건축사업의 경우, 담당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순환보직체제의 행정조직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뀔 때마다 본래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⁷⁰⁾

무주의 정기용 건축가는 민간건축가 활용에 대한 제도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강력한 의사결정권자이자 지지자였던 군수의 퇴임으로 그 역할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무주에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사업이 기존의 시스템으로 회귀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도권 안에서 체계화되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건축가 개인에게 의존한 국내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구마모토, 나가사키, 오카야마 등에서는 공공건축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갈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커미셔너(commissioner), 코디네이터(coordinator), 프로듀서(producer) 등 다양한 명칭의 외부 전문가는 대부분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과 건축가 선정방식에 관여함으로써 지역전체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

70)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경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될 위기도 있었으나 커미셔너와 담당자들의 설득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음. 구마모토 사무국 담당자 면담결과, 2008.12

〈표 37〉 각 사례의 공공건축 추진 전담 민간조직

비고	구마모토	오카야마	나가사키
전담기구	KAP 사무국	CTO 사무국	NUR 사무국
민간전문가	커미셔너	커미셔너	프로듀서 Urban Design Team
	아라타 이소자키 이토 도요 등	오카다 신이치	

4) 성과관리체계에 의한 공공건축의 공공성 유지

공공건축의 성공은 우수한 디자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의한 지속적 관리와 운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우수한 사례는 하드웨어로서 건축물의 디자인 가치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생명력 있는 공공건축 운영을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획에서 설계, 운영, 사용까지 일관된 관리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관리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선순환구조에 의한 관리를 위해 성과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추진기구인 CABE에서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과 포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마모토 KAP 사무국에서도 KAP 참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심포지엄, 워크숍, 전시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5) 행정건축가의 역할에 의한 지속적 관리

공공건축의 성공은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시스템 구축과 최종 수요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정책을 실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사례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단과 이를 담당하는 행정가의 의지, 민간전문가의 헌신적인 참여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금산 다락원의 경우 국내의 칸막이식 행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가능하게 이끌어 냈으며,⁷¹⁾ 무주의 사례는 군수와 건축가 한 사람이 지역주민을 위해 창조적인 건축행위를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례조사 결과는 공공건축 중심의 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식있는 행정건축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71) 금산 다락원 담당자는 국내의 관료적인 행정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의지만 있으면 제2, 제3의 다락원이 조성될 수 있음을 강조함. 금산 다락원 당시 행정 총괄 담당자, 2007.11, 면담 결과

V.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1. 정책기본방향
2. 세부 추진전략
3. 공공건축 정책실현을 위한 운영전략

(a u r i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1

정책기본방향

1) 공공건축의 핵심과제

공공건축이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에서 유형·무형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3장에서 제시한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의 문제는 결국 인적 구성원의 전문성, 공공건축 생산시스템, 공공건축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적 구성원의 전문성 부재와 공공건축 생산시스템은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생산과정의 개선, 전문가 활용시스템 도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공공건축 공간 및 운영프로그램의 문제는 현 법체제와 생산과정에서도 행정과 주민, 관련 전문가의 노력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중심의 관료화된 공급체계에서 지자체 주도형 조성체계로 전환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예산권한이 있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갖고 공공건축을 조성하기보다는 예산확보와 이를 집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써 공공건축을 조성·관리해 왔다. 이는 결국, 관료적 공공건축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 공공건축물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생활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생활시설은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공공건축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필요한 시설을 필요한 면적만큼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대한 균형배분이라는 명분에 따라 지원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전국 지자체가 유사한 프로그램과 규모의 공공건축 건립을 양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생활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최초 발주 주체와 예산권한이 중앙부처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필요한 공공건축에 대해 기획, 설계,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각 지자체에서 기획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건축에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 정착

그동안 공공건축은 건축주로서 공급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획, 발주, 운영되어 최종 사용자인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으로써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조성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조성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체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갖는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서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적 공공건축 디자인을 전제로 공공건축 기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3) 결과물 중심의 기능적 생산체계에서 문화적 생산체계로 전환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학교, 도서관, 문예회관 등 그 자체의 목적만을 고려한 하드(hard)한 측면의 기능적 생산체계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다.

지역주민의 생활거점으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자체의 건설에 목적을 둔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공건축 건설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을 결집시

키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수요자 욕구의 다변화로 인해 공공건축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계층의 주민요구를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건축을 중심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가 전제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리된 공공건축 조성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전체 발전구상과 연계된 공공건축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하드(hard)한 측면과 소프트(soft)한 측면이 결합된 문화적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생산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과정에 전문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디네이터 기능확보와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 구성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공공건축은 공공자산으로 건설되는 공유재로써 신기술과 실험적 디자인 적용을 통해 건축물 자체가 민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건축 생산과정을 통해 신진건축가를 발굴하고 또한 생산과정 자체가 공공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생산체계를 통해,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고 평생교육기능 확보 및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림 95〉 공공건축의 문화적 생산체계

(4) 개별화된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사회통합적 생산체계 확보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담당 행정청이나 예산지원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시설별로 개별화된 체계로 건설·운영·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중복된 시설이 건립되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를 위해 과도한 규모의 비효율적인 시설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부서별 칸막이식 행정체계는 이러한 현상을 조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공공건축의 획일화와 관료

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건축이 사회·문화적 자산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화된 조성과정에서 벗어나 통합화된 행정체계를 통해 공공건축에 대한 수요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면적, 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별 통합화와 연계를 통해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공공건축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회통합적 생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²⁾

이러한 사회통합적 생산체계를 확보하여,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교, 청사, 체육관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갖더라도 쉽게 다른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화 방안 모색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커뮤니티 형성, 지역사회학교의 역할(Mark.A.Chesler)
 - 지역사회학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삶의 문제와 그 과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계획과 결정에 부모, 학생,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한 센터로 만들어야 한다.
 -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을 조성해야 한다.
 - 지역내의 성인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
 - 주민들의 인간관계에서 민주적 행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 정치, 경제, 사회 문제의 토론에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72) 복합화의 필요성(서정숙 외, 2007)은 기능별로 분산되어 발생하는 시설의 낮은 인지도 및 주민이용의 불편해소, 둘째,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수용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이용하기 위해, 셋째,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 넷째, 목적이 다른 시설들 간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른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5) 미학적 관점에 치중한 공공건축 설계에서 장소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공공건축은 개별 건축물과 건축물을 둘러싼 주변 공공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지역의 대표적 명소로써 사람들이 약속장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CABE, 2007). 이는 심미적 측면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장소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⁷³⁾ 그러나 공공청사를 비롯한 대표적인 지역의 공공건축은 권위적인 형태와 접근성이 낮아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현상설계, 툃키설계 등의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장소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대안은 많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목표설정과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방향과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건축가가 이를 반영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의 설계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입찰공모, 현상공모 등 일반적인 공모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건축의 기능, 조성목적, 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⁷⁴⁾

또한, 이러한 새로운 설계방식 적용을 바탕으로 공공건축 준공 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준공한 이후,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한 다락원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73) 학생수행능력과 학교디자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좋은 디자인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디자인이 나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11%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CABE, The value of good design, 2002, Better public building, 2007, p.5)

74) 일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과 설계안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는 제안공모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설계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공공건축설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 미술공원과 미술관 디자인을 위해서는 미술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제안공모방식 확대)

- 좋은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CABE, better public building, 2007)
- 좋은 디자인은 사람들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건물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
- 좋은 디자인은 물과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건설과 사용하는 동안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는 것
- 좋은 디자인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장소를 창조
- 좋은 디자인은 공공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전달을 쉽게 함
- 좋은 디자인은 직업 알선을 쉽게 하고 운영자를 보유하며, 운영자 고용에 드는 비용을 감소하는 경제적 부가적 효과를 창출
- 좋은 디자인은 다양한 계층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사회적 배제가 없어야 함
- 좋은 디자인은 일상활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것
- 좋은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과 공통의 혼을 반영, 지역정체성과 Civic Pride를 갖도록 하는 것
- 좋은 디자인은 특별한 목적의 섹터(학교, 병원, 도서관 등)를 보더라도 다른 섹터까지 연장할 수 있어야 함
- 디자인은 더 이상 미학적 요소가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도시디자인의 원리를 실행하는 것
- 매력적인 환경과 품격 높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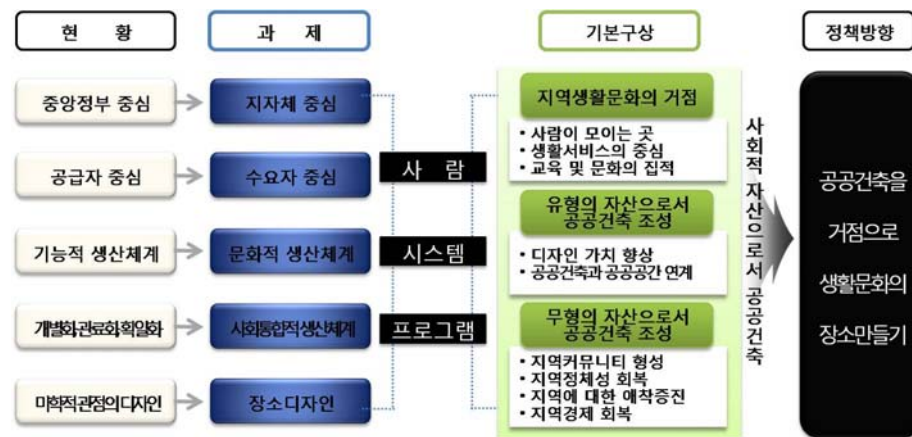
2) 기본구상 및 정책목표

공공건축의 건립목적은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내에서 유형·무형의 자산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공공건축의 가치는 사회·문화적 재화로써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야 극대화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이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장소를 창출하여 생활서비스의 중심이자 교육 및 문화의 집적장소로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이 형성되면 공공건축 자체가 유형의 자산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유형의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은 수준 높은 디자인을 통해 공공건축 자체가 지역의 명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변의 공공공간과 건축물과의 연계를 통해 좋은 장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조성과 유형의 자산으로 공공건축을 창출하는 과정에 지역주민과 다수 이해관계자(사용자로서의 공무원, 공급자로서 중앙 및 지자체 행정가, 건축가 등)가 관여함으로써 공공건축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정체성이 회복되면, 무형의 자산인 공공건축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정책목표는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함으로써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생활문화의 장소만들기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6〉 공공건축 기본구상 및 정책방향

3) 정책방향

공공건축으로 생활문화의 장소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본방향은 공공건축의 기본과제가 제시하고 있는 다섯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건축 생산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공건축을 만들어가는 내용측면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생활공간 확장,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공건축 조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 조성, 이야기가 있는 공공건축 조성,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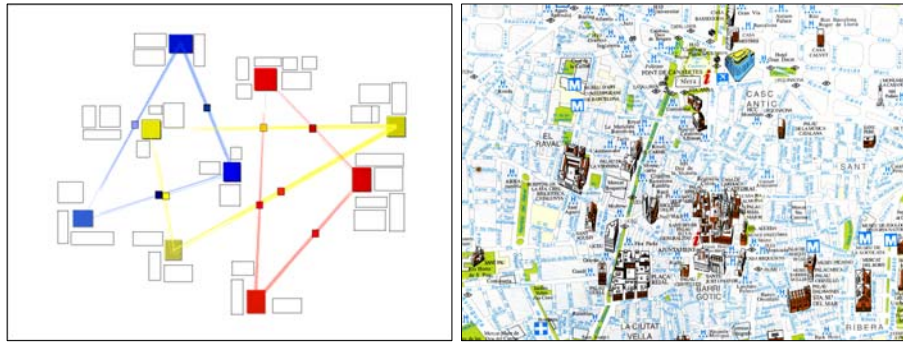
〈그림 97〉 공공건축 정책방향

(1)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생활공간 확장 - 점, 선, 면의 네트워크(network)

공공건축은 공공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로써 성공적인 지역만들기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같은 정부주도의 프로그램 중심 패키지사업에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작지만 파급효과가 높은 거점의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지역 내에서 개별 공공건축이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인식되도록 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키고 점으로 이루어진 개별 공공건축물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다닐 수 있는 선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며, 점으로써 공공건축의 연계가 확장되면 전체 지역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점, 선, 면의 네트워크 실현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공공건축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전체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이야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전략수립을 하고, 건축물, 가로, 공원, 주택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질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건축의 점, 선, 면으로의 확장은 지자체 단위에서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98〉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한 점, 선, 면의 네트워크화
 〈그림 99〉 공공건축물의 점, 선, 면의 확장
 (바르셀로나, 스페인)

(2)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공건축 조성

공공건축으로 생활문화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건축 조성과정
 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민과 공급주체, 건축가가 함께하는 의사소통의 기
 회가 필요하다. 공간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
 그램을 반영하여 계획수립을 해야 하며 기획단계부터 최종 수요자가 이용하기 쉽
 고 자발적인 관리참여가 가능한 공간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주민과 상시적으로 의사소
 통의 채널을 열어둘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을 모색해야 하며 기획 초기단계부터
 설계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디자인’ 방식 도입과 주민제안에 의한 공공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
 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공공건축으로 소외된 계층을 지역커뮤니티로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목
 적을 갖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다수계층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의
 장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도서관
 의 경우, 학생뿐 아니라 주부, 노인, 어린이 등이 함께하는 장소로 기획함으로
 써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단위의 문화공간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건축주가 되는 공공건축의 경우, 행정절차상 형식적
 인 협의과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3) 지역현황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affordable public building) 조성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색이 없어 지역특유의 문화나 특화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소수이며, 이를 반영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살고싶은 지역 만들기’,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사업 등은 차별화된 특화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존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없이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건축을 통한 생활문화 장소만들기’는 차별화, 특화전략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색이 없는 대다수의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건축을 통해 새로운 장소,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⁷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프로그램 개발 전략 수립, 지역주민과의 결합 등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기획단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4) 이야기가 있는 공공건축 만들기

공공건축으로 생활문화의 장소 만들기는 지역주민, 지역내 산재해 있는 일상생활의 이야기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애착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공간만들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이 쇠퇴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기능의 공공건축을 조성하거나 신규 공공건축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존 흔적을 남기고,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자체를 이야기로 정리하여 반영하는 등 최종결과물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예산부족으로 신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술력도 부족하여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저가 입찰에 의한 설계방식을 고수하거나, 현상설계나 PQ 등 공모방식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더라도 건설과정에서 당초 설계안이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75) 스페인 빌바오는 역사적 컨텍스트(context)와 무관하게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공공건축물을 통해 새로운 장소가치를 구현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을 건립하기보다는 단체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지역내 최대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수요량보다 과도한 규모의 건축물이 공급되거나 중복기능을 반복해서 공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며, 건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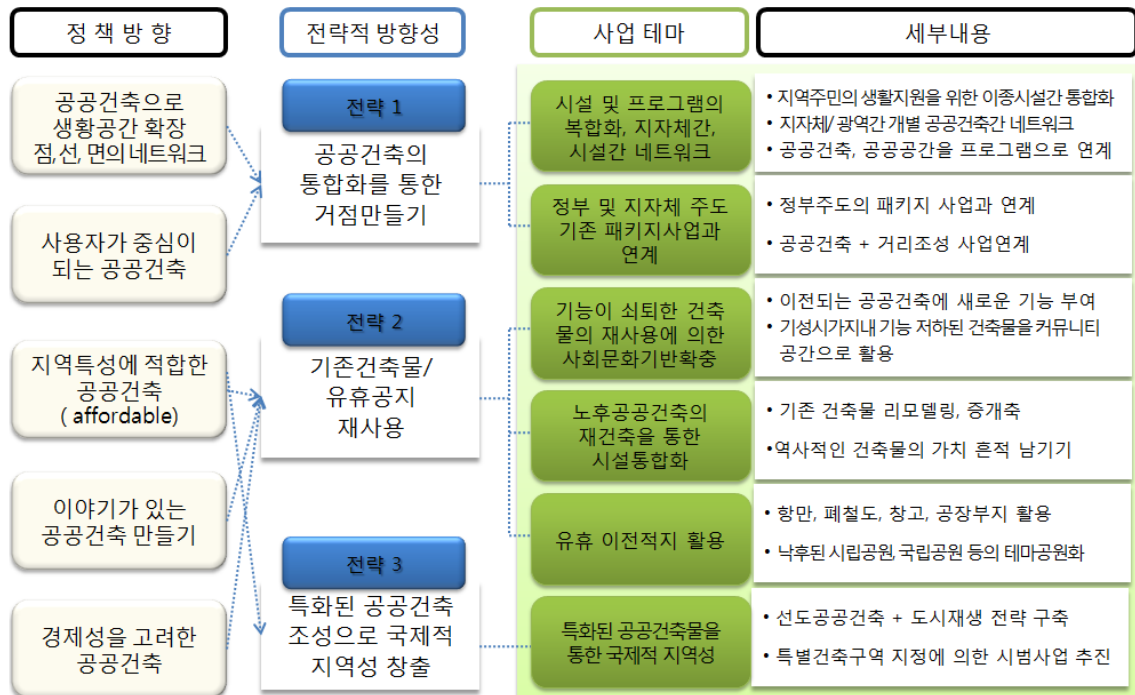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질적으로 우수한 공공건축을 다수 공급한다 하더라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지역의 생활문화거점으로 공공건축이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규모를 결정함과 동시에 공공건축 자체가 낙후하고 쇠퇴하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의 네트워크를 실현하여 공공건축물 자체가 지역명소로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켜 공공건축물 주변부에 소매점 활성화,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 자체가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의 장소로 활용되어 지역주민에게 경제·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4) 추진전략

이러한 공공건축 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생활성), 공공건축의 사회·문화적 기능강화(개방성), 지역주민의 공적 삶의 가치 증진(영역성, 지역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과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핵심과제 발굴을 통해 다양한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건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에 대한 인벤토리를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각 세부 전략은 지역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벤토리를 추가로 발굴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00〉 공공건축사업의 추진전략

2

세부 추진전략

1)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거점만들기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써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공개성, 영역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종의 시설을 인접, 통합 배치하여 생활서비스가 집적되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사 기능이나 중복기능을 통합·조정하여 공간이용의 합리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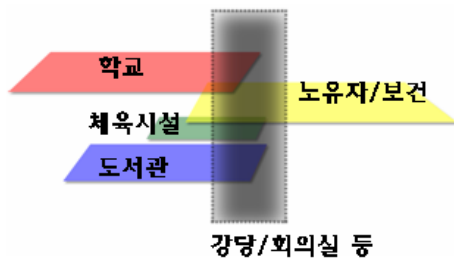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요자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을 통해 시설이용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고 거주자들의 다양한 활동을 유인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 활동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공공건축 시설간의 통합화뿐 아니라 지역내에서는 인접한 공공공간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연계(학교 - 종합복합복지관의 방과 후 교실 - 청소년수련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를 통해 공공건축의 합리적 조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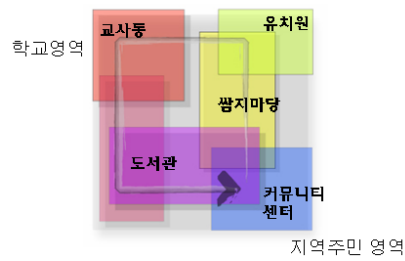
(2) 개념

공공건축의 통합화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통합화를 통해 시설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다양한 계층,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⁷⁶⁾

76) 공공건축의 통합화와 관련하여 과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조성방안에서는 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한 이유로 첫째, 개별시설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주민의 낮은 인지도와 이용의 불편, 둘째, 도입되는 시설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주민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각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절감과 관리 효율성 제고, 셋째,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발굴 미흡, 넷째, 다양한 공공·편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매개체 역할 부여, 다섯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들고 있음,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앞의 책, p.35



〈그림 101〉 수직복합방식



〈그림 102〉 수평복합방식

(3)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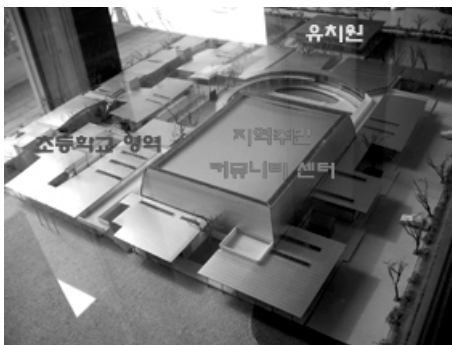
① 시설 및 프로그램의 복합화, 지자체간·시설간 연계 네트워크화

- 지역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이종 시설간의 통합화 : 물리적 시설 복합화
-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 용도의 시설내 복합화를 추진하는 방안(중심 시설기능(청사, 학교 등) + 부가적 서비스 시설 복합)과 기능은 복합하되, 운영·관리는 중심기능과 부가적 서비스 시설을 분리하는 방안제시

예) 오카야마 초등학교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에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지역생활의 거점 조성

예) 무주의 면사무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회합의 장, 목욕탕 등을 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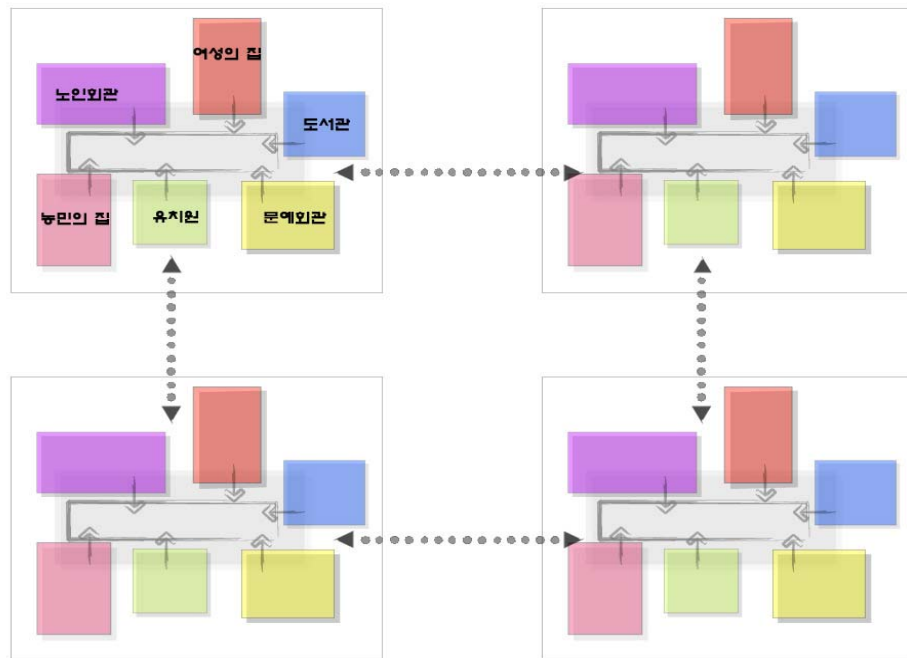
예) 제천 모암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공용코어로 결합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는 주민자치단체에게 위임



〈그림 103〉 학교 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형성 사례 〈그림 104〉 동사무소(오른쪽)+주민자치센터(왼쪽)

□ 지자체내/광역단위의 공공건축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화 방안

- 근린 커뮤니티 단위의 복합화 방안 : 이종 시설을 동일 부지 내 통합건설
 - 인구 5만 이내의 소도시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공건축을 분산 배치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시설건립 재정을 하나의 단위로 모아 여성회관, 복지관, 농민회관 등의 시설을 통합하여 건설(금산 다락원)
 - 소단위 지자체내에서 인접 혹은 연접한 부지에 이종의 개별 공공건축을 계획하여 이용자들이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운영·관리의 통합화 실현
 -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시설 간 중복기능을 배제하고 계층별, 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설이용의 합리성 도모
- 대규모 체육시설, 문예회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광역 단위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화



〈그림 105〉 복합화된 공공건축의 커뮤니티 단위 또는 광역 단위 네트워크

○ 커뮤니티 시설의 복합화 방식(대한주택공사, 파주운정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방안, 2007, pp.39~43)

1. 낮은 수준의 복합화

- 기존방식에 의한 개별시설단위로 관리·운영
-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이용제고
- 복합화하는 시설이 모두 공공의 커뮤니티시설인 경우 적합
- 개별시설 단위로 설계·운영되므로 시설의 통합적 이용에는 한계

2. 중간수준의 복합화

1) 단일용지에 복수의 시설이 복합되는 경우

- 한 기관에 소속된 용지에 타 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 유지비 외 시설비를 상계하는 BTL 방식 도입

2) 복수용지에 복수시설이 통합조성·운영

- 다수 주체가 여러 종류 커뮤니티 시설을 복수 용지에 복합조성
- 학교, 문화시설, 공공시설, 공원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주택단지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설계·공급
- BTL 방식에 의한 설계·관리·운영

3. 높은 수준의 복합화

1) 복합화된 여러 개 커뮤니티 시설을 연계

- 커뮤니티 단위로 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 각 단위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특화하고 시설간 상호연계

2) 커뮤니티시설 복합화 지구개념을 통해 통합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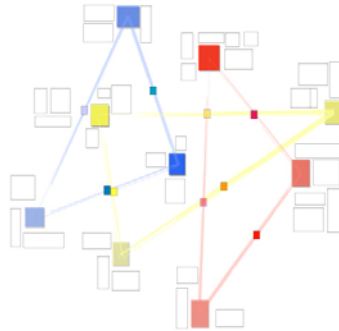
- 지구단위의 복합적 토지이용 : 커뮤니티 시설 복합화 지구제도의 도입
- 통합 설계·조성·운영 : BTL 사업방식에 의한 창조적·효율적 관리 운영

□ 지자체내의 개별 공공건축, 공공공간을 연계하기 위한 어메니티(amenity) 장소만들기

- 지역내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자연스럽게 연계하기 위해 중심 테마를 만들고, 테마에 따라 이동 루트를 도면으로 표현, 각 이동 루트를 자연스럽게 연계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메니티 시설을 설치

예) 예를 들면, 향토박물관과 향토박물관에서 소개한 지역명소 및 문화적 장소를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네트워크화된 장소로 조성

예) 영국 Strafford-upon-aven의 셰익스피어 마을 조성 : 셰익스피어 전용극장을 조성하고 셰익스피어 생가를 박물관으로 개조, Strafford-upon-aven 지역 전체를 프로그램으로 연계(셰익스피어 부인 생가, 어머니 생가, 셰익스피어가 다니던 학교 등을 연계하여 투어 버스 운행)



〈그림 106〉 공공건축, 공공공간의 연계를 위한 소규모 어메니티 시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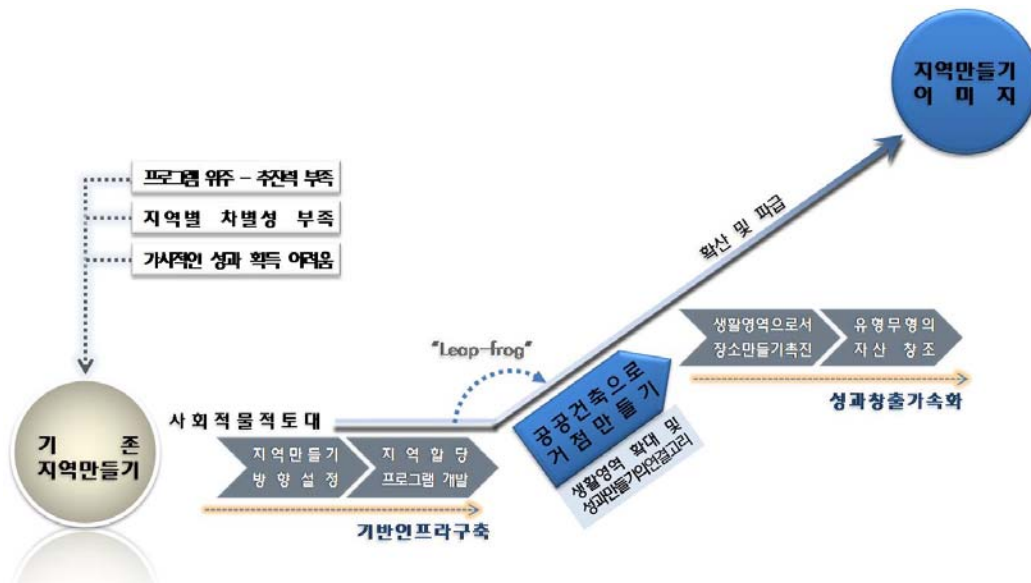


〈그림 107〉 무주 공공건축의 점, 선, 면의 네트워크

②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주도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건축의 통합적 가치 증대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 연계

-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정부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면 추진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
- 반면, 이러한 사업은 주민참여가 전제되어 있어 기존 주민조직을 활용하면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시범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함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역사문화 마을만들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로서 공공건축 건설



〈그림 108〉 지역만들기 사업의 추진동력으로서 공공건축

〈표 38〉 정부 및 지자체 주도사업과 연계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사업유형	지원도시	주요프로그램	공공건축 통합화 연계가능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건설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창문예술 마을만들기	드라이브 인 갤러리,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야외 공연 산책로, 수생식물 관찰	빈 농협창고를 개조한 갤러리
	충청북도 청주시 평동 전통떡마을 조성사업	전통떡 체험, 전통고추장 담그기 체험, 식충식물 생태학습	전통떡 만들기 체험장, 식충 식물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완주군 대승리 한지마을	천년한지 제작 복원, 한지테마거리 조성, 한지마을 육성, 신개념 농촌 체험마을 조성	전통가옥 박물관, 한지문화연구소, 한지공예 공방촌, 한지 장인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백련, 농촌 체험 프로그램, 마을 내 쉼터 및 소공원 조성	농촌 체험장, 흑공 체험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미술 가족 체험, 문화예술공간 활용	장흥 아틀리에, 천경자 시립미술관
	전라남도 진도군 윤림예술촌	진도 문화와 전통 활성화(글씨, 그림, 진도아리랑), 지역공동체 및 예술 활성화	민속전수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생태체험 및 주민복지 사업	서오지리 마을회관 복합화 리모델링, 연 전시관
문화역사 마을가꾸기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영광군 삼호리 효동마을	농촌마을 보전과 복원, 공동체문화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	윗샘과 연자방아 복원, 초가정자 3채 신축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군자마을	역사자료 조사 및 보존, 고택체험을 위한 고택정비 및 개방 마을 공간조성	군자마을 회관(생활관), 유물전시관(송원관)
	전라북도 고창군 월산리 사등마을	검당 염정지의 복원, 제염 제조 체험마을, 지역정주 만족 향상	진채선 생가터 재활용, 당산나무의 휴게공간화, 소금체험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영주, 광주 동명, 충남 태안 등 12개 지구	순환용 임대주택, 주민공동시설, 공동작업장, 공용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	주민공동시설을 특화된 지역 내 특화된 커뮤니티시설로 건설

- 문화관광부 등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조성사업, 문예회관 건설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로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특성화된 거리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
 - 주요 시설물이 가로의 결절점으로 인식되도록 추진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장을 형성하도록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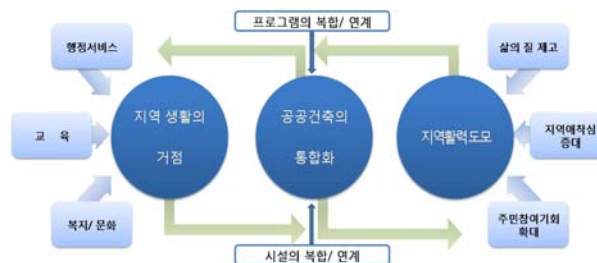
〈그림 109〉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거리



〈그림 110〉 베르겐의 향토박물관 예술의 거리

③ 기대효과

- 공급자 측면에서는 시설간 복합화, 연계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건설 및 시설 관리상의 예산 절감 효과 및 효율성 제고
- 사용자 측면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 선택의 기회확대를 통해 이용의 편리성 증대 및 다양한 활동 유인
- 다양한 계층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그림 111〉 공공건축 통합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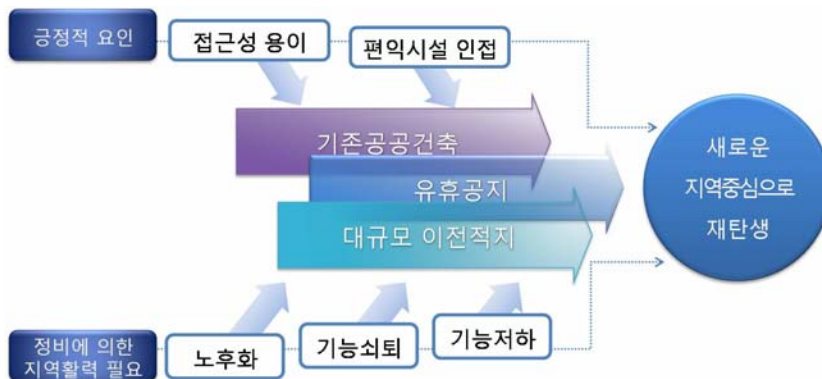
2) 기존 건축물 및 유휴공지의 재사용에 의한 공공건축 가치증진

(1) 배경 및 필요성

기성 시가지의 경우, 공공건축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 외곽에 입지하게 되면서 접근성이 저하되고,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인 공공건축의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청사의 경우, 행정조직의 변화와 신규업무의 발생 등으로 공간이 부족하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쇠퇴함에 따라 이전수요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지역의 공공청사는 지역의 중심장소로서 지역경제의 중심기능을 담보하였으나 이전에 따른 지역쇠퇴가 예상된다.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등 주민의 복지·문화 서비스 시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낙후되거나 급변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설로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학교, 재래시장, 대규모 공장적지, 항만시설, 공원 등 기성 시가지내에 유휴 건축물 및 공공공간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기성 시가지내 기존 건축물은 접근성이 용이하며, 지역중심상가 등 다른 생활편익시설과 인접하여 사용자 측면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유휴적지는 공공건축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쇠퇴하는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내 유휴 공공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건축물 현황에 따른 유형분류(기능쇠퇴, 확장필요, 재건축 필요 등)를 바탕으로 이러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인접한 공공건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림 112〉 기존건축물 및 유휴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

(2) 개념

이 전략은 기성 시가지 내에 산재해 있는 기능이 쇠퇴한 사회자본을 재사용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건축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등 지역내 중심시설의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쇠퇴현상을 제3의 기능을 담은 공공건축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3) 추진전략

① 기능 쇠퇴 건축물의 재사용(refurbishment)에 의한 사회문화적 기반 확충

□ 이전되는 공공건축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기성시가지 활력 도모

- 도농통합도시, 혁신도시건설,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으로 이전되고 남은 공공청사 및 노후화로 이전하고 남은 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등의 이전 공공건축물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활용



〈그림 113〉 도서관을 미술관으로 개조 사용(구마모토) 〈그림 114〉 개조된 미술관 내부

□ 기성 시가지 내 기능이 저하된 공공건축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구 이동으로 인해 기성 시가지 정주민 감소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학교를 지역 내 복합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동사무소 등을 지역문화센터로 활용

- 커뮤니티 스쿨 개념을 적용하여, 미이용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도심지내 부족한 문화, 복지시설 및 공원 등으로 조성

예) 학생수가 감소하는 중소도시 기성 시가지내 학교 : 제천시

- 지방 중·소도시의 폐교나 창고 등을 활용하여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 조성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폐교를 활용한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추진, 이를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 예)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 마을의 폐교를 활용한 '토고미 자연학교'

□ 기성 시가지내 쇠퇴한 노후상가를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및 문화 인큐베이터 조성

- 근대 이후 조성된 중소도시의 등록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후상가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상권이 쇠퇴하여 대형 상가로 재건축하더라도 미분양이 예상되어 지역활력에 기여하지 못함⁷⁷⁾
- 중소도시의 상업지역내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활동공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거점으로 활용,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상가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
-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현대화사업 및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낙후된 상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복지 기능을 적용



〈그림 115〉 낙후상가지역을 개조, 패션 인큐 〈그림 116〉 노후상가의 일부를 개조하여 청소년
베이터로 활용(아오모리 아우가) 쉼터로 조성(광주 충장로)

□ 주거단지 내 기능쇠퇴 건축물 및 폐가를 활용한 생활복지의 거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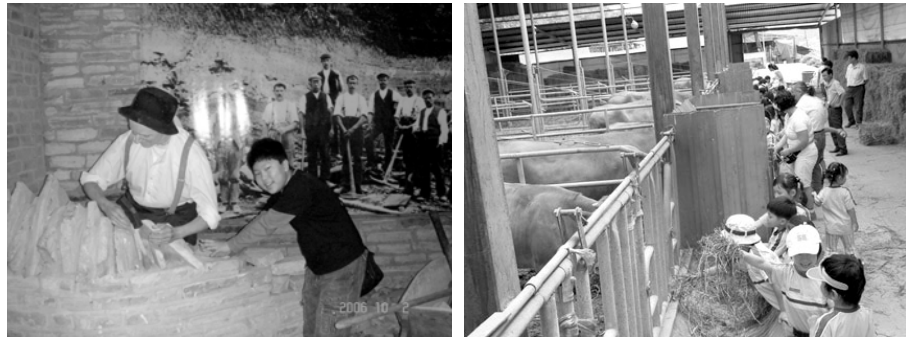
-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내 아파트형 공장과 공중목욕탕 등 기능이 쇠퇴하여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개조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종합문화복지센터 및 생활시설로 활용

77) 중소기업청에서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건축법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폐가 및 공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한 공공 건축으로 활용

예) 영국 Strafford-upon-Aven은 셰익스피어 부모의 생가를 개조하여 농촌생활 체험관으로 활용

예) 강원도 화천 토고미 마을은 폐가를 활용한 농기구 박물관을 조성



〈그림 117〉 Strafford-upon-Aven 농촌생활 〈그림 118〉 폐가를 활용한 토고미 자연학교
체험관(셰익스피어 마을) (강원도 화천)

② 노후 공공건축의 재건축을 통한 시설의 복합화 및 ‘장소의 흔적’ 만들기 추진

□ 노후 공공건축 사용을 통한 장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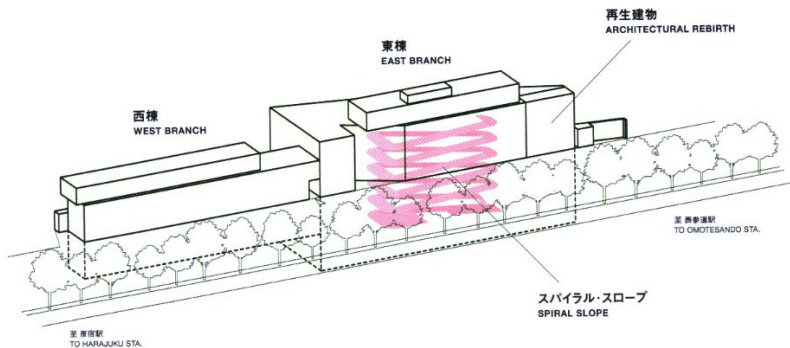
- 전자민원확대, 행정시스템 개편 등으로 주민행정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대한 기능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기존 지자체단위의 지역행정 중심기능으로 자리 매김했던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있음
- 이와 함께, 청사를 비롯한 보건소,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건축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음
- 이에, 기능전환이 요구되는 시설 및 노후 공공건축의 증축, 개축, 재건축을 통해 기능의 복합화 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공간프로그램으로 재편(통합화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복 검토)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 증축으로 새로운 기능의 접합
- 재건축을 통한 기능의 복합화 추진 : 수직적 복합 + 수평적 복합방안 등 다양한 방식의 복합화 방안 적용

예) 무주군청사 리모델링 : 건축물 리모델링,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



〈그림 119〉 증축으로 천문대를 설치한 무주 〈그림 120〉 주차장을 공용마당으로 조성한
부남 면사무소 무주군청사

- 노후한 공공건축을 재건축하면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일 경우, 기존 건축물의 형태나 공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통해 '장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공공건축물로 재창조



〈그림 121〉 기존 영단주택을 재건축하여 상업건축물로 변경하면서 건축물의 일
부에 기존건물 디자인을 재현(오모테산도힐즈, 동경)

③ 유휴 이전적지를 활용한 공공건축 조성

- 대규모 이전적지 및 기능이 저하된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방문객을 늘릴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기획하여 지역생활 문화의 거점으로 재구조화함으로써 지역활력을 도모
- 대규모 향만시설, 폐철도, 창고, 공장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박물관, 미술관, 전자도서관 등 공공건축의 집적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성을 부가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

예) 나가사키 Urban Renaissance의 현대미술관과 나가사키항 터미널

예) 유유 안양공장 부지는 안양시가 유유산업으로부터 부지와 건축물 일체를 매수하여 김종업 작품의 공장을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고 공장부지 전체를 공공건축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시설이 낙후된 대규모 국립, 도립, 시립공원 등을 활용하여 특화된 기능을 갖는 테마공원을 공공건축과 함께 기획, 유휴 공공공간의 활성화 도모

예) 음악공원, 미술공원 등 : 동경 키바공원의 미술관



〈그림 122〉 쇠락하는 항구지역을 재정비하여 현대미술관을 조성(나가사키, 일본)

출처 : Ngasaki urban design system 홍보자료, 2007



〈그림 123〉 발전소를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조성한 런던 Tate Modern Gallery

출처 : http://kr.img.search.yahoo.com/search/images?p=%ED%85%8C%EC%9D%B4%ED%8A%B8%EB%AA%A8%EB%8D%98&b=11&imgseq=12&cid=1_02chuelmin1076_0&subtype=Image_DB&target=detail&top=frame

④ 기대효과

- 공공건축 조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기성 시가지내 공공건축 자산 확보
- 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한 기성 시가지내 생활문화의 거점 형성
- 공공건축의 이전 및 쇠퇴화된 건축물의 활용에 따른 도심활성화

3) 특화된 공공건축을 통한 국제적인 지역성 창출

(1) 배경 및 필요성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여 상징성이

강한 공공건축물의 건립을 통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경제, 문화, 교육, 예술이 결합된 문화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파리의 그랑아치, 스페인 빌바오시는 기념비적 공공건축을 건립하고 도시재건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확보한⁷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디자인 제시와 새로운 지역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공건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개념

건축기본법에 의해 도시 전체의 이미지 구축과 건축도시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지역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화된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전략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디자인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결합된 상징성이 강한 공공건축물을 기획하고 이와 연계하여 교통, 숙박, 소매상업 활성화 방안 등 지역활성화 전략을 병행하여 수립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3) 추진전략

-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디자인 발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건축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관창조형 공공건축 선도사업' 발굴
- 건축법 제60조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여 국제적인 공공건축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등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므로 창의적인 건축설계가 가능

78) 공업도시였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과 도시 전체를 문화의 도시로 개조하면서 '쇠락의 도시'에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신.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의 랜드마크가 되었으며 빌바오를 문화관광도시로 부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구겐하임 효과'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미술관 건립에 1,500억원 투자, 개관 이후 986만 여명의 관광객 방문(연간 약 100만명), 빌바오 지방내 총생산 240억원 증가, 개관 이후 6년간 약 1조 5천억원의 경제 효과 유발

※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규정

- (적용배제)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도로사선제한, 일조확보기준
- (적용완화)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지구기준 등
- (통합적용) 미술장식 설치, 부설주차장, 공원시설 및 지하주차장

- 지역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공공건축 기획, 건설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 '선도 공공건축 발굴 + 도시재생전략 구축'으로 특화된 공공건축을 통한 방문객 유치전략, 산업화, 지역경제발전 전략 수립

- 방문객 유치를 위한 교통체계 정비(외부로부터의 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항공, 철도, 고속도로 등의 접근성 고려)와 숙박기능 확보
- 공공건축을 통한 산업화 전략을 위해 '신+구 건축형태의 만남'과 같은 지역차원의 특화전략 수립 : 선비마을 조성(숙박, 체험기능 강화)+ 국립국악극장 또는 국제타악기전용 극장 등의 시나리오를 작성



〈그림 124〉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그림 125〉 구마모토 세이와 분라쿠 전통인형극장

출처 : <http://blog.joins.com/kimkuk76/6090871>

예)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센다이 미디어테크, 오스트레일리아 오페라 하우스

예) 구마모토 세이와 분라쿠는 지역고유의 전통인형극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지역에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

- 공공건축과 연계시설 확보와 함께 소매상업 활성화 전략을 도모, 지역토산품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범용적인 음식점, 카페, 의류점 등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건축 정책실현을 위한 운영전략

3

1)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에 의한 점진적 확산 도모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한 대규모 건설사업과 공공건축사업은 이 벤트성이 강하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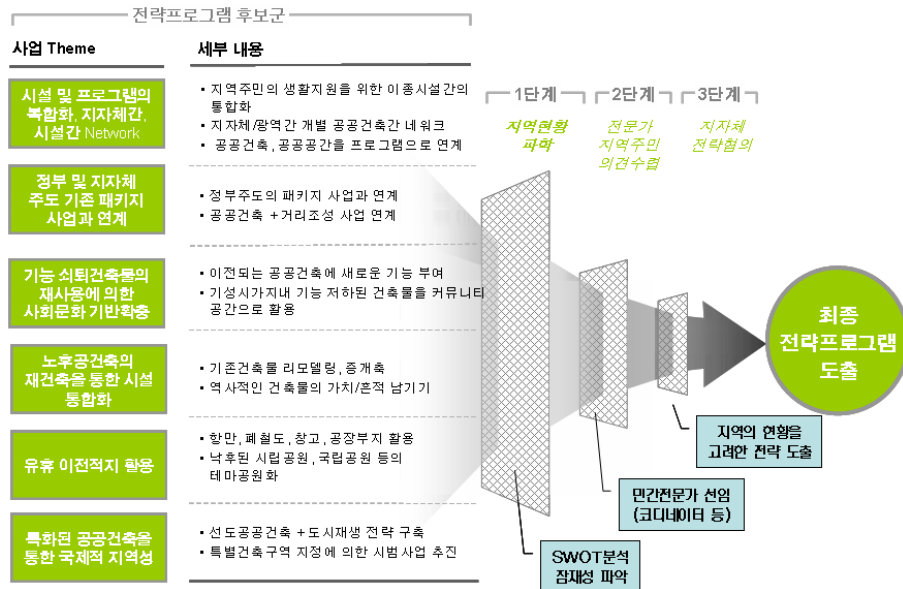
반면에 공공건축은 공공이 주도하지만 규모가 작은 공공화장실에서부터 버스 정류장, 면사무소, 동사무소 등의 소규모 행정청사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다. 이에, 공공건축은 지역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건축으로 지역만들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전제로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이미지를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의 획일화된 공공건축 건설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에 적합한 디자인을 발굴하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연속해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⁷⁹⁾

공공건축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 정책과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지역발전 로드맵을 작성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하나하나의 실천전략이 장기적으로 구체화되어 축적되면 공공건축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 장소 만들기가 실현될 수 있다.

79) 무주의 경우, 정기용 건축가가 참여하여 약 10년에 걸친 공공건축 사업을 통해 지역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공공건축으로 지역성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커미셔너라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6〉 로드맵 작성에 의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전략 수립

2)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1) 총괄관리체계

앞에서 공공건축의 생산체계 문제로 전문가의 부재와 공공건축을 총괄관리하는 조직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특히, 칸막이식 행정과 이로 인해 개별화, 관료화, 획일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공공건축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총괄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단계로는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한 개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는 위치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단계로는 개별 공공건축물내에서도 주민과의 접촉이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두고, 또 주민이 사용 가능한 영역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겨 지자체가 통합해서 관리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의 거점으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공공건축 총괄기구'를 조직하고,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건축의 총괄기획, 설계, 관리·운영을 전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공건축 관련 재정

지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축 총괄기구는 건축가, 사회학자, 프로그램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을 두고, 각 분야간 소통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기획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전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기본법에 의해 구성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가적 차원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리뷰(review)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하는 기획단내에 공공건축을 총괄하는 공공건축부를 설치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발주, 디자인, 관리운영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시설별로 운영되는 각종 지침의 통일과 공공건축 관련법규를 통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가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및 공공건축 건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해 중앙부서에 재정지원을 신청하고, 광역단위의 네트워크 체계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와 형식적인 협의절차가 아니라 입지선정, 기능, 프로그램, 디자인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도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을 종합 관리하는 지자체 단위의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⁸⁰⁾

(2) 민간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관리체계에 건축기본법상 민간건축가 활용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코디네이터, 커미셔너를 선임하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공공건축 전반에 관련된 디자인 방향설정, 건축가 선정방식 검토, 디자인 리뷰를 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전문가 활용체계가 구축되면, 중앙정부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을 건설할 때, 사전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해관계 대립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간전문가가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보함으로써 바람직한 공공건축 조성을 유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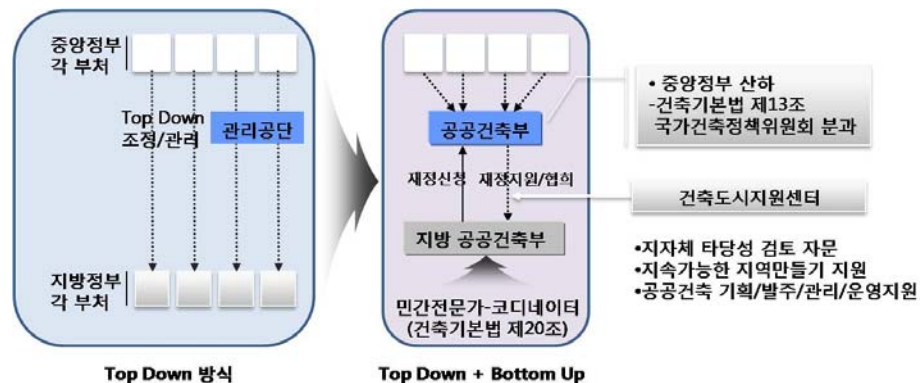
각 지역에서의 민간전문가 활용은 전문행정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상황에서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80)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 관련 기획, 설계발주는 전문성이 부재한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며, 발주업무만 회계과에서 일괄로 담당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3) 건축도시지원센터 설립에 의한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저변확산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공공적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축도시지원센터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도시지원센터는 지역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방향설정, 발주방식 결정, 프로그램 기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공공건축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각 주체의 의식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입안자, 각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행정가, 건축가, 지역주민 모두가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에 조직되는 공공건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조성될 수 있는 건축도시지원센터가 이러한 교육, 홍보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림 127〉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3)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최종 수요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공공건축의 문화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예산편성 및 심의, 사업수행,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한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지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적용하는 지표는 면적이나 시설에 대한 정량

적 기준에서 벗어나 좋은 공공건축을 건설하기 위한 가치판단이 가능한 정성적인 지표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¹⁾

또한, 기획단계에서의 평가뿐 아니라 건설 이후 운영, 관리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건설되는 공공건축에 반영하고 평가대상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자 참여의 공공건축 조성 체계 도입

시민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가와 건축가, 코디네이터가 함께하는 주민 워크숍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고 주민 스스로 공공건축 조성의 주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모든 공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향후 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한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공공건축 기획 및 설계단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디자인' 제도를 규정하고 각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의 디자인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디자인 방식은 디자인 게임, 주민제안 디자인 제도를 적용하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평가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새로운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에 의한 공공건축 생산체계의 환류시스템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

5)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신진건축가 발굴

공공건축의 건축적 문제로 설계수준의 저하, 낮은 시공수준, 기술력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적은 예산과 기획력 부재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 등이 그 원인이며 관료적이고 관행적 설계 및 시공과정에 따라 신기술과 신자재 적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81) 영국 CABE의 'Better Public Building'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정책입안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좋은 공공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성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지역에서 공공건축은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신진건축가의 발굴과 지역문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역건축가를 양산, 교육시키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공공건축 생산과정자체가 지역에서는 건축문화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생산과정에서 신기술과 신자재 적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신진건축가를 발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주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⁸²⁾ 신진건축가들의 발굴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건축물은 신진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을 통해 신기술의 실용화를 검증하고 이를 위한 시험비용의 국고지원과 연구지원 등 건설 신기술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82) 공공건축을 통해 위험부담 감소형 CM방식, 공기단축 발주방식, 성능보장형 계약방식, 최고가치 방식 등 혁신적인 발주방식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VI.

결론

1. 연구 성과 및 한계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a u r i

결론

1

연구 성과 및 한계

본 연구는 공공건축이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료적 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시설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공공건축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행정관료 중심의 관행적 생산체제로 일관되어 왔던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관련 법제도를 통해 분석하였고 공공건축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건축 생산과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건축이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와 규모로 조성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현황과약을 위해 인구 규모별로 5개 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조성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문제점으로 첫째, 중앙 정부 중심의 관료화된 공급체제로 인한 자자체 자율성 확보 미흡, 둘째,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공건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거점 기능 미흡, 셋째, 결과물 중심의 생산체제로 인한 창조적 공간계획 미흡, 넷째, 개별화된 공공건축 조성과정으로 인한 지역내 시설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저하, 다섯째, 미학적 관점에 치중한 설계로 인해 공공건축의 종합적 성능확보 미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관련된 행정가, 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주체의 문제와 생산시스템, 프로그램의 부재로 귀결된다.

이러한 공공건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점, 선, 면의 네

트위크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공공건축,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 이야기가 있는 공공건축, 경제성을 고려한 공공건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로 지금까지 공공건축에 내재한 문제와 한계를 현황 파악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지역중심의 공공건축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공공건축 정책방향은 일반해로서 이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천 가능한 세부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바람직한 공공건축이란 생산주체와 사용주체 모두가 공공성을 창출한다는 목표의식에 대한 합의형성을 전제로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사람, 시스템,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국한하였다. 또한, 연구추진과정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부재, 관련 행정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료습득의 한계,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과 지침들의 혼재 등으로 공공건축 실태 파악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문제와 일반해로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마다 공공건축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실천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참여, 행정지원 등 다양한 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2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의 공공건축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 공공건축 총괄기구 및 민간전문가 참여에 의한 총괄관리체계 구축, 공공건축 성과관리체계 개발을 비롯하여 사용자 참여의 공공건축 조성시스템 개발 및 신기술 도입과 신진건축가 발굴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각 정책은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정책대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수행 및 사회각계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영국의 CABE와 같은 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사전리뷰 시스템인 DQI(Design Quality Indicate) 및 성과지표(KPI)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영국의 CABE를 비롯하여 일본의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네덜란드의 국가건설청 등의 기구에 대한 참조선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축기본법에 의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국내 행정조직에 맞는 조직체계 구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건축 품질과 품격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건축도시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방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계방식 개발과 이를 위한 시범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 발주제도 방식 개선,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건축 관련법제도의 통합화, 공공건축 시설통합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공공건축 전문가 면담

· 부록2

공공건축 관련 일본 공무원 면담

· 부록3

지자체 실태 조사

(a u r i

참고문헌

- Innes Pearse and Lucy Crocker(1943), “The Peckham Experiment”, London
- John Comerford(1947), “The Story of the Peckham Experiment”, London
- 강욱, 2003,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성 및 공공 영역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건설교통부, 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 국토연구원,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보고서」
- 국토연구원, 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 국토연구원, 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 기획예산처, 200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 2007, 「2008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 김선웅, 1999,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성현, 2000, 「생활권 중심시설의 적정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홍 외, 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 김수암 외, 1997, 「공공건축물의 설계표준화지침서 개발 연구」, 건설교통부
- 김승희, 2006,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사업의 진행과정”, 「건축과사회」, 겨울호
- 김영은 외, 2006, “통합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v.15 n.3(통권 56호), pp.136-143

- 김훈, 2002, 「우리나라 지방채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외, 2006,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도시설계 학회 춘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4, pp.37-48
- 남해경, 1992, 「“공공성”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연구」, 건설교통부, 대한 주택공사
-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 MOCA, "City of Los Angeles", <http://www.ci.la.ca.us/>
-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 MOCA, "MOCA",
http://www.moca.org/museum/us_popup_history_1.php
-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 MO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http://en.wikipedia.org/wiki/Museum_of_Contemporary_Art,_Los_Angeles
- 류중석 외,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박영기, 1994, “커뮤니티 시설의 배분모형 및 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0 n.6(통권 68호), pp.43-53
- 박영정 외, 2004, 「토론회_공공문예회관 건립 및 시설의 문제점과 제안」,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08, 「2008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서정숙 외, 2007, “공용청사 프로그램 복합화에 따른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7 n.1(통권 제51집), pp.439-444
- 송혁준, 2003, 「지역문화복지시설 복합화를 고려한 청소년수련관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6, 「금산 다락원의 행정적 건립배경과 건축계획 및 활용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경주, 1994, 「종합 사회복지회관 계획」,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센다이 미디어테크, “All that New media : 센다이 미디어테크 리포트-2”,
<http://media.gloos.com/217143>
- 센다이 미디어테크, "inquiriessendai mediatheque",
<http://www.smt.city.sendai.jp/en/smt/about/character>
- 센다이 미디어테크, “[연재]정현수기자의 일본건축 이야기 - 건축웹진 아키닷컴”,
http://www.ar-chi.com/magazine/view.php?id=Series_JHS_Japan&no=18
- 온영태,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 전략”, 「도시내 커뮤니티 활성화(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제세미나)」, 2006.11, pp.1-54
- 유순희, 2005,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생 외, 2005, “도시의 내부화 요소와 커뮤니티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6 n.1(통권 제50집), pp.321-324

- 이동균 외, 2006,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참여조직의 관계구도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4, pp.60-73
- 이상헌, 2001, “한국 도시건축의 공공성 비판과 공공부문에서 건축가, 도시계획가의 역할”, 「문화과학」, 통권25호, pp.329-344.
- 이연수, 2006, “[특집]서울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BTL 활용방안”, 「대한건축학회지」, v.50 n.2, pp.41-44
- 이용광, 2003, “면적구성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보건소 표준시설 기준의 도시 보건소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통권40호, pp.102-108
- 이은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방안-서울시 서초구 사무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열, 2002, “영주선비촌 개발계획”, 「한국건축역사학회 월례회 강연집」, 2002. 4, pp.15-23
- 정승준, 200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1996, 「지역문화시설의 공급과 건축공간구성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명래, 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공공건축포럼 발제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영국 외, 2006년, “현대건축의 공공영역에 나타나는 경계 변이의 양상과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6 n.1(통권 제50집), pp.185-188
- 주유돈, 2003, 「대도시 학교시설 복합개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페컴도서관, “Better Public Building” , <http://www.betterpublicbuildings.gov.uk>

페컴도서관, “CILIP Public Libraries Group Home” ,
<http://www.cilip.org.uk/groups/plg/plg.html>

페컴도서관, “Peckham Library (introduction) Case Studies CABE” ,
<http://www.cabe.org.uk/default.aspx?contentitemid=231>

페컴도서관, “Southwark Council Your Services Libraries About Peckham Library” ,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bookgroups.html>

페컴도서관, “Southwark Council Your Services Libraries About Peckham Library” ,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edlibraryservice.html>

페컴도서관, “Southwark Council Your Services Libraries About Peckham Library” ,
<http://www.southwark.gov.uk/YourServices/LibrariesSection/peckhamlibrary.html>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5, 「건축규제통합관리방안연구」,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건축도시환경 공공사업 정책실태 조사 연구」, 대통령자문 건설
 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한국도시시설학회, 2007, 「과주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한국조달연구원, 2007,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 조달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 「단지규모별 유치시설의 종류, 규모 및 형상에 관한 연구」

행정복합도시건설청, 2006, 「복합건축물 도입전략 수립을 위한 사례조사 출장보고서」

summary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raising values of public-building

Seo, Soo Jung
Cho, Jun Bae
Lim, Hyun Sung

This study seeks to propose a strategy, or policy, for the redefinition of public building that works as a center point of regional-based cultural society. The initiation is from recognizing its failure to function as a service facility that provides for local residents due to the lack of publicness.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of public building that has only so far been kept to customary manufacturing systems run by administrative officials, was scrutinized via the justice system. Further, layed out plan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focuses on community revitalization was studied up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five local governments with varying demographic degrees. Actual condition was determined by finding out how community architecture was shaped and operated in each district and what form and dimension it took on.

Concerning the topic of public building, the following problematic issues were drawn out from this research: first, local government's lack of autonomy due to the bureaucratized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second, weak function as a livelihood base for local residents due to uniformly developed public building; third, insufficient designing of creative spaces due to a productive system focused overwhelmingly on the outcome; fourth, decrease of connectivity and overlapping of facilities within districts due to isolated and independent development; and fifth,

failure to secure overall performance for public building due to a design process predisposed to aestheticism. In other words, the cause lies in the lack of a program in the production system along with the participatory error of administrators, professionals, and citizens with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ublic building.

Following is the proposed and given strategical orientation in response to the stated problems; a public building that is formulated by the network of point, line, and face, a public building where the users become the center, a public building that is suitable for regional adaptability, a public architecture that has a story, and a public building that is economical. Furthermore, regional-based strategy covering public building and the inventory of its specific means of practice was proposed.

Several strategies were indicated to realize the proposed quality-enhancing policy for public building. In such a list were included the development of long-term road maps in local government-scale, setting up of general management system that is participated by organization for public building co-operation and public architect, the systematic development for user-participants in ways such as a product management system, the inducement of new technology, and then more such as scouting for rising architects.

Ultimately, an idealistic public building would mean the forming of a cultural strongpoint that is under the preposition that both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hold a mutual consent for public

welfare and creation. This is achieved when all subjects involved - the people, the system, and the program - come together in an inter-connective bond.

This study is limited to indicating a general problem of the public building and does no more than propose a strategical orientation. In addition, much restriction was present during the research process because of the lack of conditional database concerning public building and difficulty arose in obtaining data by the frequent personnel changes within related administrations. Different regulations and guidelines operated by each departments added to the confusion. Each proposed policy are now in the form of basic orientation. In order for each to become actualized, orderly reforms are necessary and they are to be based on public opinions from related research and also other fields of society.

Hereafter, it is crucial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regional public building and then to not only recognize the cause of its underlying problem, but to also formulate a practical strategem for each district. Furthermore, variant attempts such as system reformation, specialist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support, and others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turn public building back into a living space for the urban citizens.

keyword : Public building, Ordering Process, Design Strategy

부록 1.

공공건축 전문가 면담

□ 자문위원 : 백승만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7. 11. 06

1) 한국 공공건축의 문제점

- 한국의 공공건축은 디자인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점점 건축가의 위치와 역할이 사라져 가고 있음
- 대부분의 공공건축은 정부의 발주시스템에 따라 디자인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질적 가치보다는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고 있음
- 공공건축 프로그램의 부재가 심각함

2) 시정연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내용

- 개별 공공건축물이 갖는 독립성과 개별성, 디자인의 가치 저하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과제 시작
- 시정연의 과제는 공공건축의 발주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서울시의 공공건축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시청사나 박물관, 청계천 등과 같이 이벤트성 건축물이나 중요한 시의 정책과 관련한 프로젝트는 별도의 TFT를 구성하여 관리(발주에서 준공, 관리까지)
-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발주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하기는 어려우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 시설물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발주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자 함
- 연구결과는 11월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임

3)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방안

- 현재, 서울시는 부처별로 발주·관리되는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미흡한 상태임.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필요
- 공공건축을 위한 건축가 선정방식 개선이 필요
- BTL, TF방식 등 발주시스템의 다양한 개선 필요

□ 자문위원 : 임상관 소장, 박인범 팀장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7. 11. 13

1) 금산 다락원 프로젝트 추진배경

- 가나아트센터 설계 발표회에 금산군수(김행기 군수) 참석, 금산군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우연한 만남을 가짐
- 당시 금산군 군수는 인구 5만 정도의 금산시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금산군의 기본정책을 '자연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책정
 - 골뚝 없는 청정 군산 만들기 :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공장허가 불허(현재 한국타이어 공장이 입지함, 추가 공장유치는 불허)
 - 청정한 도시를 상품화하여 관광자원을 개발
- 다락원 프로젝트 추진 당시 금산군이 추구하는 도시건축 관련 정책방향
 -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처별 예산액은 적으나 이를 하나로 모아 집중된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군수의 생각이 있었으며, 이 예산들을 하나로 모아서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에서부터 프로젝트가 추진됨
 -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시설설치 비용에 따라 공공건축을 건립할 경우, 시설별 공간프로그램이 중복(회의실, 공용홀, 관리, 변전실 등)되므로, 이를 하나로 결집할 경우 중복된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집중해야 할 공간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합리적인 공간프로그램을 계획
 - 군수가 전 군민의 문화예술의 진흥, 군내 건축물의 문화적 품격향상을 위한 정책기조를 제시

2) 금산 다락원 프로젝트에서 군과 건축가의 관계

- 다락원의 기획은 임상관 소장이 지원하였으나 다락원 설계는 현상설계로 선정하였으며, 설계지침서에 프로그램과 시설간의 복합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

- 문화부, 복지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에서 지원하는 12개 사업예산을 하나로 모아 문화관광과에서 취합하여, 설계 발주에서 준공, 운영관리계획까지 전담(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금액과 시설이 가장 많았으므로)
- 각 부처간의 이해대립과 의견조율은 문화관광부 담당 공무원이 전담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여 설계자는 이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3) 시설별 프로젝트에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시 주안을 두었던 점

- 프로그램과 하드웨어적인 건축물과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나, 대다수 공공건축발주는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못함
- 현상설계 등을 추진할 때 프로그램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각 시설에 맞는 전문가를 결합하도록 현상지침에 제시(일례로 양주시 테마공원 공무원, 음악이나 미술 관계자들과 협동하여 계획안 작성, 현재 추진중)
-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처별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음. 부처별로 지원금액에 대비하여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한 중복의 문제 발생
-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을 담당 행정가가 중재역할
- 체육진흥공단에서 수영장 보조금을 가장 나중에 받음. 이후, 설계안을 추가하여 수영장 건설. 이 과정에서 체육진흥공단측에서 독립된 건물로 건설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문제제기. 이에, 건축대안으로 수직분할에 의한 독립성을 확보
- 프로그램 개발 시 지역 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음. 홍사정 교수팀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였고, 금산군의 발전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있었음. 이들 결과를 결합하여 다락원 프로젝트 실현
- 준공 이후, 모든 시설은 금산군으로 이관이 되었고 금산군에서 직접관리. 다락원이라는 부서가 생겨남. 53명의 전담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29명이 공무원. 다락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4) 금산 프로젝트 추진시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부처별 예산지원의 한계. 지원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규모, 면적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설설치가 어려움. 다락원의 경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이 가장 어려웠음

-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기획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이 없음
- 각 부처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일괄로 취합,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설규모의 배분, 정산내역 등의 문제 발생. 담당 부처별로 정산금액과 시설지원 규모에 대한 불일치를 문제로 제기. 복합화를 위한 기본전제가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난관을 겪음
- 모든 일은 인식과 해석의 문제임. 공무원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
- 다락원 프로젝트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각 시설을 통합하고 복합화할 수 있다는 조향을 마련
- 법을 악용한다는 문제로 인해 강제규정이 너무 많아 인허가 과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음
- 발주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함(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대가기준이 없음)

5) 금산 프로젝트에서 코디네이터의 유무 여부와 그 역할의 수행 방법

- 금산의 코디네이터는 담당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

6) 공공건축 프로젝트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기여 정도에 대한 생각

- 금산 다락원 이후 금산군 공공건축의 가치가 향상됨. 관내 건설되는 인삼랜드 휴게소, 인삼박물관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금산군의 다락원은 준공 이후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었음
- 다락원 프로젝트 이후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교육의 장이 됨

7) 지역사회에서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

- 다락원 건립이후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짐. 동아리 모임방이 생기고 축제 시 이들의 장기를 발현하는 장이 만들어짐

8) 지역의 도시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보해야 함

9)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의 장소성 회복과 금산 다락원과 같은 예를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확산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 시설설치 후, 이용에 대한 문제. 금산군과 같이 소규모 도시에서 각 시설들을 중복 설치로 인해 예산낭비 발생
- 각 자치단체 사이에 공공건축의 네트워크화 필요. 중복은 피하고 집중하고 핵심 기능을 강화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10) 금산 다락원의 성과

- 각 공공건축의 복합화를 통해 시설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실현
- 관리운영상의 중앙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비 절감
- 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가족이 한 장소에 모여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락원의 모든 운영비는 군비로 지원, 복합화를 통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대상군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받음

□ 자문위원 : 정기용 소장

□ 장 소 : 기용건축사사무소

□ 일 시 : 2007.11.08

1) 무주 프로젝트 추진 배경

(1) 무주군수와의 개인적 만남

- 무주군수와 건축가의 개별적인 관계로 시작. 당초,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무주군 목사님의 부탁으로 마을회관을 흙으로 설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프로그램과 건축설계를 동시에 의뢰하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민과 함께 시작
- 무주군 마을회관의 경우, 땅은 개인이 회사하고 군에서 건설비를 지원. 대다수가 노인으로 구성된 주민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주민참여형 공공건축 설계 프로세스 시작. 처음에 주민들은 흙에 대한 구조적 불안으로 인해 건축가가 제시한 설계안에 반대하였으나, 이후 서울 건축가의 사무소를 방문, 흙집에 대한 답사를 하였고 그 이후 주민회의를 거쳐 당초 제안되었던 안이 채택됨.
- 이 과정에서 고령자들은 마을회관에 목욕탕 설치를 요구하였고 건축설계 과정에 이 요구를 반영함
- 당시, 무주군수는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관 주도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무주군 마을회관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에 공감을 표명하고 이후 무주군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관여
- 2006년 무주군수의 퇴임 이후, 더 이상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음. 군에서는 기존과 같은 입찰이나 공모방식으로 건축가를 선정

(2) 무주군의 정책상황

- 마을회관 준공식 때, 무주군수(김세웅 군수)가 참석. 무주군은 도시계획위원들로부터 무주군 발전을 위한 도시경관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홍수로 인한 지역의 열악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었음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무주군의 상권이 약화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 수요가 있었음(tunnel effect)

2) 무주 프로젝트에서 무주군과 건축가의 관계

-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는 무주군수의 강력한 권한과 의지로 실현 가능하였음
- 시설별 발주부서와 시설 담당부서가 달랐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군수의 직접 지시로 수행. 이로 인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시설별로 부서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없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재
- 프로젝트 발주방식은 수의계약이 어려웠으므로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위탁을 받고 프로젝트가 큰 경우에는 몇 단계로 나누어서 위탁시행. 그러나 보수는 일반적 보수규정에 미달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무료로 설계를 해주기도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행정담당자와 의사결정의 문제점 : 군의 예산집행방식과 시기, 절차 등과 프로젝트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 특히,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 일례로, 도서관 건립시,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물에 투입하면 좀 더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예산 항목과 집행시기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함. 이 과정에서 행정담당자와 이해대립 발생

3) 시설별 프로젝트에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시 주안점

- 공설운동장의 경우 관과 민간 사이의 평등을 만드는 관계로부터 프로그램 만들기 시작. 공공건축은 사용자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행정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수정해 나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은 프로그램이 없음
- 결과물보다는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는 프로세스에 주목

4) 무주 프로젝트 추진시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발주방식의 한계 때문에 수의계약 범위로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음
 - 건축물의 문제는 개별건축물보다는 도시 속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나 모든 행정시스템은 건축과 도시가 분리되어 추진됨. 특히 행정의 분리는 지역의 좋은 장소를 만드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예) 군청 뒷마당을 조성할 때, 군청을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발상을 했으나 주차장은 토목부서에서 추진함에 따라 건축물과의 관계, 지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계획안이 제시됨. 이에 따라 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됨.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담당자와 갈등이 있었음

5) 무주 프로젝트에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수행

- 개별 시설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로서 지역의 통일된 환경창조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국내에서 불가능하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 무주군에서는 군수의 강력한 권한으로 개인 건축가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도 컸음. 이것은 특수한 사례로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6) 공공건축 프로젝트가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기여 정도에 대한 의견

- 공공건축을 통한 장소성 회복이 지역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행정과 주민, 건축가가 모두 참여하여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해야 함

7) 지역사회에서 공공건축의 사회적 역할

- 지역사회에서 공공건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축 프로그램 만드는 일에 주목해야 함
둘째, 총체적 시각(holistic approach)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문화, 복지, 주민 커뮤니티 형성, 사업화를 통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 등
셋째, 거버넌스적 접근(governance approach)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8) 지역의 도시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

- 향후,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회적 코디네이터(social coordinator)로서 기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
- 주거, 복지, 예산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마스터플랜은 개략적 범위 내에서 향후 개발방향만을 담는 정도로 수립하고 코디네이터의 기능을 통해 도시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함
예) 프랑스 리옹프로젝트

- 도시·건축의 분리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해야 함. UIA에서 정의한 공공건축가란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근거하여 현대적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명시. 이에 따라 개별 건축물의 설계에서 벗어나 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함
- 부분으로서의 전체와 전체로서의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 코디네이터의 역할

9)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의 장소성 회복과 무주군과 같은 예를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확산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

- 무주군의 경우, 예외적인 프로그램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음
- 건축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
 - 첫째, 타당성 조사가 필요. 경제적 타당성이 아니라 수요자에 대한 판단 필요
 - 둘째, 전국의 공공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화,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 공공건축물의 개조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신규 공공건축물에 투입되는 예산 절감 기대. GIS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이를 공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방 교부금의 난립문제를 해소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해야 함. 일례로 광주 문화도시건설은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며, 프로그램도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지자체임. 이들간의 합의형성이 안 됨. 이를 해결하는 문제가 시급함
- 프로그램의 조사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주민참여방안 등을 고려
- 공공건축 건축가 선정과정의 개선필요. 공공건축의 경우, 설계 모든 과정을 공공이 검토·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공건축 허가는 특별허가 방식을 도입해야 함. 특히 허가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또한 주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

부록 2.

공공건축 관련 일본 공무원 면담

요코하마 MM21 프로젝트

□ 자문위원 : Kawate Kouta(미나토미라이 21 추진실장)

□ 장 소 : 요코하마시청

□ 일 시 : 2007.12.18 14:00~15:00

1) 추진배경

- 요코하마의 6대 사업 중 도심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1965)하였고, 8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음
- 미나토미라이의 목적
 - 요코하마의 자립성 강화
 - 항만 기능의 질적 전환
 - 수도권 업무 기능 분담

2) 추진경과 개요

- 지구별 개요
 - 상업지구
 - 중앙지구 : 랜드마크 타워, 퀸즈 스퀘어 요코하마, 퍼시픽 요코하마(컨벤션, 전시실), 숙박시설(각종 호텔)
 - 신코지구 : 요코하마 월드 포터즈, 아카렌카 벽돌 창고, 망요 클럽 요코하마 협력기구

3) 추진전략

- 기업 입지 촉진을 위한 시책
- 시세 감면 :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5년동안 50% 감면

- 조성금 교부 : 투자자산액의 10%
- 정부기반 시설 확립 : 공동구 정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지역 냉난방 시설로 전체 건물의 공조를 제어
- 마찌쓰꾸리 기본협정 : 토지의 이용 용도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제안되며, 세부시설은 실제의 관계자에 의해 건물의 높이, 스카이라인, 색깔, 간판의 크기와 같은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갖게 됨
- 현재 남은 28%의 용지는 가격이 아닌 계획안에 따라 선정되며 이는 마찌쓰꾸리의 기본 협정에 준하여 결정됨
- 이러한 정책은 토지가격을 도쿄의 30%로 낮추고 민간 사업시설의 유치를 통한 매년 100억의 조세금을 확보하여 이미 투자금액의 70%를 환수한 상황
- 방재시설(요코하마 해상방재기지)과 공원시설(해안선에 접근한 각종 공원 설치 (린코파크, 신코, 아카렌카, 니혼마루 메모리얼 파크 등) 완비
 - 역사적 자산을 활용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꾀함

4) 요코하마의 공공건축에 관여하는 기관

- 공공건축의 관리,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요코하마시에 있음. 요코하마시가 주최(50% 출자율)가 되어 민간 주주들을 끌어들여 주식회사로 만든 것이 제3섹터이며 사업의 계획 및 개발을 담당

5) 미나토미라이 추진회와 제3섹터의 업무의 구분

- ‘미나토미라이 21 추진회’는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제작 운영하며, 제3섹터라고 하는 주식회사는 공공시설 사업을 개발, 진행함으로써 민간 시설의 유치를 담당

6) 마찌쓰꾸리의 법적 구속 권한과 준수 실태

- 법적인 구속 권한은 없으나, 진행 초기부터 공모 방식을 취하여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마을만들기 기본안의 반영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을만들기 조례나 협약을 따를 수밖에 없음

7) 오산바시 항만 터미널의 사업 주체와 공모진행 방식

- 요코하마시의 국제공모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진행과 관리는 제3섹터에서 맡고 있음

8) 요코하마시와 국토교통성 영선반이 담당하는 공공건축의 구분

- 요코하마시가 소유한 토지, 지역 안에서의 공공건축은 시에서 발주, 진행하며, 국토교통성은 국가시설만 담당함

요코하마 MM21 프로젝트

□ 자문위원 : 요코하마 공공디자인 실장

□ 장 소 : 요코하마시청

□ 일 시 : 2007.12.18 15:00~16:30

1) 요코하마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

- 물리적 맥락

- 도쿄에서 30km 근접 거리
- 인구 70만명 광역 도시 3개 인접
- 인구 360만명(도쿄 제외 최대 인구)

- 역사적 맥락

- 간나이 지구의 개발 역사
- 에도시대 '동해도' : 도쿄 · 오사카를 잇는 중간 지점
- 높은 구릉에 둘러싸인 낮은 지역
- 1859년 요코하마 개항(미국)
- 일본인의 접근이 제한되며 해로로 둘러싸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
- 외국인 거주지역과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분리 관리(경계선 '모토마치' · 외국인에게 거주민이 밀려나 새롭게 자리 잡은 곳)
- 관동 대지진으로 폐허
- 전쟁 중 요코하마 전설
- 미국의 요코하마 접수 → 중추시설이 도쿄로 이동 → 요코하마의 낙후 시작

2) 요코하마의 개발 배경과 전략

(1) 개발 배경

- 1960~1980년까지 20년 동안 인구의 급속한 증가(2배)
- ① 주택문제, 난개발(스프롤, 녹화의 경감)
- ② 기간시설 미정비(학교, 도로 등)
- ③ 환경문제(도시 폐기물 처리 문제)

(2) 개발 전략

- 요코하마 6대 사업 시작
- 도심부 강화사업, 미나토미라이 사업
- 난개발 대책, 코호쿠 뉴타운
- 거주지 확장, 카나자와 매립지
- 교통 대책, 고속도로 정비, 베이브리지, 철도건설

3) 도시 만들기 전략과 내용

(1) 도시 만들기 전략(1968~)

- 목표 : 각 지역 특유의 공간적 매력 형성
- 3가지 대처
 - ① 공적 프로젝트 생산
 - ② 개발 조정
 - ③ 도시 디자인실 개성적인 마을 풍경(1971~) : 도시의 개성 창출, 도시의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2) 도시 만들기 세부 내용

- 전통의 간나이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시디자인 시작 →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바닥 포장의 디자인, 안내판 디자인, 민간 건물에 디자인 요소 삽입

① 광장, 프롬나드

: 자전거 → 보행로, 녹지공간으로(칸나이역 앞의 쿠스노카 광장)

② 보행로 확보, 디자인 통일

③ 정연한 거리의 창출 색채 연출, 광장 공공공간 이전확보(야마시타 공원가)

④ 역사자산의 보전활용, 구제일은행, 일본홍아 상공 장려관, 야마테 지역의 서양관

· 도시 만들기 실례

① 광장 계획, 개항광장

② 개성적인 상가 · 마차도, 이세자키 물, 모토마치 상가

③ 정연한 거리 창출과 색채 연출, 바사미치(마차도) 마을 만들기 협정

4) 미나토미라이 21 계획

① 지역별 경관형성 기준

② 스카이라인

③ 보행자 데크 네트워크

④ 색채기준

⑤ 건축물의 최저 높이 : 미나토미라이 대로 연도지역 · 건축물 최저 높이 60m

⑥ 벽면의 후퇴기준 : 미나토미라이 대로 연도지역 · 건축물의 높이 31m를 초과하는 부분의 벽면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멀리한다.

5) 외부 전문가나 코디네이터 등의 urban design 활용 방안

- 외부 전문가, 아티스트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

6) 공공건축과와 도시디자인의 차이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가이드라인, 마을활성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

- 공공건축과에 공원과 도로 같은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이러한 부서들의 통일된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연결 중재하는 부서가 도시디자인과임

7) 디자인과에서 요코하마 전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관장 부서

- 전체는 다할 수 없으며, 도시의 중추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디자인팀이 함께 연계하여 작업함. 예를 들어 오산바시 터미널 같은 경우 사전 계획에 도시 디자인 실장이 직접 관여하였고, 설계공모 중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음

8) 도시디자인 실장의 개인적인 열의와 관심과는 별도로 각 부서간의 연계 시스템

- 시스템은 없으나 암묵적으로 협조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

9) 공공건축의 발주는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 수용 여부

-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건물을 짓고,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발주, 운영, 관리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짐. 중앙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항, 문화청 등의 예를 제외한 시민들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공공건축물은 지자체에서 담당

10) 중앙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허가권 및 협조 여부

- 허가권은 없지만 강력한 협의권을 가짐

11) 마을만들기 협정과 조례의 차이

-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의견이지만 조례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하지만 의견이 충돌하면 시 조례는 법적인 제도 변경이 수반되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협정이 훨씬 유리함. 하지만 원칙적으로 협정과 조례는 큰 차이가 없음

나가사키 Renaissance 프로젝트

□ 자문위원 : Tomohiro Sonoda(토목부 경관개발과)

□ 장 소 : 나가사키 현청

□ 일 시 : 2007.12.19 09:00~10:00

1) NUR 프로젝트의 외부 전문가 참여

-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단 한 명의 건축가로 구성, 호리이케 하야토는 나가사키 출신의 건축가로 간척지에 수로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으나, 주변의 초기 건물 중 페리터미널과 창고건물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혹평을 받음
- 도지사가 바뀌면서 외부 전문 건축가도 여러 명으로 선정
- 지사가 위탁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설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어드바이저이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조정 강제성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큰 관건은 재정문제

2) NUR 프로젝트시 현청과 중앙정부의 관계

-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은 없으며, 다만 재정지원만 중앙정부가 함

3) 공공건축물의 발주

- 미술관의 경우, 현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으며, 제안방식의 입찰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
- 제안방식의 제출물은 그림과 모형 정도이며, 공사비는 미리 정하고 시작
- 미술관의 프로그램 기획은 현의 문화스포츠 분과에서 기획 제안하고 개인 건축가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이것을 디자인위원회에서 현에 맞게 조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직접 발주
- 중앙정부가 현에 직접 건물을 지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토목부 경관개발과의 디자인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 학교와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외에는 관계가 없으며, 디자인은 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재정범위 안에서 해결
- 중앙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건물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공항은 정부가 기획하지만 건물은 지역에서 계획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객시설은 지역에서 그리고 관제탑은 정부에서 발주하며 나라국제공항의 경우 정부가 관리함

4) NUR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 관광지인 나가사키현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현민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주변 접근이 용이하고 도심 문화시설 신설로 파급효과 큼

5) 주민의 참여

-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는 없었으며, 설명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이해를 도모했지만,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인정하는 상태

6) NUR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 전체 경관의 마스터플랜과 가이드 매뉴얼(manual)은 없으며, NUR 전체 마스터플랜도 매우 유연하여 계속 변하는 상태

7) 디자인 위원회

-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는 정기적으로 일 년에 두 번이며, 필요하면 위원회 소집가능
- 현재는 도시 계획가, 조명 전문가, 공원 및 경관 전문가, 건축가 등 5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므로 전문가 한 사람의 독주없이 디자인이 조정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 자문위원 : Fuminori Minakami(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실장)
- 장 소 : 구마모토현 토목부 건축과 마을만들기 추진과
- 일 시 : 2007. 12. 20 10:00~11:00

1)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배경 및 목표

- 추진배경

-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을 구마모토 전역에 확산하여 지역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
- 1988년 당시 구마모토현 지사였던 호소가와가 베를린의 IBA를 보고 담당자에게 IBA를 조사하도록 주문하고 구마모토현에도 IBA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
- 당시 담당자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아라타 이소자키를 커미셔너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음

- 목표

- 당시 IBA는 주거지정비 중심이었으나 구마모토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공공사업을 프로젝트에 포함, 주택·경찰서·학교·커뮤니티센터·토목기반시설 등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각 공공사업이 점을 형성하고 각 점이 선으로 네트워크화 되면서 결국 구마모토현 자체가 면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추진
- 통일감있는 지역이미지를 만들기보다는 점, 선, 면으로 확장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 안에서 개성적인 건축물의 다양성이 지역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만들도록 추진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사업추진대상 및 참여방법

- KAP에 참가하려는 현 사업, 시, 군 등이 신청하여 사업에 참가하도록 구상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사무국에서 KAP 사업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찾아서 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참여할 것을 부탁하여 사업수행
- KAP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공사업으로 행정이 남길 수 있는 것은 건축문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 KAP 사업추진 당시 일본 전역에는 건축문화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따라서 3%의 설계비 여유를 두고 수준 높은 건축을 만들자는 운동이 진행

- 운영조직

- 구마모토현 토목부 건축과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KAP 전담인원은 8명임

- 설계자 추천

- 커미셔너가 추천하는 건축가를 선정하도록 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 건축가 선정에 대한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져 프로포잘 방식으로 건축가 선정
- ※ 일본은 설계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한도가 없어 커미셔너가 추천한 건축가와 수의계약을 함
- 프로포잘 방식을 추진하되 심의위원은 커미셔너와 어드바이저가 하므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 가능함

- 커미셔너 추천방식 및 임기

- 1기 커미셔너는 지사가 추천하였으나 2기는 1기 커미셔너가 추천하고 3기는 2기 커미셔너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
- 커미셔너는 1년마다 계약하는 방식이며, 1년에 약 2,000만엔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는 커미셔너에게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됨
- ※ 커미셔너는 한 달에 두 번씩 회의에 참가하여 KAP 사업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자 선정, 워크숍 등을 추진

- 홍보방안
 - 4년마다 국제건축전을 기획. 홍보와 토론의 장으로 활용
 - 2008년 국제건축전(11월 28일)에는 아시아 건축전을 기획, 싱가포르, 타이페이 등의 신진건축가를 소개하는 장이 될 것임

3)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경과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 이후, 3명의 지사와 3명의 커미셔너가 있었고 지금의 이토 도요가 3대 커미셔너임
- 3기까지 진행과정을 통해 74건의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6건의 공공사업이 추진계획(구마모토 신칸센역사 재생사업과 오토시 소학교 계획 등)

4) KAP 사업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방안

- 점, 선, 면의 확장을 통한 지역이미지를 확보하며, 마스터플랜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건축물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다는 이념으로 사업을 추진
- 개성 있는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없음
- 최근 건축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전승하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건축물이 갖는 개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것이 도시문화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됨

5)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

- 지사가 바뀔 때마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그때마다 담당자와 건축가들이 KAP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예산 문제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때도 많았으나 담당자들의 애정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었음
- 000 팀장은 사업 초기에 KAP 사업을 구상하였고 순환보직으로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 최근 KAP 팀으로 복귀

6)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의 범위 및 개념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은 학교,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기상대나 국가청사 등은 국가에서 직접 관장
-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은 아직 KAP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포함할 수도 있음

7) 사업의 효과

-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 KAP를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물 판매와 호텔과 식당 영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 신축건물로 구마모토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도시경쟁력 제고. 시골마을에 건설된 분라쿠관은 당시 아무도 찾지 않는 농촌마을에 해마다 15만명씩 방문객을 유지하는 성과를 보임
 - 렌조피아노가 설계한 우시부카 하이야 대교는 구마모토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시킴
- KAP 사업과 일반 공공사업의 차이점
 - 구마모토현에서 추진하는 특수 건물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수 공공건축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KAP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함
 - KAP 사업은 멋있고 독특하며, 디자인이 우수함. 또한 주민이 사용하기 쉽고 인식되었으나 일반사업으로 추진한 공공사업의 경우 건축적으로 KAP 사업보다 가치가 낮다고 생각함
 - 학교도 KAP 사업추진 목적과 부합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 행정 + 건축가 + 주민의 합의로 사업추진
 - 현재까지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많은 회합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청취
 - KAP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서 행정과 건축가,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과 합의 도출

8) 향후 추진계획

-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에는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민참여방안 제고. 처음에는 주민의견을 거의 듣지 않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건물을 만들자'라는 인식만 갖고 사업을 추진. 그 결과 일부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도 있었고 불만족한 사업도 있었음. 따라서 향후에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합의형성 시스템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최근 지자체마다 공공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이미 많은 공공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도시재생차원과 기존건축물의 개조·개수를 통한 사업추진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9) KAP 사업과 같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점

- 추진하려는 사람들의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부록 3.

지자체 실태조사

충청남도 금산군

1) 일반현황

입지특성

-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호남의 관문도시
- 동측은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서측은 논산시, 전북 완주군, 남측은 전북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북측은 대전광역시와 인접함

교통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17번, 13번, 31번 국도 통과
- 수도권에서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결절지

인구 : 58,369명 / 23,512세대 (2006년 기준)

행정구역

- 1읍 : 금산읍
- 9면 : 복수면, 추부면, 군북면, 전산면, 금성면, 제원면, 남이면, 남일면, 부리면



[금산군 행정구역 및 주요 도로 현황]

2) 금산군의 공공건축물 현황

- 정부시설로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1개소 있음
- 기초생활시설에는 공공행정시설 17개소, 보건위생시설 4개소, 기반시설 2개소가 있음
- 여가생활시설에는 금산 다락원, 금산 문화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13개소 있음
- 생활복지시설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9개소 있음(어린이집 제외)
- 교육시설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50개소 있음

[금산군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분류(개수)		시설명
정부 건축	정부 시설 (1)	법무시설(1)	대전지법 금산군법원(등기소)
		청사	-
		외교시설	-
		군시설	-
		항공항만시설	-
공공 건축	기초 생활 시설 (23)	공공행정시설 (17)	금산군청(군의회), 금산읍사무소 외 면사무소 9개소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금산우체국, 금산전화국, 금산교육청, 금산선거관리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시설(4)	금산보건소(다락원내 건강의집), 을지병원, 새금산병원, 호사랑병원
		기반시설(2)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여가 생활 시설 (13)	문화시설	금산다락원(만남의집, 여성의집, 청소년의집, 장애인의집, 농민의집), 금산문화원(다락원내 생명의집-문예회관), 청산회관(다락원내), 교통안전교육센터, 금산문화의집, 추부문화의집
		도서관	인삼고을도서관(다락원내), 기적의도서관(다락원내)
		박물관	금산인삼전시관(GINDEX), 인삼전시관 연구동
		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장 및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다락원내 활력의집), 금산학생체육관
		공간시설	-
	생활 복지 시설 (9)	아동복지시설	향림원, 어린이집 ^{가)}
		노인복지시설	인삼골 건강마을, 성지원, 소망의집, 새누리 은빛마을
		장애인복지시설	다솜, 새터공동체, 밀알의집, 장애우평등학교
		기타	-
	교육 시설 (50)	유치원	공립유치원 15개소 ^{나)} , 사립 2개소
		학교시설	초등학교 18개소 ^{다)} , 중학교 10개소 ^{라)} , 고등학교 4개소 ^{마)} , 중부대학교

* 가. 어린이집 : 공립 3개소, 법인 4개소, 법인 외 2개소, 민간 13개소 등 총 21개소

나. 유 치 원 : 금산초교, 용진분교장을 제외한 전 초교에 병설유치원 15개소(사립 2개소 별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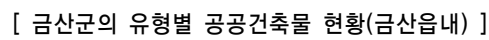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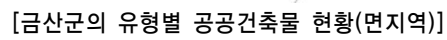
다. 초등학교 : 금산중앙초교, 금산초교, 금산동초교 (금산읍) / 금성초교, 금계초교, 제원초교, 부리초교, 군북초교, 용문초교, 상곡초교, 남일초교, 남이초교, 진산초교, 복수초교, 복수초교용진분교장, 신대초교, 추부초교, 성대초교 (이상 면지역)

라. 중 학 교 : 금산중, 금산동중, 금산여중, 진산중, 추부중, 부리중, 남일중, 복수중, 제원중

마. 고등학교 : 금산고, 금산산업고, 금산여고, 진산공업고

* 면단위의 지구대, 우체국, 마을회관 등은 대부분 면사무소와 인접하여 밀집해 있으므로 제외

* 공기업/공사의 지점은 제외: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 의료보험공단, 적십자사 등



3) 공공건축물별 시설개요

[금산군 주요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요]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정부	법무	금산군법원	금산읍상리91-12	2,214.0	390.9	17.7	752.9	26.8	2	1	1999	-
기초 생활 시설	공공 행정	금산군청	금산읍 상리 25-1	7,154.1	2,178.2	30.4	7,823.8	91.1	4	1	1976	2005
		금산읍사무소	금산읍 상리 38-2	2,838.0	856.3	30.2	1,565.1	53.0	2	1	2001	-
		금산경찰서	금산읍 신대리 655-10	16,757.0	1,441.2	8.6	3,954.6	17.5	3	1	2003	2006
		금산소방서	금산읍 상옥리 380	3,266.0	642.3	19.8	2,058.5	54.7	3	1	2001	2008
		금산교육청	금산읍 아인리 64-3	3,697.0	599.0	16.2	1,947.0	45.9	3	1	1990	-
		금산우체국	금산읍 상리 175-10	1,437.8	606.6	42.2	1,539.3	98.5	3	1	1986	2001
		금산전화국	금산읍 상리 112-2	3,397.0	1,337.6	39.4	3,229.6	78.1	3	1	1970	2002
		금산선거관리위원회	금산읍 상리 27-18	331.0	116.3	35.1	174.9	52.8	1	0	1987	2001
	보건 위생	다락원보건소	금성면 양전리 68-9	-	-	-	2,303.6	-	3	1	2004	-
		금산읍지병원	금산읍 상리 232-3	2,833.0	1,125.6	39.7	4,597.3	132.1	5	1	1988	2007
		새금산병원	금산읍 중도리 56-12외	3,653.0	1,222.3	33.5	4,317.2	105.1	4	1	2000	2007
		효사랑병원	남일면 황풍리 343-6	2,191.0	803.0	36.7	4,334.4	166.5	5	1	1993	2005
	기반	시외버스터미널	금산읍 상리 34-10	2,344.0	861.6	36.8	1,808.6	77.2	3	0	1978	-
여가 생활 시설	문화	금산다락원	금성면 양전리 68	31,540.6	6,268.8	19.9	7,653.1	45.7	4	2	2004	-
		다락원문예회관	금성면 양전리 68	-	-	-	3,657.6	-	4	2	2004	-
		청산회관	금산읍 중도리 204-8	-	-	-	1,285.7	-	2	1	2004	-
		금산문화의집	금산읍 하옥리 291-3	10,253.0	649.5	6.3	921.5	9.0	2	0	1999	-
		추부문화의집	추부면 마전리 420-8	1,901.0	502.1	26.4	825.6	43.4	2	0	-	-
	도서 관	인삼고을도서관	금산읍 중도리 204-8	-	-	-	1,172.1	-	4	1	2006	-
		기적의도서관	금산읍 상리 7-10	1,717.0	486.2	28.3	528.5	28.0	1	1	2005	-
	박물관	GINDEX	금산읍 신대리 678	65,112.0	7,120.6	10.9	10,570.1	15.2	3	1	2005	2007
		인삼전시관	금산읍 신대리 392	8,787.0	1,963.3	22.3	5,593.5	50.3	3	1	1998	2007
	체육	다락원 국민체육센터	금산읍 중도리 203-11	-	-	-	1,057.1	-	4	2	2004	-
		금산학생체육관	금산읍 아인리 64	5,218.0	1,711.9	32.8	2,628.4	49.6	2	1	1997	-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사회 복지 시설	아동	향림원	추부면 추정리 185	7,219.0	1,420.0	19.7	2,990.3	39.8	4	1	2005	-
	노인	인삼골 건강마을	금산읍 계진리 273	3,818.0	317.7	8.3	499.7	13.1	2	0	2000	-
		소망의집	군북면 산안리 464-1	990.0	196.9	19.9	196.9	19.9	1	0	2000	-
		새누리 은빛마을	북수면 다북리 361-2	996.0	273.2	27.4	394.5	39.6	2	0	2006	-
	장애인	다솜	금성면 마수리 197	5,712.0	657.0	11.5	639.5	11.2	1	0	2004	-
		새터공동체	추부면 신평리 116	466.0	95.0	20.4	190.0	40.8	2	0	1995	-
		밀알의집	제원면 동곡리 335-7	454.0	140.6	31.0	174.7	38.5	2	0	1999	-

4) 대표 공공건축 사례

□ 법무시설

- 금산군 법원은 금산천 북측에 형성된 읍내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금산군법원



금산읍내를 관통하는 금산천 전경

□ 공공행정시설

- 금산군청과 금산읍사무소는 읍내지역에 인접해 있는데, 금산읍사무소는 주요 도로에 직접 면해 있지만, 금산군청은 경사진 접근로를 따라 올라가야 함
- 금산군청은 긴 일자형 배치와 전면주차장의 일반적 형태이지만, 전면에 넓은 외부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금산군청



금산읍사무소

- 금산경찰서를 신축하고, 옛 경찰서 앞 약 1,300㎡의 부지에 3억 7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준공하였음. 1층에는 시청각교육실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전시하고, 2층은 경우회 및 경찰관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음
- 금산경찰서와 금산소방서는 읍내 외곽지역에 독립되어 홀로 입지하고 있고, 교육청, 우체국 등은 읍내지역에 밀집되어 위치



금산경찰서



교통안전교육센터



금산교육청



금산우체국



금산소방서



금산선거관리위원회

□ 보건위생시설



금산보건소(다락원 내 건강의 집)



새금산병원

□ 기반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 문화시설

- 금산군은 현상공모를 통해 금산 다락원을 조성하여 문예회관 및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보건소 등을 한 곳에 복합하여 조성하였음
- 국민체육진흥기금(활력의 집 : 국민체육센터), 한국마사회기금(농민의집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등의 지원이 있었음
- 금산 문화의 집은 1층의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문화사랑방, 전시실, 비디오부스, 어린이나라, 2층의 개인연습실, 동아리방, 문화관람실, 그리고 별관의 생활체육실로 구성됨



다락원 배치도



다락원 내_만남의집



다락원(여성의 집, 청소년의 집, 장애인의 집, 농민의 집)



금산 문화원(다락원 내 문화의 집)



청산회관(다락원 내)



문예회관(다락원 내 생명의 집)



야외음악당(다락원 내)

□ 도서관

- 인삼고을도서관은 금산 다락원 내에 입지하여 문화강좌실, 전자정보자료실, 희망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됨
- 금산 도서관은 금산천에 면한 좁은 하천도로변에 입지해 있음
- 기적의 도서관은 금산다락원에 인접하여 입지해 있는데, 2005년 문화방송과 시민단체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의 모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건립되었음. 책나라(294㎡), 이야기방(43㎡), 아가들방(21㎡), 지킴이방(21㎡), 디지털 자료방(21㎡), 도움방(33㎡), 흙도 책이다(1,230㎡), 도란도란(79㎡) 등으로 구성됨



인삼고을도서관(다락원 내)



금산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내부

□ 박물관

- 금산인삼종합전시관(GINDEX)과 인삼전시관 연구동 등은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를 위해 조성되었음



인삼전시관(연구동)



금산인삼종합전시관

□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는 다락원 사업시 국민체육진흥공간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다락원 부지내에 건립(활력의 집)한 시설로 지하 1층의 수영장, 유아풀, 기폭탕, 찜탕, 샤워실(남, 여), 탈의실(남, 여) 등과 1층의 체력단련실(헬스장), 건강측정실, 관리사무실, 다목적강의실, 스포츠취미교실, 그리고 2층의 다목적실, 3층의 체육관, 샤워실 등으로 구성됨
- 금산학생체육관은 금산교육청에 인접한 실내체육관임



국민체육센터(다락원 내 활력의 집)



학생체육관

경상남도 거창군

1) 일반현황

□ 입지특성

- 경남 최서북단 내륙지대에 위치하여 전북, 경북과 접경하는 지역
- 3대 국립공원(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의 중심지로 표고 200m 이상의 분지로 이루어짐
- 동측은 장수군, 함양군, 서측은 성주군, 함천군, 남측은 산청군, 북측은 김천시, 무주군과 인접함

□ 교통

- 88고속도로와 37번, 3번, 24번, 59번국도가 통과
- 대구, 광주, 진주, 김천과 연결되어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

□ 인구 : 63,889명 / 25,950세대 (2008년 현재)

□ 행정구역

- 1읍 : 거창읍
- 11면 :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거창군의 행정구역 및 주요 도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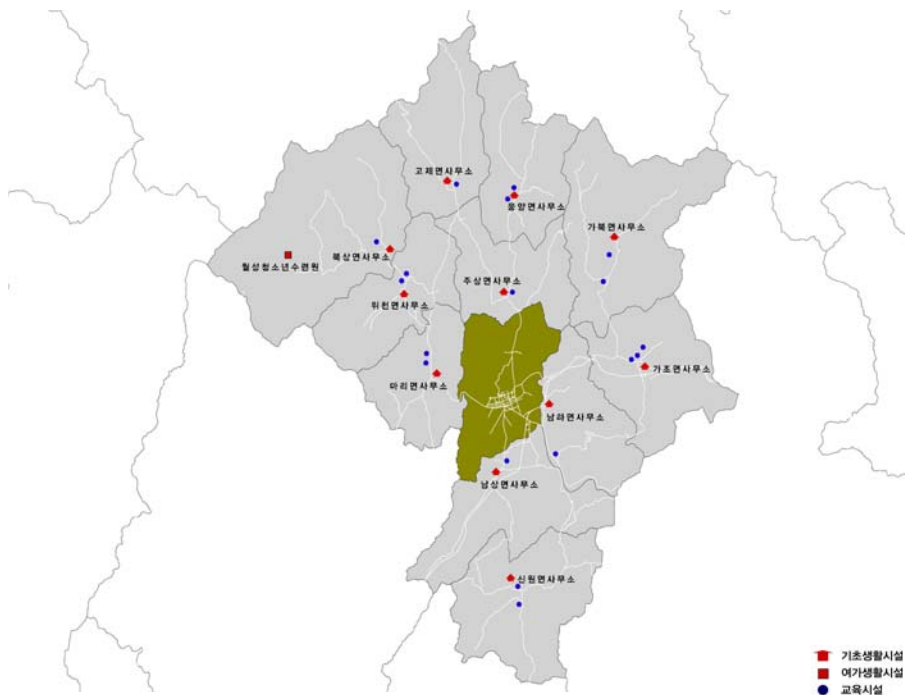
2) 거창군의 공공건축물 현황

- 정부시설로 법무시설인 거창지원과 거창지청 2개소가 있음
- 기초생활시설에는 공공행정시설 22개소, 보건위생시설 4개소, 기반시설 2개소가 있음
- 여가생활시설에는 시민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8개소가 있음
- 생활복지시설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4개소 있음
- 교육시설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 54개소가 있음

[거창군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분류(개수)		시설명
정부건축	정부시설 (52)	법무시설(2)	창원지법거창지원(등기소), 창원지검거창지청
		청사 및 외교시설	-
		연구시설	-
		군시설	-
		항공항만시설	-
민용건축	기초생활시설 (28)	공공행정시설 (22)	거창군청(군의회), 읍·면사무소 12개소 거창소방서, 거창경찰서, 거창우체국, 거창세무서, 거창교육청, 거창전화국, 거창선거관리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보건위생시설(4)	거창보건소, 적십자병원, 서경병원, 거창병원
		기반시설(2)	시외버스터미널, 서흥여객터미널
	여가생활시설 (8)	문화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거창도서관, 거창군립 한마음도서관(책읽는 공원)
		박물관	거창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월성청소년수련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간시설	-
	생활복지시설 (4)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가)}
		노인복지시설	거창노인전문요양원,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
		기타	거창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시설 (54)	유치원	공립 유치원 14개소 ^{나)} , 사립 유치원 2개소(세종유치원, 아림유치원)
		학교시설	초등학교 17개소 ^{다)} , 중학교 12개소 ^{라)} , 고등학교 7개소 ^{마)} , 거창전문대(도립), 거창기능대학

- ※ 가. 어린이집 : 국공립 5개소, 종교부설 2개소, 민간 놀이방 22개소, 그 외 영유아 전담 놀이방 1개소 등 총 30개소
 나. 유 치 원 : 거창유치원, 창동 및 월천초교 병설유치원(거창읍) / 전체 면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1개소
 다. 초등학교 : 거창초교, 창남초교, 창동초교, 아림초교, 월천초교, 셋별초교(거창읍) / 고제초교, 웅양초교, 가북초교, 주상초교, 북상초교, 위천초교, 마리초교, 가조초교, 남하초교, 남상초교, 신원초교(이상 면지역)
 라. 중 학 교 : 대성중, 거창여중, 셋별중, 거창중, 혜성여중(거창읍) / 거창중고제분교, 웅양중, 가조중가북분교, 위천중, 마리중, 가조중, 신원중(이상 면지역)
 마. 고등학교 : 거창중앙고, 대성환경정보고, 거창대성고, 거창고, 거창여고, 거창산업과학고 / 가조익전종합고
 ※ 면단위의 지구대, 우체국, 마을회관 등은 대부분 면사무소와 인접하여 밀집해 있으므로 제외
 ※ 공기업/공사의 지점은 제외 :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 의료보험공단, 적십자사 등



[거창군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면지역)]



[거창군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거창읍내)]

3) 공공건축물별 시설개요

[거창군 주요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요]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정부	법무	거창지원(등기소)	거창읍 상림리 1-4외	11,146.0	2,092.3	18.8	2,349.1	32.9	3	0	1979	2007
		거창지청	거창읍 상림리 1-4외	-	-	-	2,018.1	-	3	0	1979	1999
기초 생활 시설	공공 행정	거창군청(군의회)	거창읍 상림리 64-1	9,061.0	2,291.8	26.3	9,802.1	89.6	5	1	1999	2006
		거창읍사무소	거창읍상림리820	7,011.1	1,067.6	15.2	2,268.8	28.6	3	1	2006	-
		거창경찰서	거창읍 상림리 74-4	4,621.0	1,553.2	33.6	4,015.9	69.8	3	1	1994	2003
		거창소방서	거창읍 대평리 1359-1	6,327.0	1,183.0	18.7	2,378.4	37.4	3	1	1995	2008
		거창교육청	거창읍 대평리 1303-4	4,791.0	788.5	16.5	2,010.2	38.7	3	1	1980	2003
		금산우체국	금산읍 상리 175-10	1,437.8	606.6	42.2	1,539.3	98.5	3	1	1986	2001
		거창세무서	거창읍 상림리 80	4,527.0	1,037.3	22.9	2,146.2	47.4	3	0	2003	2005
		금산선거관리위원회	금산읍 상리 27-18	331.0	116.3	35.1	174.9	52.8	1	0	1987	2001
		거창우체국	거창읍 상림리 75-1	2,167.0	576.9	26.8	2,170.9	79.4	4	1	2003	-
		거창전화국	거창읍상림리155-101	3,593.0	1,296.1	36.1	3,677.1	86.0	3	1	1977	1995
	보건 위생	선거관리위원회	거창읍 송정리 332-3	3,306.0	459.9	13.9	996.7	30.2	2	1	1991	-
		농업기술센터	거창읍 대평리 1359-19	4,164.0	731.2	17.6	1,609.0	37.1	3	1	1998	1999
		거창보건소	거창읍 송정리 21	2,023.0	739.4	36.6	1,412.0	66.2	2	1	1997	2003
	기반	거창적십자병원	거창읍 상림리 74-1	3,143.0	1,180.6	37.6	5,222.9	128.9	4	1	1998	2004
		서경병원	거창읍 송정리 79	5,770.0	1,147.4	19.9	4,859.1	64.9	4	1	2007	-
		시외버스터미널	거창읍 대평리 1005	9,420.0	1,495.5	15.9	2,785.7	29.6	3	0	1987	-
		서흥여객터미널	거창읍 김천리 350	-	493.2	-	493.2	-	1	0	1979	-
여가 생활 시설	문화	교육문화센터	거창읍 김천리 216-5	15,681.0	3,420.2	21.8	4,358.5	31.6	4	1	2001	2006
		청소년문화의집	거창읍 김천리 31	1,013.0	292.7	29.9	928.4	91.7	4	0	1970	2006
	도서관	거창도서관	거창읍 중앙리 297-2	1,411.0	485.0	34.4	959.7	68.0	2	0	1970	2007
		한마음도서관	거창읍 상림리 774	1,638.6	717.4	46.6	2,406.3	121.3	3	1	2006	-
	박물관	거창박물관	거창읍 김천리 216-5	-	-	-	1,317.9	-	2	0	1993	1998
		체육	공설운동장	거창읍 대동리 943-17외	67,628.0	2,993.0	4.4	5,337.6	7.9	3	1	1997
	청소년	월성청소년수련원	북상면 월성리 1608	46,426.0	1,544.0	3.3	3,945.0	6.6	3	1	2000	2007
사회 복지 시설	노인	노인요양병원	거창읍 송정리 719-4	4,283.0	790.1	18.5	2,568.1	56.6	4	1	2005	2007
		노인전문요양원	거창읍 송정리 941-2	6,380.0	1,100.7	17.3	1,190.4	17.2	1	0	2006	-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거창읍 중앙리 333-2	2,631.0	1,129.9	42.9	2,806.6	96.1	3	1	1991	2001

4) 대표 공공건축 사례

□ 법무시설: 거창지원, 거창지청

- 법무시설의 전형적인 일자형 배치와 권위적인 외관을 갖고 있음
- 전면부에 민원인 주차장이 있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주변과 격리됨



거창지원



거창지청

□ 공공행정시설

- 거창군청은 거창경찰서와 함께 시내 중심지 교차로에 있음
- 거창읍사무소는 최근에 신축되어 외부공간이 훌륭함



거창군청



거창읍사무소

- 거창소방서와 농업기술센터는 읍내와 떨어진 농경지 주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거창우체국, 거창세무서 등 나머지 공공시설들은 읍내 중심부 약 200m 반경 이내에 집적되어 있음



거창세무서



거창우체국



거창교육청



거창전화국



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농업기술센터



선거관리위원회

□ 보건위생시설



거창보건소



적십자병원



거창병원



서경병원

□ 기반시설



거창시외버스터미널



서흥여객터미널

□ 문화시설

- 거창문화센터와 거창박물관은 읍내 남측 외곽지역에 함께 입지하고 있음. 버스가 운행되고,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모두 잘 조성되어 있음. 문화센터는 1층의 공연장, 분장실, 연기자 대기실, 2층의 공연장과 휴게실, 3층의 야외공연장 등으로 구성됨
- 청소년 문화의집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많은 편임



거창문화센터



거창박물관



청소년문화의집

□ 도서관

- 한마음 도서관은 전면부에 조성된 책읽는 공원과 함께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음. 인접한 초등학교 등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조성되어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활발함



거창도서관



한마음도서관



한마음도서관 진입로

□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과 주변부지를 중심으로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스포츠파크)

□ 노인 및 기타 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종합사회복지관

경상북도 영주시

1) 일반현황

□ 입지특성

-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소백·태백권 교통의 중심도시
-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에 형성
- 동측은 봉화군, 서측은 단양군, 남측은 안동시와 예천군, 북측은 영월군과 인접함

□ 교통

- 중앙고속도로와 5번, 28번, 36번국도가 통과
- 중앙선과 경북선 철도가 교차

□ 인구 : 115,083명 / 44,447세대 (2007년 기준)

□ 행정구역

- 1읍 : 풍기읍
- 9면 :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 9동 :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가흥2동



[영주시의 행정구역 및 주요 도로 현황]

2) 영주시의 공공건축물 현황

- 정부시설로 안동지원영주법원과 해수부 영주위성항법사무소, 경북 축산 기술연구소가 있음
- 기초생활시설에는 공공행정시설 30개소, 보건위생시설 4개소, 기반시설 3개소가 있음
- 여가생활시설에는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12개소가 있음
- 생활복지시설에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5개소 있음(어린이집 제외)
- 교육시설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 75개소가 있음

[영주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분류(개수)		시설명
정부 건 축	정부 시설 (3)	법무시설(1)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법원(등기소)
		청사 및 외교시설	-
		연구시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군시설	-
		항공항만시설	해양수산부 영주위성항법사무소
공 용 건 축	기초 생활 시설 (37)	공공행정시설(30)	영주시청, 영주시의회,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19개소 영주소방서, 영주경찰서, 영주우체국, 영주세무서, 영주교육청, 영주전화국, 선거관리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보건위생시설(4)	영주보건소, 성누가병원, 기독교병원, 새희망병원
		기반시설(3)	영주역, 시외버스터미널, 영주여객터미널
	여가 생활 시설 (12)	문화시설	영주문화원, 영주시민회관, 평생학습센터(구 여성회관)
		도서관	도립 영주공공도서관, 영주도서관풍기분관, 시립도서관
		박물관	순흥문화유적권(소수박물관, 소수서원, 선비촌 등), 대한광복단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영주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체육시설	영주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 복지 시설 (5)	공간시설	구성공원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가)}
		노인복지시설	임실노인복지회관, 자비동산노인전문요양원, 영주 장수마을실비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 시설 (75)	기타	가흥종합사회복지회관
		유치원	공립 유치원 20개소 ^{나)} , 사립 10개소
		학교시설	초등학교 21개소 ^{다)} , 중학교 11개소 ^{라)} , 고등학교 10개소 ^{마)} , 경북전문대학, 동양대학교, 한국 폴리텍 6대학 영주캠퍼스

※ 가. 어린이집 : 국공립 5개소, 법인 11개소, 개인 25개소, 개인놀이방 3개소 등 총 44개소

나. 유 치 원 : 부석초교남대분교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 공립 부설유치원 20개소, 사립유치원 1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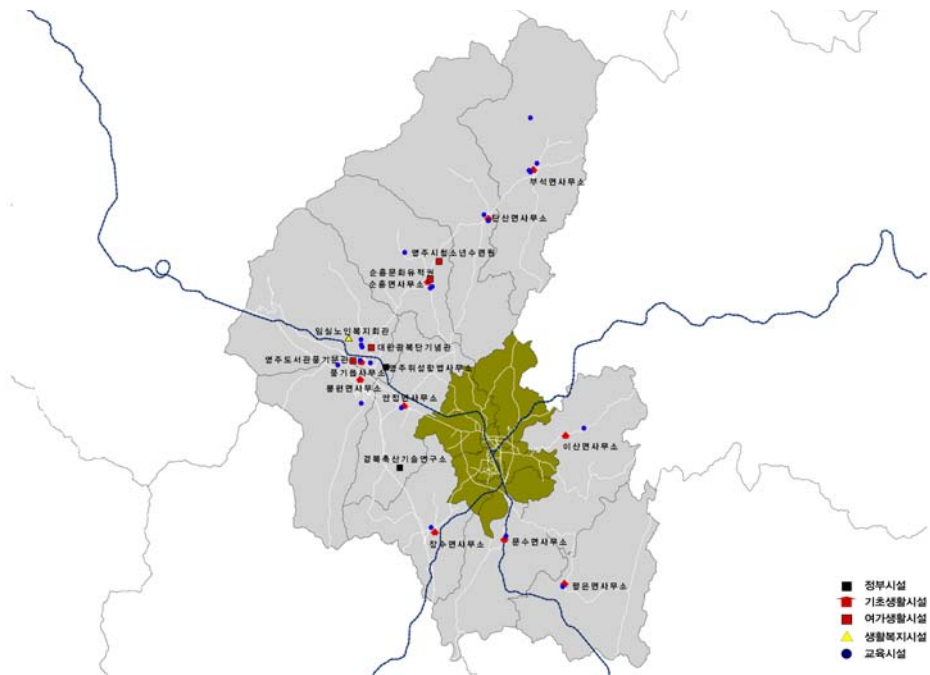
다. 초등학교 : 영주초교, 동부초교, 중앙초교, 남부초교, 서부초교, 영일초교, 남산초교(동지역) / 풍기초교, 풍기북부초교, 이산초교, 평은초교, 문수초교, 장수초교, 안정초교, 봉현초교, 봉현서부초교, 순흥초교, 순흥초교배점분교, 옥대초교, 부석초교, 부석초교남대분교(이상 읍·면지역)

라. 중 학 교 : 영주중, 영주여중, 영광중, 대영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 풍기중, 부석중, 단산중, 소수중, 금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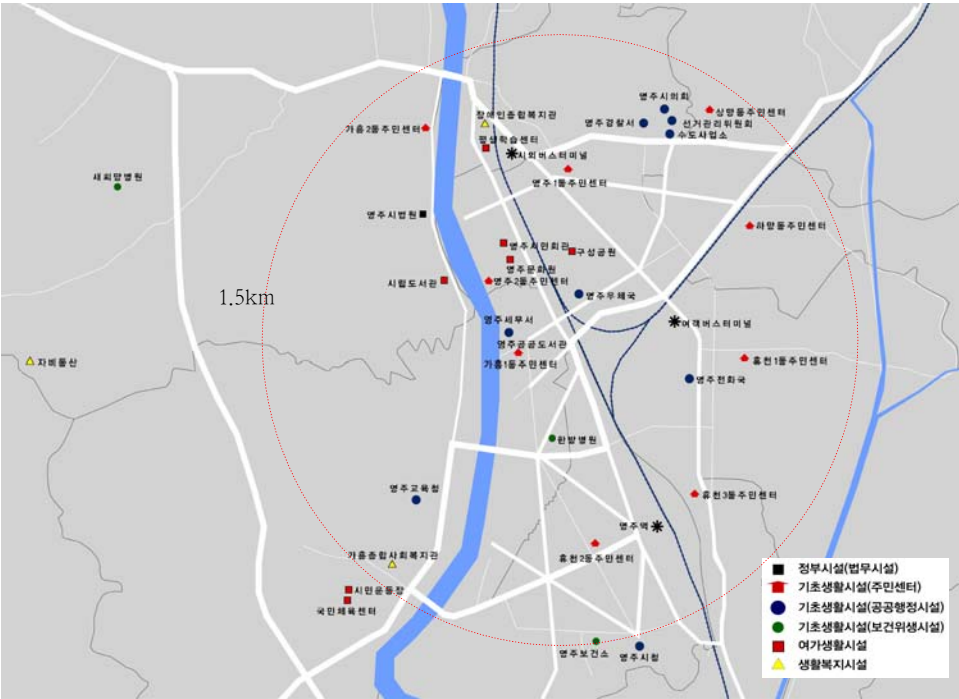
마. 고등학교 : 영주제일고, 영주여고, 영광고, 영주고, 대영고, 영광여고, 선영여고, 동산고 / 부석고, 경북항공고

※ 읍면동 단위 지구대, 우체국, 마을회관 등은 읍·면사무소와 인접하여 밀집해 있으므로 제외

※ 공기업/공사의 지점은 제외: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 의료보험공단, 적십자사 등



[영주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읍면지역)]



[영주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동지역)]

3) 공공건축물별 시설개요

[영주시 주요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요]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지상 지하		준공	증개축
정부	법무	영주시법원 (등기소)	가흥동 393-1	3,113.0	541.1	17.4	922.7	27.6	2	1	2002	-
기초 생활 시설	공공 행정	영주시청	휴천동 470	22,224.0	2,318.1	10.4	8,805.1	29.5	4	1	1980	2005
		영주시의회	영주동 19-1	-	-	-	2,298.5	-	3	1	1990	-
		가흥1동주민센터	가흥1동 1478-7	-	-	-	610.4	-	2	0	1971	1995
		가흥2동주민센터	가흥동 479-7	1,301.0	237.2	18.2	631.7	48.6	3	0	1993	2003
		영주1동주민센터	영주동 546-12	-	-	-	364.8	-	3	0	1987	1988
		영주2동주민센터	가흥동 3-2	2,773.0	954.7	34.4	1,812.4	60.7	3	1	2005	-
		휴천1동주민센터	휴천동 703	644.9	251.9	38.9	678.2	105.2	3	0	1988	2005
		휴천2동주민센터	휴천동 318-4	758.7	316.7	41.7	732.7	96.6	3	0	1989	2003
		휴천3동주민센터	휴천동 685-3외	-	-	-	481.3	-	3	0	1985	1997
		상망동주민센터	하망동 182	742.5	291.5	39.3	554.6	74.7	3	0	1991	1998
		하망동주민센터	하망동 299-8	459.0	216.3	47.1	545.2	118.8	3	0	1991	2008
		영주경찰서	영주동 27-2	-	-	-	3,779.9	-	4	1	1987	-
	보건 위생	영주소방서	문수면 적동리 125-4외	5,192.0	1,234.3	24.8	3,074.1	50.4	3	1	2003	-
		영주교육청	가흥동 279-2외	8,250.0	1,172.6	14.2	2,946.7	31.0	3	1	2002	2007
		영주세무서	가흥동 2-15	6,820.0	1,215.4	17.8	2,759.3	39.3	3	1	1971	1997
		영주우체국	영주동 423-1	1,567.0	982.0	63.0	4,937.5	315.1	5	2	2004	-
		영주전화국	휴천동 677	3,298.7	1,645.7	49.9	5,025.5	139.3	4	1	1995	-
		선거관리위원회	영주동 19-1	-	-	-	1,008.0	-	4	0	1978	2007
		농업기술센터	안정면 안심리 131	6,950.0	1,812.6	26.1	3,346.5	43.7	2	1	1995	2007
		수도사업소	영주동 19-1	-	-	-	179.2	-	2	0	1991	-
		영주보건소	휴천동 466-6	3,264.0	838.7	25.7	1,576.0	42.9	2	1	1999	2001
		성누가병원	영주동 536-4	2,522.9	1,268.0	50.3	6,123.6	225.1	6	1	1999	2001
		영주기독병원	영주동 547-4	-	-	-	2,948.3	-	5	1	1979	-
		새희망병원	가흥동 1311	4,968.0	934.9	16.8	4,412.0	70.7	4	1	2006	-
기반	영주역	휴천동 257	-	-	-	5,781.6	-	3	0	1994	1997	
	시외버스터미널	영주동 497	-	-	-	1,100.0	-	2	0	1975	-	
여가 생활 시설	문화	영주문화원	영주동 470-62	6,298.0	1,284.3	20.4	2,432.5	34.2	3	1	1983	2002
		영주시민회관	영주동 470-62	-	-	-	2,432.5	-	3	1	1983	2002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영주동 479-2	1,493.4	404.6	27.1	1,346.0	75.3	3	1	1994	-
	도서관	영주공공도서관	가흥동 2-69	5,112.0	609.6	11.9	1,807.8	32.6	4	1	1993	2000
		영주도서관 풍기분관	풍기읍 성내리 142-3	-	-	-	976.3	-	3	1	1988	-
		시립도서관	가흥동 산	61,783.0	437.5	0.7	808.4	1.3	2	0	2003	2005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45-7외									
박물관	대한광복단기념관	충기읍 산법리 376	4,018.0	428.1	10.7	1,374.4	29.4	4	1	2000	2002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순흥면 청구리 334외	43,521.0	1,162.4	2.7	3,413.7	5.2	3	1	2000	-
체육	시민운동장	가흥동 산 21	-	-	-	8,805.0	-	3	0		
사회 복지 시설	임실노인복지회관	풍기읍 금계리 314	-	-	-	50.0	-	1	0	1970	-
	노인 장수마을설비 요양원	안정면 내줄리 318-9	3,001.0	1,185.9	39.5	2,621.5	76.1	2	1	2000	2004
	자비동산노인 요양원	가흥동 1354-8	5,084.0	701.3	13.8	1,637.6	32.2	3	0	2005	-
	장애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가흥동 1479-8	-	-	-	1,226.4	-	3	0	1984	-
	기타 가흥종합사회 복지회관	가흥동 1385	-	-	-	3,209.9	-	3	0	1993	-

4) 대표 공공건축 사례

□ 법무시설 : 영주시법원

- 전형적인 일자형 배치로 1층에는 등기소, 2층에는 법원이 있음
- 강변도로와 지형차가 있고, 강변도로와 접하는 4차선 도로를 통해 접근(대중교통 이용시 버스하차 후 걸어서 약 50m 거리)



영주시법원



영주시법원

□ 공공행정시설

- 시청은 도심 남측 외곽에 있고, 표고가 높은 언덕 지형에 자리 잡고 있음
- 시의회는 도심 북측 경사지에 수도사업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입지해 있음. 정면의 본관과 좌측의 신축별관은 'ㄱ'자형 배치를 가짐
- 그 외 각 동 주민센터는 일자형 배치와 전면부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공간은 없음



영주시청



영주시청에서 영주시내를 바라본 모습



휴천1동 주민센터



휴천2동 주민센터



가흥1동 주민센터



가흥2동 주민센터



영주1동 주민센터



영주2동 주민센터



상망동 주민센터



하망동 주민센터

- 영주소방서는 동지역 외곽인 문수면 적동리 일원에 2004년에 신축하였고, 영주 우체국도 2004년 현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영주교육청도 2004년 신축 이전하는 등 최근 신축된 건축물이 많음. 이들은 주로 현상공모를 통해 발주되어 건축물 및 외부공간의 디자인 수준이 높지만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현상공모

방식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음

- 우체국과 전화국, 세무서 등은 시민 서비스를 위해 시내 요지에 입지하여, 도시 특성과 큰 관련없이 전형적인 배치와 평면, 입면을 가짐
- 경찰서, 소방서 등은 시내 외곽 농경지 또는 산림지역에 입지



영주교육청



영주우체국



영주세무서



영주전화국



영주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영주경찰서

□ 보건위생시설



영주보건소



영주보건소 접근로



새희망병원

□ 기반시설



영주역



시외버스터미널



영주여객버스터미널

□ 문화시설

- 영주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보존전승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행사, 교육, 그리고 향토사의 조사연구, 자료수집 보존 등의 작업을 수행중
- 영주문화원과 영주시민회관에서 동일한 지역에 입지
- 특히, 영주시민회관에서 현재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영주문화원도 잘 조성된 외부공간과 건축물에 비해 내부는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이용도 많지 않은 편으로 파악됨



영주문화원



영주시민회관



여성회관

□ 도서관

- 영주공공도서관은 좌석수 582석에 자료실 4실, 강좌실 2실, 열람실 2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임. 문화강좌실(지하 1층), 일반자료실, 아동자료실(1층), 디지털자료실, 참고정간실(2층), 문화강좌실, 학생열람실, 성인열람실(3층) 등으로 구성됨. 전면에는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접한 세무서와는 담장으로 가로막혀 접근이 쉽지 않음
- 시립도서관은 2004년에 개관한 신축 건물로 1층의 아동·일반자료실, 사무실과 2층의 열람실(96석), 디지털자료실(24석), 문화강좌실(42석)로 구성됨



도립 영주공공도서관



영주시립도서관

□ 박물관

- 순흥문화유적권에는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숙박 체험장 및 전통가옥 견학 코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비촌은 2004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 대한광복단기념관은 웅변, 글짓기 등 학생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 무장 항일단체인 “대한광복단” 결성지역에 조성되었음

□ 체육시설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타

-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인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실, 주간보호실, 재활운동실(이상 1층), 다목적실 및 강당, 직업적응훈련실, 언어치료실, 보호자대기실, 진단 및 검사실, 행동치료실(이상 2층), 사무실과 회의실(3층) 등으로 구성됨
- 가흥종합사회복지회관은 영주시가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가흥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하여, 천주교안동사회복지회에 운영을 위탁하였음.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일 평균 약 500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성분도 어린이집, 여우노인복지센터, 아동발달지원센터,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이 현재 운영중임



장애인종합복지관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충청북도 제천시

1) 일반현황

□ 입지특성

- 충청북도의 북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
- 동측은 단양군, 서측은 충주시, 남측은 문경시, 북측은 원주시, 영월군과 인접함

□ 교통

- 중앙고속도로와 38번국도, 36번국도, 5번국도 통과
-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철도가 교차

□ 인구 : 137,545명 / 52,392세대 (2007년 기준)

□ 행정구역

- 1읍 : 봉양읍
- 7면 : 백운면,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한수면, 덕산면
- 9동 : 고산모암동, 교동, 청전동, 중앙의림명동, 신백두학동, 서부영천동, 화산동, 남천동현동, 용두동



[제천시의 행정구역 및 주요 도로 현황]

2) 제천시의 공공건축물 현황

- 정부시설로 법무시설인 제천지원과 제천지청 2개소가 있음
- 기초생활시설에는 공공행정시설 26개소, 보건위생시설 5개소, 기반시설 3개소가 있음
- 여가생활시설에는 시민회관, 문화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15개소가 있음
- 생활복지시설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9개소가 있음(어린이집 제외)
- 교육시설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 81개소가 있음

[제천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분류(개수)		시설명
정부 건축	정부 시설 (2)	법무시설(2)	청주지법제천지원(등기소), 청주지검제천지청
		청사 및 외교시설	-
		연구시설	-
		군시설	-
		항공항만시설	-
공용 건축	기초 생활 시설 (34)	공공행정시설 (26)	제천시청(시의회), 동읍면 주민센터 17개소 제천소방서, 제천경찰서, 제천우체국, 제천세무서, 제천교육청, 제천전화국, 제천선거관리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위생시설(5)	제천보건소, 제천노인병원, 제천정신병원, 서울병원, 현대병원
		기반시설(3)	제천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여가 생활 시설 (15)	문화시설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야외음악당, 학생회관
		도서관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박물관	지적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제천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체육시설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남천체육관, 올림픽스포츠크터
		공간시설	시민광장
	생활 복지 시설 (9)	아동복지시설	제천영아원, 어린이집 ^{가)}
		노인복지시설	제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성보나베틀라 노인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암학교
		기타	제천 종합사회복지관, 제천카톨릭복지관
	교육 시설 (81)	유치원	공립 유치원 22개소, ^{나)} 사립 14개소
		학교시설	초등학교 24개소, ^{다)} 중학교 11개소, ^{라)} 고등학교 7개소, ^{마)} 세명대, 대원과학대, 한국폴리텍IV제천대학

※ 가. 어린이집 : 시립 6개소, 법인 13개소, 종교법인 4개소, 민간 15개소, 직장 3개소, 그 외 놀이방 16개소 등 57개소

나. 유 치 원 : 장락초교, 내토초교 제외한 전 초교에 병설유치원 22개소(사립 14개소 별도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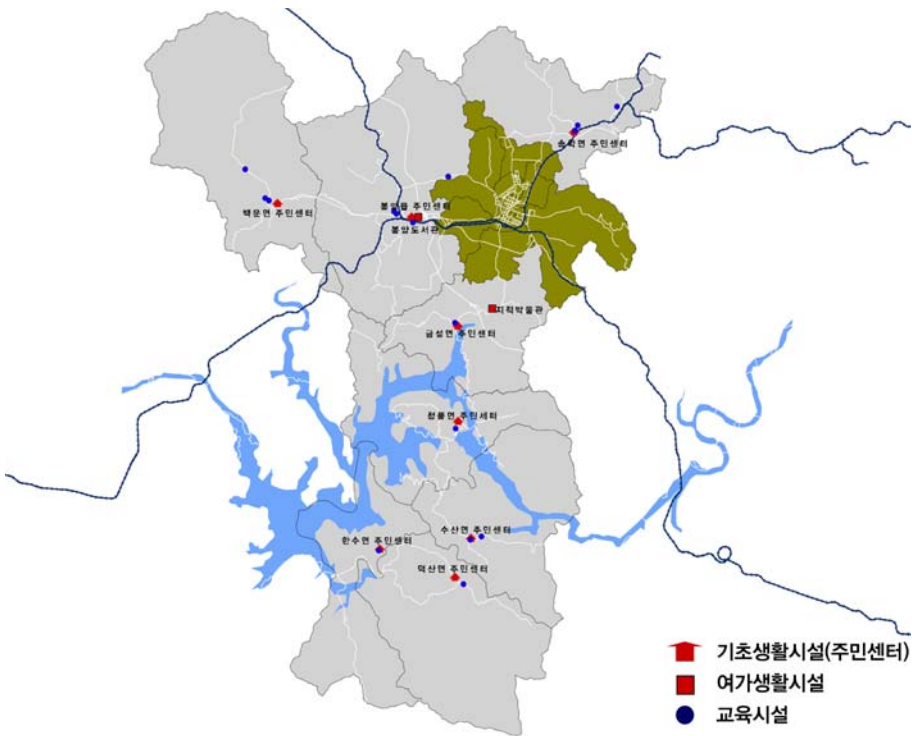
다. 초등학교 : 동명초교, 의림초교, 남당초교, 남천초교, 중앙초교, 장락초교, 화산초교, 용두초교, 흥광초 교,
신백초교, 내토초교, 두학초교, 명지초교(이상 동지역) / 봉양초교, 왕미초교, 금성초교, 청풍초
교, 수산초교, 덕산초교, 한송초교, 화당초교, 송학초교, 입석초교, 백운초교(이상 읍면지역)

라. 중 학 교 : 제천중, 제천동중, 제천여중, 의림여중, 내토중, 대제중(사립) / 송학중, 봉양중, 백운중, 수산중, 한송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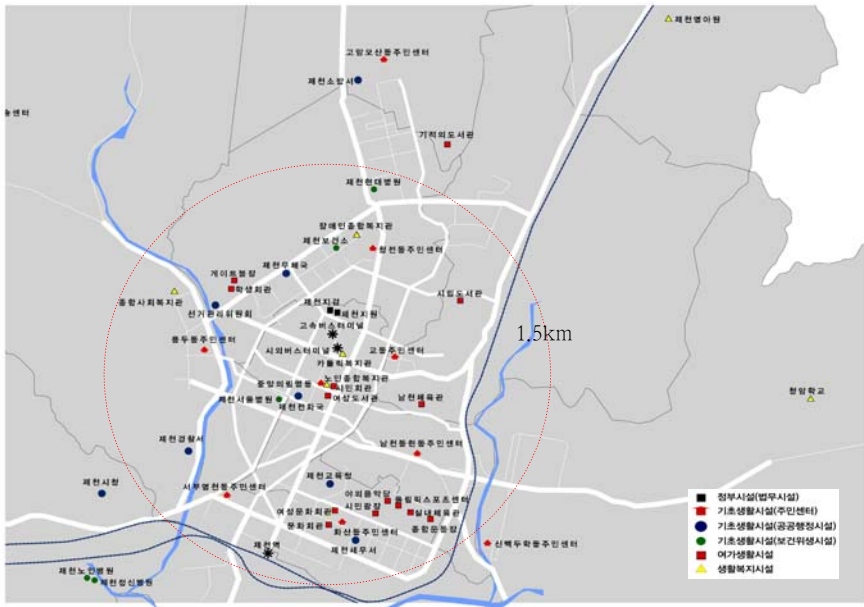
마. 고등학교 : 제천산업고, 제천제일고, 제천상고, 제천여고, 제천고, 세명고 / 제천디지털전자고

※ 읍면동 단위 지구대, 우체국, 마을회관 등은 읍·면사무소와 인접하여 밀집해 있으므로 제외

※ 공기업/공사의 지점은 제외 :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 의료보험공단, 적십자사 등



[제천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읍·면지역)]



[제천시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동지역)]

3) 공공건축물별 시설개요

[제천시 주요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요]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정부 시설	법무	제천지원(등기소)	중앙로2가 16-2	6,652.6	732.3	11.0	2,018.7	30.3	4	1	1973	1996
		제천지청	의림동 3-3외	6,652.6	1,741.3	13.1	4,376.0	31.2	4	1	1973	2003
기초 생활 시설	공공 행정	제천시청(시의회)	천남동 12-2	46,160.0	4,397.0	9.5	14,512.0	28.1	5	1	1992	2007
		청전동주민센터	청전동 106-4	2,221.8	573.8	25.8	999.1	45.0	2	1	1979	2001
		용두동주민센터	하소동 323-24	1,313.0	309.8	23.6	509.7	38.8	2	0	1983	2002
		중앙의림명동 주민센터	의림동 26-24	497.8	227.9	45.8	469.6	94.3	2	0	1986	2001
		교동주민센터	교동 90-14	449.3	228.6	50.9	503.0	111.9	3	0	1987	1996
		남천동현동주민센터	동현동 55-33	627.0	324.0	51.7	562.7	89.7	3	0	1987	2002
		화산동주민센터	화산동 419	642.1	314.9	49.1	558.1	86.9	2	0	1988	2007
		신백두화동주민센터	신백동 306-1	1,931.0	381.6	19.8	1,040.8	51.8	3	1	1997	2006
		고암모산동주민센터	고암동 1207-1	4,836.0	566.2	11.7	1,010.2	20.9	2	0	2005	-
		제천경찰서	하소동194	16,961.0	2,441.1	14.4	5,296.6	27.3	4	1	1987	2000
		제천소방서	모산동427-1	6,668.0	1,329.5	19.9	3,718.6	51.0	3	1	1996	2006
		제천교육청	화산동191-3	8,645.0	603.5	7.0	1,798.5	20.8	3	1	1983	1996
		제천세무서	화산동 604외	3,269.3	706.1	21.6	1,964.1	52.6	3	1	1986	2008
		제천우체국	청전동988	3,753.1	1,172.0	31.2	5,573.2	110.9	4	1	2002	-
		제천전화국	의림동 49-1	7,714.9	2,264.3	34.5	12,373.3	106.2	4	2	1995	-
		선거관리위원회	청전동518-1	2,685.0	-	-	856.8	-	2	1	1993	-
		농업기술센터	봉양읍 미당리 211-1외	6,702.0	1,784.4	24.0	2,849.2	36.1	2	1	1998	2000
	보건 위생	제천보건소	청전동653	2,436.9	1,001.1	41.1	2,425.4	99.5	2	1	1996	1999
		제천서울병원	서부동 176외	4,301.0	1,990.3	46.3	11,161.1	198.7	7	2	1981	2007
		제천노인병원	천남동 355-5외	19,063.0	3,329.2	17.5	10,844.7	45.9	5	1	1987	2005
		제천정신병원	천남동 355-5외	19,063.0	3,329.2	17.5	10,844.7	45.9	5	1	1987	2005
		제천현대병원	청전동39-1	934.0	478.4	51.2	2,882.4	308.6	6	1	1990	-
	기반	제천역	영천동 1381-1	16,802.0	1,952.8	11.6	2,455.7	13.7	3	1	1976	-
		고속버스터미널	의림동25-24	1,658.9	275.5	16.6	380.1	22.9	2	1	1979	1996
		시외버스터미널	의림동8-21	-	-	-	1,527.8	-	3	1	1973	1986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여가 생활 시설	문화	문화회관	화산동 415	5,104.0	-	-	4,158.0	81.5	4	1	1985	-
		시민회관	중앙로2가 26-1	10,073.0	574.5	12.6	2,112.6	38.3	4	1	1987	1991
		여성문화센터	화산동 417	1,376.0	624.0	45.3	1,770.0	128.6	3	1	1993	2005
		학생회관	청전동470	18,066.0	1,787.9	9.9	3,354.9	15.8	2	1	1995	1999
		아외음악당	화산동 128-1	59,763.0	22,092.0	19.2	1,278.0	13.8	1	1	2000	-
	도서관	여성도서관	중앙로2가 29-1	344.5	287.1	83.3	964.9	245.2	4	1	1994	2005
		시립도서관	장락동 672-8	15,331.0	1,567.3	10.2	4,747.5	24.5	4	1	1996	2006
		기적의도서관	고암동1134	4,895.0	817.1	16.7	817.1	16.7	1	0	2004	2007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송학면 도화리 산 10-2외	72,710.0	2,499.8	3.5	5,218.6	6.1	3	1	1999	-
	체육	종합운동장	화산동 1외	114,875.0	22,092.0	19.2	3,862.0	13.8	3	0	1985	2006
		실내체육관	화산동 128-1	59,763.0	22,092.0	19.2	6,735.0	13.8	2	1	1995	-
		올림픽스포츠센터	화산동128-1	-	-	-	5,002.0	-	3	0	1995	1999
사회 복지 시설	이동	제천영아원	고암동 253-3	6,002.0	1,144.3	19.1	2,779.9	46.3	3	1	1982	2007
	노인	노인종합복지관	중앙로2가 26-1	10,073.0	374.0	12.6	1,453.2	38.3	6	0	2002	2006
		명락노인복지관	명동190-2	913.0	533.9	58.5	1,746.3	140.2	3	1	2000	2006
		성보나베틀라	명지동213	9,989.0	1,996.0	20.0	5,638.1	42.9	3	1	1993	-
	장애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전동689	330.6	221.3	67.0	568.9	143.8	3	1	1998	2000
		청암학교	흑석동45-1	27,144.0	4,954.3	18.3	10,945.9	37.9	3	1	1990	2007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하소동345	-	-	-	3,279.6	-	3	1	2004	-
		카톨릭복지관	의림동 31-3외	1,028.4	526.3	51.2	1,876.8	157.9	4	1	1978	2001

4) 대표 공공건축 사례

□ 법무시설: 제천지원, 제천지청

- 법무시설의 전형적인 일자형 배치와 권위적인 외관을 갖고 있음
- 전면부에 민원인 주차장과 녹지가 있고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여 주변과 격리되어 있음
- 주로 4차선 법원로를 통해 차량으로 접근하고, 진입로는 약간 경사져 있음



제천시청



제천시청

□ 공공행정시설

- 시청은 본관 우측 시의회건축물, 그리고 별관인 건설민원봉사실의 'ㄱ'자형 배치
- 도심과는 약 2km 떨어진 외곽지역에 입지. 주변 지역도 주로 농경지 또는 나대지
- 시내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있지만, 이용객은 많지 않음



제천시청



제천시청과 별관

- 최근 신축된 고암모산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를 복합했고, 건물 및 외부공간 디자인 수준이 높음
- 그 외 주민센터는 일자형 배치와 전면부에 주차장이 있으며 별도의 외부공간은 없음



고암모산동 주민센터



고암모산동 주민센터



교동 주민센터



서부영천동 주민센터



신백두학동 주민센터



청전동 주민센터



용두동 주민센터



중앙의림명동 주민센터



남천동현동 주민센터



화산동 주민센터

- 그 외 공공행정시설은 대부분 상자형 매스와 전면 주차장으로 배치되며 정면 중앙에 있는 2~3단의 계단을 통해 진입하여 양쪽에 사무실이 있는 평면으로 구성됨. 별도의 편의시설 및 외부공간에 대한 계획내용은 찾기 어려움
- 제천소방서, 제천경찰서, 농업기술센터는 시내 외곽에 농경지로 둘러싸여 입지하고,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긴 접근로를 통해 차량으로 진입함. 제천교육청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는 경사진 언덕에 입지하여 보행 접근이 어려움
- 시민들의 방문이 빈번한 제천전화국, 제천우체국, 제천세무서, 제천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도로 또는 시내 중심부의 가각에 입지하여 승용차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함



제천경찰서



제천교육청



제천우체국



제천전화국



제천소방서



제천세무서



제천선거관리위원회

□ 보건위생시설



제천보건소



제천서울병원

□ 기반시설



제천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 문화시설

- 문화회관과 여성문화센터는 화산동 주민센터 인근에 함께 입지하고 있음
- 문화회관은 귀빈실, 회의실, 대강당, 전시실(1층), 소상공인 지원센터, 한국예술인총연합회, 6·25 참전유공자회,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2층), 의병기념사업회, 내제문화연구회, 청소년 종합상담실(3층), 청풍영상위원회, 청소년 공부방(4층) 등으로 구성됨



문화회관



여성문화센터

- 학생회관은 아동열람실, 평생교육실, 향토자료전시관(1층), 자유열람실, 강의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2층) 등의 공간을 바탕으로 각종 도서 및 자료의 열람과 대출, 특별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중임



학생회관



야외음악당

- 시민회관과 여성도서관은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제천시 중심부인 중앙공원 일대에 밀집되어 있음. 특히 중앙공원 앞(의림대로)은 제천시 각 지역과 연계되는 버스노선이 풍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시민회관은 소극장, 교육실(지하 1층), 전시실(1층), 제천문화의 집, 문화관람실(2층), 제천문화원, 전통문화체험실(3층), 소비자보호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4층) 등으로 구성됨
- 여성도서관은 김학임 여사가 기부한 대지 344㎡에 제천시가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993년 10월에 준공하였고, 모유수유실(1, 2층), 자료열람실(2층), 일반열람실, 휴게실(3층) 등의 공간을 포함하며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88평)의 규모임



여성도서관



시민회관

□ 도서관

- 기적의 도서관은 2004년 10월, 제천시가 '청정제천21실천협의회'와 함께 개관한 것으로, 현재는 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위탁운영중임. 시내 외곽에 입지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주요 시내 방면에서 셔틀버스를 1일 3회 운영하고 있음
- 시립도서관은 본관과 최근 신축된 별관(의병도서관)으로 구성됨. 본관은 열람실(1층), 일반자료실 및 연속간행물실(2층), 디지털자료실 및 가족극장(3층)으로 구성되고, 의병도서관은 어린이열람실(1층), 의병자료실(2층), 평생학습실(3층) 등으로 구성



기적의 도서관



시립도서관

□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 야외음악당과 시민광장은 모두 114,875㎡의 종합운동장 시설부지에 함께 건립되어 있음
- 1988년 9월 25,000명 수용이 가능한 24,385㎡의 종합운동장을 준공하여 1988년 7월 공인 1종 육상경기장으로 조성하였으며, 1992년 4월 7면의 테니스장을 개장하고 2000년 10월 8면 7,150㎡로 증설하였음. 1995년에는 3,300명을 수용하는 7,359㎡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1999년 9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6레인의 수영장, 3면의 스쿼시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 5,002㎡의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개장하였으며, 2000년 10월 야외음악당, 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생활 체육광장 22,660㎡를 조성함으로써, 이를 시민광장으로 이름지어 사업을 완료하였음
- 다른 시설은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으며,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제천시에서 건립하였지만, 현재 KBS 비즈니스 88체육관에서 위탁관리함



올림픽스포츠센터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체육관



남천체육관

□ 노인 및 기타복지시설

- 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관리실(1층), 교양교육실, 정보통신교육실(2층), 강당, 바둑장기실(3층),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4층) 등으로 구성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 중구

1) 일반현황

□ 입지특성

- 동해와 접해 있으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도시
- 동측은 동해에 면하고, 서측은 울주군, 남측은 부산 기장군, 북측은 경주시와 인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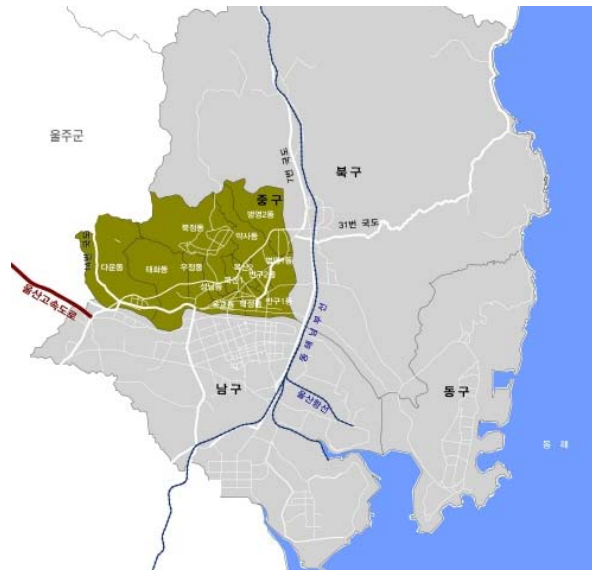
□ 교통

-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울주군을 통과하며 울산고속도로를 통해 남구와 연결
- 7번, 14번, 31번국도가 통과
- 동해남부선과 울산항선 철도 운행

□ 인구 : 236,351명 / 83,675세대 (2008년 현재)

□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는 중구를 비롯하여 북구, 동구, 남구 등 4개구로 구성됨
- 중구는 학성동, 반구1동, 반구2동, 북산1동, 북산2동,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병영1동, 병영2동, 약사동 등 14개 동으로 구성됨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 및 주요 도로 현황]

2)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공건축물 현황

- 기초생활시설에는 공공행정시설 22개소, 보건위생시설 2개소가 있음
- 여가생활시설에는 여성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 6개소가 있음
- 생활복지시설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4개소 있음
- 교육시설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총 69개소가 있음

[울산광역시 중구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분류	시설 분류(개수)		시설명
정부 건축	정부 시설	법무시설	-
		청사	-
		외교시설	-
		군시설	-
		항공항만시설	-
민용 건축	기초 생활 시설 (24)	공공행정시설 (22)	중구청(중구의회), 동주민센터 14개소 울산우체국, 울산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중부소방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보건위생시설(2)	중구보건소, 동강병원
		기반시설	-
	여가 생활 시설 (6)	문화시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중구문화원, 울산문화의집
		도서관	중부도서관
		박물관	-
		청소년관련시설	-
		운동장 및 체육시설	울산종합운동장, 동천실내체육관
		공간시설	-
	생활 복지 시설 (4)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가)}
		노인복지시설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울산시립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기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교육 시설 (69)	유치원	공립 유치원 12개소 ^{나)} , 사립 19개소
		학교시설	초등학교 19개소 ^{다)} , 중학교 10개소 ^{라)} , 고등학교 7개소 ^{마)} ,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 7대학 울산캠퍼스

* 가. 어린이집 : 총 41개소

나. 유 치 원 : 내환, 성안, 명정, 병영, 다운, 남외, 백양 초교 제외한 전 초교에 병설유치원 12개소(사립 19개소 별도운영)

다. 초등학교 : 양사초교, 학성초교, 함월초교, 복산초교, 삼일초교, 우정초교, 태화초교, 울산초교, 약사초교, 평산초교, 옥성초교, 무룡초교, 내환초교, 성안초교, 명정초교, 병영초교, 다운초교, 남외초교, 백양초교

라. 중 학 교 : 성안중, 울산여중, 학성여중, 울산동여중, 유공중, 무룡중, 울산동중, 울산제일중, 남외중, 울산중(사립)

마. 고등학교 : 울산중앙여고, 울산중앙고, 학성여고, 함월고, 울산애니원고, 성신고(사립), 울산고(사립)

* 읍면동 단위 지구대, 우체국, 마을회관 등은 읍·면사무소와 인접하여 밀집해 있으므로 제외

* 공기업/공사의 지점은 제외: 농업기반공사, 지적공사, 의료보험공단, 적십자사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 유형별 공공건축물 현황]

3) 공공건축물별 시설개요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 공공건축물의 시설개요]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기초생활 시설	울산중구청(중구의회)	북산동 180-1	15,680.0	3,209.7	20.5	10,789.2	58.6	5 1	1997	2004
	반구1동주민센터	반구동 582-6	622.0	298.8	48.0	697.6	112.2	3 0	1983	-
	반구2동주민센터	반구동 46-2	1,003.1	363.2	36.2	736.7	65.7	2 1	1992	2005
	병영1동주민센터	남외동 247-1	1,170.0	340.0	29.1	766.4	65.4	3 0	1984	2005
	병영2동주민센터	서동 61-3	1,001.0	-	-	876.9	76.3	3 1	1993	2000
	북산1동주민센터	북산동 352-1	-	-	-	977.3	-	3 1	1991	1995
	북산2동주민센터	북산동 100-26	992.0	341.5	34.4	995.4	100.3	3 0	2002	2002
	북정동주민센터	북정동 123-5	493.0	188.4	38.2	444.8	90.2	3 0	1975	2007
	우정동주민센터	우정동 282-18	712.4	212.7	29.9	537.7	75.5	3 0	1976	2006
	약사동주민센터	약사동 590-13	-	-	-	451.2	-	2 0	1979	1986
	성남동주민센터	성남동 71-5	904.2	385.4	42.6	1,649.3	126.4	4 1	1985	1993
	학성동주민센터	학성동 153-1	1,232.3	379.1	30.8	758.2	61.5	2 0	1985	-
	태화동주민센터	태화동 20-3	2,386.9	92.4	17.1	919.2	33.9	3 1	1995	2001
	옥교동주민센터	학산동 123	1,971.3	1,078.2	54.7	4,530.1	150.9	3 1	1999	-

분류		시설명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준공	증개축
									지상	지하		
		다운동주민센터	다운동 519-8	597.4	356.3	59.6	857.2	115.1	3	0	2000	2001
		울산지방경찰청	성안동 313-1	36,400.0	2,956.1	8.1	18,232.4	37.6	9	1	2004	-
		울산교육청	유곡동 250	29,609.0	5,657.7	19.1	29,745.5	61.8	8	2	2004	-
		울산우체국	학성동 349-17	3,076.0	1,437.6	46.7	5,991.5	149.5	4	1	2003	-
		울산중부소방서	성남동 219-137외	2,026.0	951.0	46.9	1,584.1	78.2	3	0	1987	-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학성동 349-16	3,648.0	697.2	19.1	2,528.0	66.1	4	1	2005	-
	보건 위생	중구보건소	남외동 603-2	4,557.0	888.4	19.5	3,740.0	56.8	3	1	1998	-
		강서병원	다운동 552-5	431.0	254.7	59.1	1,951.3	363.7	7	2	1994	-
		길메리병원	반구2동 179-7	395.0	235.3	59.6	1,420.3	316.6	6	1	1994	2006
여가 생활 시설	문화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복산동 1	4,556.0	906.6	19.9	3,890.1	55.2	3	1	1992	-
		울산문화의집	북정동 350-5	2,645.0	1,577.8	59.7	1,686.0	63.7	3	0	1984	-
	도서관	중부도서관	북정동 350-5	2,645.0	1,577.8	59.7	3,341.7	126.3	4	1	1999	-
	체육	종합운동장	남외동 865	113,602.0	22,137.2	19.5	32,200.7	26.5	3	1	2005	-

4) 대표 공공건축 사례

□ 공공행정시설

- 중구청은 북부순환도로변에 입지해 있고, 차량은 순환도로에서 직접 진입이 안되고 이면의 접근로를 통해 진입해야 함. 일자형 배치로 주변지역은 아파트단지임
- 그 외 주민센터는 일자형 배치와 전면부에 주차장이 있으며 별도의 외부공간은 없음.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규모가(연면적, 층수) 큼



중구청



중구청



북산1동 주민센터



북산2동 주민센터



약사동 주민센터



태화동 주민센터



병영2동 주민센터



북정동 주민센터

- 울산우체국(2003년), 울산지방경찰청(2004년), 울산교육청(2004년), 중구선거관리위원회(2005년) 등 주요 공공행정시설이 최근에 신축되었음
- 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교육청 등은 시내 지역과 떨어진 외곽 산림지역 또는 순환도로 주변에 입지하고,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시내지역에 입지. 특별히 중부소방서는 보행량이 많은 쇼핑중심지역에 입지해 있음



울산지방경찰청



울산교육청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울산우체국



울산전화국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 보건위생시설



중구보건소



동강병원

□ 문화시설

- 여성회관은 1992년 개관하였고 2001년부터는 울산 YWCA가 위탁운영 중에 있음. 자원봉사자실, 댄스스포츠실, 피부관리실, 생활체육실(지하 1층), 취미실, 사무실, 강당, 보육실(1층), 서예실, 도매실, 미용실, 컴퓨터실, 제빵실, 조리실(2층), 한복실, 양재실, 예법실(3층) 등으로 구성
- 울산 문화의 집은 중부도서관과 함께 입지하고 있음. 1층 멀티코너 CD부스와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전통문화사랑방, 유아놀이방 등이 있음. 2층에는 개인예술활동을 위한 연습실과 동아리 연습실 등이 있음
- 중부도서관 앞에는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여성회관



울산 문화의 집



중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전면공원

□ 체육시설

- 울산종합운동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19,627석을 수용하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청소년공연장, 옥상광장, 기타 부대시설로 구성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 울산 장애인복지관은 치과, 강당, 암벽등반실, 스포츠교실, 이미용실, 목욕실, 재활운동실, 신나라동산, 재가복지봉사센터, 야외활동공간(지하 1층), 하늘정원, 작업활동장, 직업재활교육실, 방과후교실, 주간보호센터, 소아물리치료실, 성인치료실, 직업재활실, 가족대기실(1층), 언어치료실, 장난감도서관, 개별상담실, 인터넷검색실, 사회교육실, 정보화교육센터(2층) 등으로 구성



시립요양원



장애인종합복지관

(auri



ISBN 978-89-93216-05-9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el 031-478-9600
fax 031-478-9609
www.auri.re.kr